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음악박사학위논문

김영철 첼현금산조의 형성 및 전승에  
대한 음악적 연구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고 보 석

#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형성 및 전승에 대한 음악적 연구

지도교수 정 대 석, 이 지 영

이 논문을 음악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고 보 석

고보석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2월

위 원 장      김승근      (인)

부위원장      이진원      (인)

위      원      정화순      (인)

위      원      정대석      (인)

위      원      이지영      (인)

##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철현금의 탄생과 동시에 출범한 철현금산조가 철현금으로 연주한 최초의 음악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진행되었다. 1943년경에 처음 만들어진 철현금과 그 음악의 발전 궤적은, 하나의 악기가 탄생해 민족정서를 담아내는 국악기로 자리매김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현전 음원자료와 전수자 및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관련사실을 확보한 뒤, 그것들을 분석적으로 조망하여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김영철 철현금산조를 음악적으로 분석한 뒤, 그것을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 가운데 유사선율과 상호 비교하여 그것들이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형성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런 뒤에 김영철 이후 여러 전수자들에 의해 연주되어온 산조들의 선율을 살펴 철현금산조의 전개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현금은 1943년경 김영철이 기타를 개량하여 만든 악기이다. 김영철은 새로운 악기와 함께 철현금산조를 선보여 산조음악의 다양화에 기여했다. 또한 김영철의 철현금산조는 후학에게 전수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전승 과정에서 선율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철현금은 산조 외에도 다양한 악곡의 연주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외국에서 들어와 민족 악기로 자리매김한 해금이나 피리처럼 철현금도 우리 정서를 담아 내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국악기의 하나로 정착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철현금산조는 현재 두 바탕의 음원이 전한다. 첫째바탕은 아세아



레코드사에서 출판한 LP 『산조-철현금·아쟁』 이고, 둘째바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출판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23 산조』 이다. 현전하는 두 바탕의 음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바탕에서 진양조는 총 55장단으로 총 10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중모리는 총 33장단이고 전 장단이 공히 c청 계면조인 것으로, 중중모리는 총 53장단으로 총 2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굿거리는 총 29장단으로 총 3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자진모리는 총 196장단으로 총 8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바탕에서 진양조는 총 65장단으로 총 13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중모리는 총 24장단으로 전 장단이 공히 c청 계면조인 것으로, 중중모리는 총 34장단으로 총 2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자진모리는 총 146장단으로 전 장단이 공히 c청 계면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바탕 산조에서 나타난 철현금산조의 특징적인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 여음선율, 하나의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 등이 발견되었다. 이 표현은 철현금만의 특징적인 연주기법으로 철현금산조의 독특한 음색을 부각시킨다. 김영철 철현금산조 두 바탕 선율의 동이(同異)선율을 파악해 본 결과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철현금산조의 장단 수는 진양조가 94장단, 중모리가 33장단, 중중모리가 53장단, 굿거리가 29장단, 자진모리가 218장단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두 바탕의 김영철 철현금산조는 상당 부분 거문고산조의 영향을 받은 선율과 가야금산조의 영향을 받은 선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기존의 선율은 악기의 구조, 연주법 등 철현금이 지닌 특성에 맞게 재구성됨으로써 철현금산조만의 특징이 조성되었다. 거문고산조에서 유래된 선율의 경우, 원래의 선율인 거문고 가락으로부터 큰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야금산조에서 유래된 선율에 비해서 원래의 선율에 가깝게 연주됐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철현금산조의 전승은 현재 3세대까지 이루어졌다. 각각의 전수자들이 연주하는 철현금산조는 대체로 김영철의 선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안향련이 연주한 산조에서는 휘모리가 추가됐는데 이는 김영철 이후 철현금산조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유일한 사례에 속한다. 하지만 철현금산조의 휘모리가 오직 안향련의 연주에서만 발견될 뿐 안향련을 제외한 여타의 연주자에게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대된 휘모리가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회적으로 끝났음을 말해준다. 또한 철현금산조는 본래 20여 분의 짧은 것만 있었으나, 후대에 성장순과 유경화에 의해 긴산조가 연주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양 바탕의 김영철 산조 선율을 합쳐서 연주한 산조라고 볼 수 있다. 단, 긴산조의 중모리에서 독자적인 가락이 나오는데, 이 역시 기존의 거문고와 가야금산조로부터 영향을 받아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철현금으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음악은 시대의 감성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감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음색으로 연주할 수 있는 철현금의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철현금산조의 전승에 필요한 철현금의 구음연구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주요어 : 철현금, 산조, 김영철, 철현금산조, 거문고산조, 가야금산조

학 번 : 2010-30471



# 목 차

I.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6
3. 연구범위 및 방법 .....	7
II.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대한 음악적 분석 .....	12
1. 김영철 철현금산조 첫째 바탕 .....	2
2. 김영철 철현금산조 둘째 바탕 .....	7
3. 철현금산조 두 바탕 비교 .....	17
4. 소결론 .....	114
III. 초기 철현금산조 선율의 연원 추고(推考) .....	18
1. 거문고산조와의 비교 .....	127
2. 가야금산조와의 비교 .....	175
3. 소결론 .....	207
IV. 철현금산조의 전승 및 변화 .....	25
1. 전승실태 .....	215
2. 선율변화 및 발전 .....	219
3. 소결론 .....	284
V. 결론 .....	285
참고문헌 .....	290
Abstract .....	295
참고악보 .....	299

## 표 목차

[표 1-1] 본고에서 연구할 철현금산조 음원 목록 .....	1
[표 1-2] 13종 음원의 청현 실음 음고 .....	31
[표 1-3] 본고에서 철현금산조 음원의 명칭 .....	6
[표 1-4] 철현금산조 전승자 및 관련자 대담 일시 및 장소 .....	7
[표 2-1] <김영철 I>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3
[표 2-2] <김영철 I>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의 조 구성 .....	5
[표 2-3] <김영철 I> 진양조 제2단락(제5-6장단)의 조 구성 .....	7
[표 2-4] <김영철 I> 진양조 제3단락(제7-9장단)의 조 구성 .....	8
[표 2-5] <김영철 I> 진양조 제4단락(제10-12장단)의 조 구성 .....	10
[표 2-6] <김영철 I> 진양조 제5단락(제13-39장단)의 조 구성 .....	2
[표 2-7] <김영철 I> 진양조 제6단락(제40-41장단)의 조 구성 .....	4
[표 2-8] <김영철 I> 진양조 제7단락(제42-45장단)의 조 구성 .....	5
[표 2-9] <김영철 I> 진양조 제8단락(제46-50장단)의 조 구성 .....	7
[표 2-10] <김영철 I> 진양조 제9단락(제51장단)의 조 구성 .....	8
[표 2-11] <김영철 I> 진양조 제10단락(제52-53장단)의 조 구성 .....	9
[표 2-12] <김영철 I> 진양조 제11단락(제54-55장단)의 조 구성 .....	1
[표 2-13] <김영철 I> 중모리 제1단락(제1-33장단)의 조 구성 .....	3
[표 2-14]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의 조 구성 .....	6
[표 2-15] <김영철 I> 중중모리 제2단락(제30-32장단)의 조 구성 .....	8
[표 2-16]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단락(제33-53장단)의 조 구성 .....	10
[표 2-17] <김영철 I> 굿거리 제1단락(제1-4장단)의 조 구성 .....	2
[표 2-18] <김영철 I> 굿거리 제2단락(제5-8장단)의 조 구성 .....	3
[표 2-19] <김영철 I> 굿거리 제3단락(제9-17장단)의 조 구성 .....	4
[표 2-20] <김영철 I> 굿거리 제4단락(제18-29장단)의 조 구성 .....	6
[표 2-21]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단락(제1-100장단)의 조 구성 .....	8
[표 2-22]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단락(제101-103장단)의 조 구성 .....	10

[표 2-23]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단락(제104-107장단)의 조 구성 .....	1..... 6
[표 2-24] <김영철 I> 자진모리 제4단락(제108-112장단)의 조 구성 .....	3..... 6
[표 2-25] <김영철 I> 자진모리 제5단락(제113-123장단)의 조 구성 .....	4..... 6
[표 2-26] <김영철 I> 자진모리 제6단락(제124-133장단)의 조 구성 .....	6..... 6
[표 2-27] <김영철 I> 자진모리 제7단락(제134-138장단)의 조 구성 .....	7..... 6
[표 2-28] <김영철 I> 자진모리 제8단락(제139-148장단)의 조 구성 .....	8..... 6
[표 2-29] <김영철 I> 자진모리 제9단락(제149-196장단)의 조 구성 .....	0..... 7
[표 2-30] <김영철 II>의 구성 및 소요시간 .....	2..... 7
[표 2-31] <김영철 II> 진양조 제1단락(제1-8장단)의 조 구성 .....	4..... 7
[표 2-32] <김영철 II> 진양조 제2단락(제9-10장단)의 조 구성 .....	5..... 7
[표 2-33] <김영철 II> 진양조 제3단락(제11-14장단)의 조 구성 .....	7..... 7
[표 2-34] <김영철 II> 진양조 제4단락(제15-22장단)의 조 구성 .....	9..... 7
[표 2-35] <김영철 II> 진양조 제5단락(제23-28장단)의 조 구성 .....	0..... 8
[표 2-36] <김영철 II> 진양조 제6단락(제29-30장단)의 조 구성 .....	2..... 8
[표 2-37] <김영철 II> 진양조 제7단락(제31-33장단)의 조 구성 .....	3..... 8
[표 2-38] <김영철 II> 진양조 제8단락(제34-49장단)의 조 구성 .....	5..... 8
[표 2-39] <김영철 II> 진양조 제9단락(제50-51장단)의 조 구성 .....	7..... 8
[표 2-40] <김영철 II> 진양조 제10단락(제52-55장단)의 조 구성 .....	8..... 8
[표 2-41] <김영철 II> 진양조 제11단락(제56-60장단)의 조 구성 .....	9..... 8
[표 2-42] <김영철 II> 진양조 제12단락(제61장단)의 조 구성 .....	1..... 9
[표 2-43] <김영철 II> 진양조 제13단락(제62-63장단)의 조 구성 .....	2..... 9
[표 2-44] <김영철 II> 진양조 제14단락(제64-65장단)의 조 구성 .....	3..... 9
[표 2-45] <김영철 II> 중모리 제1단락(제1-24장단)의 조 구성 .....	6..... 9
[표 2-46] <김영철 II>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의 조 구성 .....	9..... 9
[표 2-47] <김영철 II> 중중모리 제2단락(제30-32장단)의 조 구성 .....	0 0 1
[표 2-48] <김영철 II> 중중모리 제3단락(제33-34장단)의 조 구성 .....	2 0 1
[표 2-49] <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단락(제1-146장단)의 조 구성 .....	6 0 1
[표 2-50]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진양조 선율비교 .....	7

[표 2-51]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중모리 선율비교 .....	㉑
[표 2-52]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중중모리 선율비교 .....	㉒
[표 2-53]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자진모리 선율비교 .....	㉓
[표 2-54] <김영철 I> 진양조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	411
[표 2-55] <김영철 I> 중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	611
[표 2-56] <김영철 I> 중중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	711
[표 2-57] <김영철 I> 굿거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	811
[표 2-58] <김영철 I> 자진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	911
[표 2-59] <김영철 II> 진양조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	121
[표 2-60] <김영철 II> 중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	321
[표 2-61] <김영철 II> 중중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	321
[표 2-62] <김영철 II> 자진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	421
[표 2-63]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철현금산조의 장단 수 .....	㉔
[표 3-1] <김영철 I>의 진양조 선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 .....	802
[표 3-2] <김영철 I>의 중모리 선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 .....	902
[표 3-3]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선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 .....	902
[표 3-4] <김영철 II>의 진양조 선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 .....	112
[표 3-5] <김영철 II>의 중모리 선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 .....	112
[표 3-6] <김영철 II>의 중중모리 선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 .....	212
[표 3-7] <김영철 II>의 굿거리 선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 .....	212
[표 3-8] <김영철 II>의 자진모리 선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 .....	312
[표 4-1] <성창순 I>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022
[표 4-2] <성창순 I>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	022
[표 4-3] <성창순 I>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	222
[표 4-4] <성창순 I>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	322
[표 4-5] <허희·강정숙>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422
[표 4-6]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	422
[표 4-7]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	622

[표 4-8]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	722
[표 4-9]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	722
[표 4-10] <안향련>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032
[표 4-11] <안향련>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	032
[표 4-12] <안향련>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	232
[표 4-13] <안향련>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	232
[표 4-14] <안향련>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	332
[표 4-15] <임경주>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732
[표 4-16]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	832
[표 4-17]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	932
[표 4-18]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	932
[표 4-19]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	042
[표 4-20] <유경화 I>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142
[표 4-21]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	242
[표 4-22]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	342
[표 4-23]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	442
[표 4-24]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	542
[표 4-25] <동금악회>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742
[표 4-26]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	742
[표 4-27]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	842
[표 4-28]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	942
[표 4-29]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	052
[표 4-30] <성창순Ⅱ>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252
[표 4-31]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	252
[표 4-32]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	352
[표 4-33]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굿거리 동일선율 .....	452
[표 4-34]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	552
[표 4-35] <성창순Ⅲ>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652



[표 4-36]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	752
[표 4-37]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	062
[표 4-38]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	262
[표 4-39]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굿거리 동일선율 .....	362
[표 4-40]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	462
[표 4-41] <유경화Ⅱ>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662
[표 4-42]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	662
[표 4-43]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	862
[표 4-44]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	962
[표 4-45]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굿거리 동일선율 .....	072
[표 4-46]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	172
[표 4-47] <성창순·유경화Ⅰ>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372
[표 4-48] <성창순·유경화Ⅰ>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	472
[표 4-49] <성창순·유경화Ⅰ>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	572
[표 4-50] <성창순·유경화Ⅰ>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	572
[표 4-51] <성창순·유경화Ⅰ>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	672
[표 4-52] <성창순·유경화Ⅱ>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	872
[표 4-53]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	972
[표 4-54]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	082
[표 4-55]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굿거리 동일선율 .....	182
[표 4-56]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	282

## 보례 목차

[보례 1-1]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에 쓰인 악보의 표기 .....	4· 1
[보례 1-2] 본고에서 활용할 가야금산조 악보의 보법 .....	4· 1
[보례 2-1] <김영철 I>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 .....	4· 2
[보례 2-2] <김영철 I> 진양조 제2단락(제5-6장단) .....	6· 2
[보례 2-3] <김영철 I> 진양조 제3단락(제7-9장단) .....	7· 2
[보례 2-4] <김영철 I> 진양조 제4단락(제10-12장단) .....	9· 2
[보례 2-5] <김영철 I> 진양조 제5단락(제13-39장단) .....	1· 3
[보례 2-6] <김영철 I> 진양조 제6단락(제40-41장단) .....	3· 3
[보례 2-7] <김영철 I> 진양조 제7단락(제42-45장단) .....	5· 3
[보례 2-8] <김영철 I> 진양조 제8단락(제46-50장단) .....	6· 3
[보례 2-9] <김영철 I> 진양조 제9단락(제51장단) .....	8· 3
[보례 2-10] <김영철 I> 진양조 제10단락(제52-53장단) .....	9· 3
[보례 2-11] <김영철 I> 진양조 제11단락(제54-55장단) .....	0· 4
[보례 2-12] <김영철 I> 중모리 제1단락(제1-33장단) .....	2· 4
[보례 2-13]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 .....	5· 4
[보례 2-14] <김영철 I> 중중모리 제2단락(제30-32장단) .....	7· 4
[보례 2-15]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단락(제33-53장단) .....	8· 4
[보례 2-16] <김영철 I> 굿거리 제1단락(제1-4장단) .....	1· 5
[보례 2-17] <김영철 I> 굿거리 제2단락(제5-8장단) .....	2· 5
[보례 2-18] <김영철 I> 굿거리 제3단락(제9-17장단) .....	3· 5
[보례 2-19] <김영철 I> 굿거리 제4단락(제18-29장단) .....	5· 5
[보례 2-20]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단락(제1-100장단) .....	7· 5
[보례 2-21]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단락(제101-103장단) .....	0· 6
[보례 2-22]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단락(제104-107장단) .....	1· 6
[보례 2-23] <김영철 I> 자진모리 제4단락(제108-112장단) .....	2· 6
[보례 2-24] <김영철 I> 자진모리 제5단락(제113-123장단) .....	3· 6
[보례 2-25] <김영철 I> 자진모리 제6단락(제124-133장단) .....	5· 6
[보례 2-26] <김영철 I> 자진모리 제7단락(제134-138장단) .....	6· 6

[보례 2-27] <김영철 I> 자진모리 제8단락(제139-148장단) .....	7	6
[보례 2-28] <김영철 I> 자진모리 제9단락(제149-196장단) .....	9	6
[보례 2-29] <김영철 II> 진양조 제1단락(제1-8장단) .....	3	7
[보례 2-30] <김영철 II> 진양조 제2단락(제9-10장단) .....	5	7
[보례 2-31] <김영철 II> 진양조 제3단락(제11-14장단) .....	6	7
[보례 2-32] <김영철 II> 진양조 제4단락(제15-22장단) .....	8	7
[보례 2-33] <김영철 II> 진양조 제5단락(제23-28장단) .....	0	8
[보례 2-34] <김영철 II> 진양조 제6단락(제29-30장단) .....	1	8
[보례 2-35] <김영철 II> 진양조 제7단락(제31-33장단) .....	3	8
[보례 2-36] <김영철 II> 진양조 제8단락(제34-49장단) .....	4	8
[보례 2-37] <김영철 II> 진양조 제9단락(제50-51장단) .....	6	8
[보례 2-38] <김영철 II> 진양조 제10단락(제52-55장단) .....	7	8
[보례 2-39] <김영철 II> 진양조 제11단락(제56-60장단) .....	9	8
[보례 2-40] <김영철 II> 진양조 제12단락(제61장단) .....	0	9
[보례 2-41] <김영철 II> 진양조 제13단락(제62-63장단) .....	1	9
[보례 2-42] <김영철 II> 진양조 제14단락(제64-65장단) .....	3	9
[보례 2-43] <김영철 II> 중모리 제1단락(제1-24장단) .....	4	9
[보례 2-44] <김영철 II>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 .....	7	9
[보례 2-45] <김영철 II> 중중모리 제2단락(제30-32장단) .....	0	0 1
[보례 2-46] <김영철 II> 중중모리 제3단락(제33-34장단) .....	1	0 1
[보례 2-47] <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단락(제1-146장단) .....	3	0 1
[보례 3-1] <김영철 I>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	8	2 1
[보례 3-2] <김영철 I> 진양조 제2단락(제5-6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	9	2 1
[보례 3-3] <김영철 I> 진양조 제3단락(제7-9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	0	3 1
[보례 3-4] <김영철 I> 진양조 제4단락(제10-12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1 ..	3	1
[보례 3-5] <김영철 I> 진양조 제5단락(제13-16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2 ..	3	1
[보례 3-6] <김영철 I> 진양조 제6단락(제17-18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3 ..	3	1
[보례 3-7] <김영철 I> 진양조 제7단락(제19-21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4 ..	3	1
[보례 3-8] <김영철 I> 진양조 제8단락(제22-2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5 ..	3	1
[보례 3-9] <김영철 I> 진양조 제9단락(제25-26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6 ..	3	1
[보례 3-10] <김영철 I> 진양조 제10단락(제27-31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	3	1

[보례 3-11]	<김영철 I> 진양조 제11단락(제32-33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3·1
[보례 3-12]	<김영철 I> 진양조 제12단락(제34-35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4·1
[보례 3-13]	<김영철 I> 진양조 제13단락(제36-39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4·1
[보례 3-14]	<김영철 I> 진양조 제14단락(제40-41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4·1
[보례 3-15]	<김영철 I> 진양조 제15단락(제42-45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4·1
[보례 3-16]	<김영철 I> 중모리 제1단락(제1-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6·4·1
[보례 3-17]	<김영철 I> 중모리 제2단락(제5-8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7·4·1
[보례 3-18]	<김영철 I> 중모리 제4단락(제12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8·4·1
[보례 3-19]	<김영철 I> 중모리 제6단락(제16-20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9·4·1
[보례 3-20]	<김영철 I> 중모리 제7단락(제21-2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1·5·1
[보례 3-21]	<김영철 I> 중모리 제8단락(제25-27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2·5·1
[보례 3-22]	<김영철 I> 중모리 제9단락(제28-29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3·5·1
[보례 3-23]	<김영철 I> 중모리 제10단락(제30-33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5·1
[보례 3-24]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단락(제3-9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5·5·1
[보례 3-25]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단락(제10-1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5·1
[보례 3-26]	<김영철 I> 자진모리 제4단락(제15-19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5·1
[보례 3-27]	<김영철 I> 자진모리 제5단락(제20-25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5·1
[보례 3-28]	<김영철 I> 자진모리 제6단락(제26-3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5·1
[보례 3-29]	<김영철 I> 자진모리 제7단락(제35-41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6·1
[보례 3-30]	<김영철 I> 자진모리 제9단락(제48-53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6·1
[보례 3-31]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6단락(제89-100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6·1
[보례 3-32]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7단락(제101-103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6·1
[보례 3-33]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8단락(제104-107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6·1
[보례 3-34]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1단락(제120-123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6·1
[보례 3-35]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4단락(제134-138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6·1
[보례 3-36]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5단락(제139-148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6·1
[보례 3-37]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6단락(제149-157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6·1
[보례 3-38]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7단락(제158-161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7·1
[보례 3-39]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8단락(제162-166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7·1
[보례 3-40]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9단락(제167-178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7·1
[보례 3-41]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0단락(제179-196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7·1

[보례 3-42] <김영철Ⅱ>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5·7·1
[보례 3-43] <김영철Ⅱ> 진양조 제2단락(제5-8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6·7·1
[보례 3-44] <김영철Ⅱ> 진양조 제3단락(제9-10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7·7·1
[보례 3-45] <김영철Ⅱ> 진양조 제4단락(제11-12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8·7·1
[보례 3-46] <김영철Ⅱ> 진양조 제5단락(제13-14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9·7·1
[보례 3-47] <김영철Ⅱ> 진양조 제6단락(제15-17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10·8·1
[보례 3-48] <김영철Ⅱ> 진양조 제7단락(제18-20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11·8·1
[보례 3-49] <김영철Ⅱ> 진양조 제8단락(제21-22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2·8·1
[보례 3-50] <김영철Ⅱ> 진양조 제10단락(제29-30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8·1
[보례 3-51] <김영철Ⅱ> 진양조 제11단락(제31-33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8·1
[보례 3-52] <김영철Ⅱ> 진양조 제12단락(제34-37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8·1
[보례 3-53] <김영철Ⅱ> 진양조 제13단락(제38-41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8·1
[보례 3-54] <김영철Ⅱ> 진양조 제14단락(제42-43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8·1
[보례 3-55] <김영철Ⅱ> 진양조 제15단락(제44-49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8·1
[보례 3-56] <김영철Ⅱ> 중모리 제1단락(제1-4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10·9·1
[보례 3-57] <김영철Ⅱ> 중모리 제2단락(제5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11·9·1
[보례 3-58] <김영철Ⅱ> 중모리 제3단락(제6-8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12·9·1
[보례 3-59]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1단락(제1-3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3·9·1
[보례 3-60] <김영철Ⅰ> 굿거리 제1단락(제1-4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14·9·1
[보례 3-61] <김영철Ⅰ> 굿거리 제4단락(제11-13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5·9·1
[보례 3-62] <김영철Ⅰ> 굿거리 제5단락(제14-17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6·9·1
[보례 3-63]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2단락(제8-12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7·9·1
[보례 3-64]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4단락(제18-23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9·1
[보례 3-65]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5단락(제24-31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9·1
[보례 3-66]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6단락(제32-37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10·2
[보례 3-67]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9단락(제54-59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10·2
[보례 3-68]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0단락(제60-65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10·2
[보례 3-69]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1단락(제66-70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10·2
[보례 3-70]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2단락(제71-76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10·2
[보례 4-1] <성창순Ⅰ>의 진양조 추가·확대된 선율	122
[보례 4-2] <허희·강정숙>의 진양조 추가·확대된 선율	522

[보례 4-3] <안향련>의 진양조 추가·확대된 선율 .....	132
[보례 4-4] <안향련>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	532
[보례 4-5] <안향련>의 휘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	632
[보례 4-6] <유경화 I>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	642
[보례 4-7] <동금악회>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	152
[보례 4-8] <성창순Ⅲ>의 진양조 추가·확대된 선율 .....	852
[보례 4-9] <성창순Ⅲ>의 중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	062
[보례 4-10] <유경화Ⅱ>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	272
[보례 4-11] <성창순·유경화 I>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	772
[보례 4-12] <성창순·유경화Ⅱ>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	382

## 도판 목차

[도판1] 철현금산조의 전승계보 .....	Ⅰ
-------------------------	---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산조는 민속음악(民俗音樂)의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자의 숙련된 기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르에 속한다. 19세기 말 가야금산조<sup>1)</sup>가 짜여지면서 한국음악사에서 산조라는 장르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후 백낙준(白樂俊, 1876-1930)<sup>2)</sup>에 의해 처음으로 거문고산조가 연주<sup>3)</sup>되었고, 20세기 초에는 박종기(朴鍾基, 1879-1941)<sup>4)</sup>와 한일섭(韓一燮, 1929-1973)<sup>5)</sup> 등에 의해 대금산조<sup>6)</sup>와 아쟁산조 등이 잇달아 선보였다. 이러한 산조들은 전승을 거듭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다.

현재 산조의 전승은 악보를 매개로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본래의 전승 방식은 구전심수(口傳心授)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산조의 전승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화나 발전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한편, 산조가 하나의 장르로 확고히 자리매김 되고, 여러 명인들에 의하여 다양한 산조가 연주되고 발전해 갈 무렵, 산조를 위한 색다른 악기가 등장하는데, 그 하나의 사례가 바로 첼현금<sup>7)</sup>이다. 첼현금은 김영철

- 
- 1) 가야금산조의 창시자는 현재 한숙구설과 김창조설 등 2가지 설이 있다. 한숙구(韓淑求, 1865-1919)임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달영(정달영, 『가야금산조, 병창』, 서울: 삼원정보미디어, 1995.)을 들 수 있고, 김창조(金昌祖, 1865-1919 혹은 1856-1919)임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양승희(양승희, 『산조의 창시자 악성 김창조』, 광주: 도서출판 키프로세스, 2004.)와 최태현(최태현, 『구성요소로 보는 국악곡』,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3.)을 들 수 있다.
  - 2) 정대석, 『거문고산조 세바탕』(서울: 은하출판사, 2003), 190쪽.
  - 3) 거문고산조가 처음 연주된 시기는 1914년-1918년 무렵 사이로 전한다. <김우진, “백낙준의 생애”, 『한국음악사학보』 제35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5) 175-208쪽.>
  - 4) 이진원, 『대금산조 창시자 박종기 평전』(서울: 민속원, 2007), 16-216쪽.
  - 5) 한일섭의 사망시기는 1973년(『한국민족대백과사전』; 『위키백과』) 혹은 1974년(『한겨레음악인대사전』 송방송, 서울: 보고사, 2012년, 937-38쪽) 등 2가지 설이 있다.
  - 6) 박환영, “박종기 대금산조의 형성과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金永哲)<sup>8)</sup>에 의해 처음 제작되었고, 그것으로 연주하는 ‘철현금산조’ 역시 그에 의해 처음 연주되었다. 이후 철현금의 용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철현금으로 연주하는 국악장르는 정악<sup>9)</sup>, 산조<sup>10)</sup>, 창작음악<sup>11)</sup>, 창작음악의 새로운 형태로 산조 협주곡<sup>12)</sup>, 협주곡<sup>13)</sup> 등으로 그 지평을

- 7) 철현금은 울림통 위에 8개의 쇠줄을 얹어 연주하는 지더(zither)류 현악기로 분류할 수 있다. 기타를 누여서 연주하는 원리는 하와이언 기타와 비슷하다. 악기의 모양은 직사각형이고 양 편에 줄을 고정하는 장치가 있다. 오른쪽에는 거문고처럼 줄을 매어놓는 역할을 하는 현침이 있고 왼편에는 악기의 줄을 조이거나 풀 수 있는 기어(돌래)가 연결되어 있다. 울림통은 나무 합판재질로 되어있으며 울림통 위에 줄을 짚는 패가 흰 선으로 표시되어있다. 악기의 하단부에는 받침대가 연결되어 있다. 철현금의 연주법은 오른손에 술대를 쥐어 줄을 뜯어 발현하고 왼손으로는 농옥[톨]을 쥐어 현 위로 음을 짚거나 움직여서 시김새를 구사한다. 오른손에 술대를 쥐고 왼손으로 줄의 일정한 위치를 짚어 연주한다는 면에서는 거문고의 제도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단, 거문고는 전후로 농현을 하는데 비해 철현금은 좌우로 움직여 농현 및 시김새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발현악기이지만 관악기만큼 지속되는 긴 여음으로 인해 찰현악기의 특성도 나타나고 있다. 철현금을 개발한 김영철은 초창기에 술대의 대용으로서 만년필을 사용하여 연주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옥 대신 구루무곽(화장품 병)을 사용하여 연주하기도 하였다. 이후 점차 술대는 상아·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농옥은 유리·나무·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발전되었다.
- 8) 김영철(金永哲, 1920-1988) : 경기도 과천 갈현리 출생.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기능보유자. 아버지 김완근(金完根)씨와 어머니 오양순(吳良順)씨의 장남. 과천의 세습무 집안으로 부친은 거문고 명인임. 과천 갈현동에 안장됨. 술하에 7남매가 남겨짐.
- 9) <영산회상-세영산>, 유경화, 『공감-유경화의 철현금』, C&L MUSIC, 2005.
- 10) 철현금산조의 음원이 담겨있는 음반은 다음과 같다.  
김영철,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ALS-505(1LP), 1978; 김영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 2003; 임경주, 『가야금 명인 임경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대성음반, 1989; 유경화, 『공감-유경화의 철현금』, C&L MUSIC, 2005; 유경화, 2014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유경화 철현금산조』, 국악방송, 2014; 동금악회, 『천년지기 동금악회』, 동금악회, 2007; 성창순, 2014 새음원시리즈 『명인 성창순 철현금산조』, 국악방송, 2014; 안향련, 『반락-그 남자의 음반이야기 김호성·양정환』,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의 집 KOUS, 2015년 5월 26일; 성창순·유경화, 2015 새음원시리즈 『성창순·유경화 철현금산조 병주』, 국악방송, 2015; 허희 강정숙, 『김영철류』, 국악방송 소장.
- 11) 김영동 작곡 <노을>·<사랑의 춤>·<영가>·<흘러가네>, 김영동, 『바람의 소리』, 1999년 웅진뮤직; 김대성 작곡 <바다에 비친 달>(유경화 철현금 - 양상בל을 만나다. 2010년 3월 21일 우면당 공연); 유경화 작곡 <6분 30초>·<망각의 새>(유경화 철현금 - 양상בל을 만나다. 2010년 3월 21일 우면당 공연)·<금의 노래> (유경화 철현금양상בל 아침음악회. 2010년 7월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 공연); 김만석, 철현금양상בל 편곡 <新영산회상·취타>(유경화 철현금-양상בל을 만나다. 2010년 3월 21일 우면당 공연); 양승환 작곡 <Variation I-아리랑>·<Variation II-두꺼비 노래>·<북천이 맑다거늘>·<VariationIII-강원도아리랑>·<Raga 'Hanswadwani'>·<Take Ten, VariationIV-진도아리랑>·<Hit it up!> (유경화의 철현금 양승환을 만나다. 2011년 8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종합문화관 공연)·이아로 작곡 <바람의 노래> (유경화의 철현금 양승환을 만나다. 2011년 8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종합문화관 공연).
- 12) 황호준 편곡 <철현금산조 협주곡>·김선제 편곡 <철현금산조 협주곡>·이태백 편곡 <김영

넓혀가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철현금은 비교적 근래(近來)에 만들어진 악기로  
서 최초 기록은 철현금을 창시한 김영철의 음반 표지 해설서이다. 김영  
철이 아세아레코드에서 취입한 LP 『산조-철현금·아쟁』<sup>14)</sup> 표지의 뒷면에  
는 철현금의 제작연대뿐만 아니라 현의 수, 연주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김영철씨가 연구해낸 악기로서 줄이 여  
덟 줄로 되어 있으며 동과 주석을 섞어 만든 줄인데 오른손에 술대  
를 쥐고, 왼손은 유리구슬을 가지고 음을 찾아 공연한다.

철현금은 거문고와 같이 오른손에 술대를 쥐고 연주하는 8현의 발현악  
기이면서, 동시에 왼손으로는 유리구슬로 현을 짚고 또 움직여 칠현악기  
와 같은 음향효과를 내는 악기이다. 음반의 제작연대가 1978년이므로  
해설서에 근거하면, 철현금 제작 시기는 그로부터 35년 전인 1943년으  
로 추정할 수 있다. 김영철은 줄타기<sup>15)</sup>의 명인이면서 동시에 소리, 춤,  
악기연주에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예인이다. 김영철이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나라 근현대시기, 즉 서양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어 전통음악과  
공존한 시기였다. 그러한 환경에서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았던 김영철은  
기타 등 서양 악기를 접하면서 철현금과 철현금산조를 만들었다. 김영철  
은 철현금으로 철현금산조뿐만 아니라 민요반주<sup>16)</sup>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  
였다.

개화기 이후 한국은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문화적 변화

---

철류 철현금산조 협주곡 ‘공감’>.

13) 유경화 작곡·계성원 편곡 <망각의 새>·황병기 작곡, 이상규 편곡<침향무>·황호준 작곡  
및 편곡 <초원목가>(유경화의 철현금-협주곡을 만나다. 2010년 1월 22일. 우면당 공연)

14)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1978. ALS-505(1LP)

15)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1976년 6월 30일 지정)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2011년 등  
재).

16) 오갑순, 『남도민요의 향연』, 아세아레코드사, 1978. ALS-547(1LP) 1면 <꽃피는 동산>,  
<성주풀이>, <뱃노래>, <사철가>, <새마을창>에 김영철의 철현금 민요반주가 있다.

가 이루어졌는데, 음악 분야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양의 악기와 음악의 유입은 국악에도 영향을 미쳤고 현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생을 꾀하고 있다. 기실(其實), 한국음악사에서 새로운 악기의 등장은 그다지 생소한 일은 아니다. 양금·태평소·피리·장구·비파와 같은 악기들 역시 본래 외래악기로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리의 민족악기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양금은 조선시대에 청나라로부터 유입된 악기였다. 고문헌에 구라철사금(區邏鐵絲琴)이라는 명칭으로 전하는 양금은 애초 유럽의 덜시머(Dulcimer)에서 연원한 악기로서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유입되었고, 중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래 점차 한국음악계의 주요 악기로 자리하게 되어 현재 정악은 물론, 창작국악에서 국악기로서 한 몫을 다하고 있다. 월금과 해금 역시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악기가 아니라 외래 악기로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지만 『악학궤범』이 집필된 시기에 이미 “향악에만 연주”되었다는 기록<sup>17)</sup>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민족 악기로 정착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역악기인 향피리도 당피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이전인 매우 이른 시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향악기로 자리하였다.

철현금의 창시자인 김영철이 연주한 산조의 음원으로는 두 바탕이 음반으로 나와 전하고 있다. 하나는 1978년 아세아레코드사에서 출판한 『산조-철현금·아쟁』<sup>18)</sup>이고, 다른 하나는 2003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출판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sup>19)</sup>이다. 후자를 출판한 국립문화재연구소<sup>20)</sup>는 그 주된 사업이 대학교나 일반 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중요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발굴 조사, 보존 및 복원 등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업무와 역할을 상기할 때, 그 사업의

17) “只用鄉樂.[단지 향악에만 사용된다.]”, 成俔 等, 『樂學軌範』, 卷7.3b4, “月琴”조 및 卷7.9a1, “奚琴”조, 1493.

18)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1978. ALS-505(1LP).

19)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20)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의 정확한 인식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개발 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 유일의 문화유산 관련 종합연구기관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인사말 중).

일환으로서 김영철의 철현금산조가 녹음되고, 또 소장 자료로 발매되었다는 사실은 문화유산으로서 김영철의 철현금산조가 지닌 가치가 인정되었음을 방증(傍證)한다.

김영철 이후 철현금산조가 전승되면서 성창순(成昌順)<sup>21)</sup>, 안향련(安香蓮)<sup>22)</sup>, 허희(許熾)<sup>23)</sup>, 강정숙(姜貞淑)<sup>24)</sup>, 임경주(林景珠)<sup>25)</sup>, 동금악회(桐琴樂會)<sup>26)</sup>, 유경화(柳京和)<sup>27)</sup> 등에 의하여 연주된 여러 음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철현금산조의 음원들은 그 제목 등에 예외 없이 김영철의 철현금산조를 연주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연주자에 따라 선율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음원에서는 김영철의 산조에는 포함되지 않은 가락도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철현금산조의 전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승 과정에서 양적인 확대 또한 이루어져 왔음을 말해 준다. 다른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철현금의 연주사례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 철현금은 산조 이외에 다양한 장르의 악곡에도 활용되고 있다. 철현금의 활용범위가 더 이상 산조의 연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추세는 철현금이 향후 국악기로서의 입지가 보다 공고해지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철현금과 그 음악에 대한 연구는 일면 의의

21) 성창순: 1934-. 광주출생.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심청가 보유자. 1994년 국민훈장 동백장. 1978년 제4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판소리부 명창부 장원.

22) 안향련: 1944-1981. 전남 광산출생. 1976년 남원춘향제 제3회 전국판소리명창대회에서 장원. 1978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감상회에서 심청가 완창. 『안향련 민요걸작집』(1975), 『심청가』(1980) 등이 있고, KBS에서 『홍보가』(1980. 7), 『열사가』(1979) 중 임진왜란 편을 녹음.

23) 허희: 1924-1988. 진도출생. 명창 박동준에게 소리공부 시작. 상경하여 강장원 명창에게 춘향가·홍보가·수궁가 연마. 판소리 다섯 마당의 완창을 목표로 박봉술 명창에게 적벽가, 여류 명창 성우향에게 강산제 심청가 연마. 1962년부터 국립창극단 입단.

24) 강정숙: 1952-.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보유자. 1986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25) 임경주: 1953-. 1992년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 장원. 1972년 전국기악경연대회 최우수상. 1965년 호남 예술제 장원.

26) 천년지기 동금악회: 대표 차은경. 대전, 충남지역 거문고 연주단. 회원명단: 박민정, 김남희, 김지현, 김연옥, 서승진, 오진영, 김윤진, 이아람.

27) 유경화: 1968-. 서울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울시청소년국악단 단장.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일환으로 첼현금산조의 근원과 전승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김영철 첼현금산조의 구성과 선율을 분석·파악하고 전승과정에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첼현금과 그 음악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2003년에 이루어진 한 편의 석사논문<sup>28)</sup>과 2013년에 발표된 학회지 논문<sup>29)</sup> 등 두 편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관련 문서로는 기존의 첼현금을 개선, 보완한 악기에 대한 특허실용안 등록<sup>30)</sup>이 있다.

김미경은 본인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첼현금은 김영철이 제작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 제작 배경을 서술했다. 또한 악기의 구조와 연주법 및 연주자세, 조율법과 활용음계를 소개하였다. 또한 김영철이 1978년 아세아레코드사에서 출판한 『산조-첼현금·아쟁』에 수록되어 있는 김영철의 첼현금산조에 대한 조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김수연은 서양악기인 기타로 산조를 연주하게 된 배경과 현황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 첼현금을 다루었고 마찬가지로 김영철이 1978년 아세아레코드사에서 출판한 『산조-첼현금·아쟁』의 악조 분석을 다루었는데, 대부분 김미경의 분석내용을 차용하였다. 김수연의 연구는 김미경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였으므로 내용 역시 대부분 같지만, 두 연구에서 상반

---

28) 김미경, “김영철의 첼현금 제작과 산조연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9) 김수연, “한국 기타산조의 역사적 전개과정”, 『한국악기학』 제10호(서울: 한국통소연구회, 2013, 275-338쪽).

30) 첼현금 특허실용(IPC 코드G10D 3/00 (2006.01), 출원번호1020050065099 (2005.07.19), 공개번호1020070010483 (2007.01.24.), 출원인·발명자·고안자 유경화에 따르면 “본 발명은 첼현금 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첼현금의 상부면을 라운드진 곡면으로 형성하고 측면에 소리울림용 홀을 형성하며 하부면에 받침다리를 더 결합하여 보다 풍부한 음을 외부로 출력토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첼현금 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되는 주장은 철현금의 연원이 된 악기가 ‘하와이언 기타’인가 ‘통기타’인가 하는 점이다. 김미경은 “김영철이 하와이언 기타를 개조하여 철현금을 만들었다”는 통설에 반론을 제기했고, 김수연은 통설대로 “하와이언 기타를 개조하여 철현금을 만들었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철현금의 주법과 음역 및 철현금산조에서 조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밝혀졌지만, 김영철이 철현금산조를 창안한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산조의 형성과 구성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는 없었다. 또한 현전 철현금산조 음원 중 하나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산조-철현금·아쟁』에 수록된 김영철 철현금산조는 물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의 음반에 수록된 김영철 철현금산조까지 포괄하여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초기 철현금산조의 구성내용과 조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현전하는 철현금산조 전승자들의 모든 산조 음원을 재정리함으로써 김영철 이후 철현금산조의 구성내용에 대해 파악하며, 아울러 철현금산조가 세대를 거쳐 이어지면서 선율이 변해가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 3. 연구범위 및 방법

현전 철현금산조의 음원은 총 19종이 있다. 그 중 김영철의 연주가 4종, 성창순의 연주가 3종, 성창순과 유경화의 중주가 2종, 허희와 강정숙의 연주가 1종, 안향련의 연주가 1종, 임경주의 연주가 5종, 유경화의 연주가 2종, 동금악회의 연주가 1종이다.

김영철의 음원은 국악방송 소장자료로 1969년에 녹음된 26분 27초 분량의 <69년 철현금산조>와 1971년에 녹음된 25분 23초 분량의 <71년 철현금산조> 등 2종이 있고, 1977년에 스테레오로 녹음되고 1978년 1월 30일에 아세아레코드사에서 제작된 LP 『산조-철현금·아쟁』<sup>31)</sup>에 수록되

어있는 26분 19초 분량의 <철현금산조>, 녹음연대가 1970년대로 추정되는<sup>32)</sup> 2003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매된 음반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sup>33)</sup>에 수록되어 있는 19분 20초 분량의 <철현금산조>가 있다. 이로써 김영철이 남긴 음원은 총 4종이 전한다.

성창순의 음원은 1966년에 로버트 가피아스(Robert Garfias)<sup>34)</sup>에 의하여 녹화된 11분 18초 분량의 영상 <Chulhyungum Sanjo>와 2014년 9월 11일에 국악방송에서 녹음된 2014 새음원 시리즈 음원 『명인 성창순 철현금산조』에 수록되어 있는 31분 47초 분량의 <명인 성창순 철현금 긴산조> 및 15분 58초 분량의 <명인 성창순 철현금 짧은산조> 등 총 3종이 있다.

성창순과 유경화의 중주 음원은 2015년 3월 26일에 국악방송에서 녹음된 2015 새음원 시리즈 『성창순·유경화 철현금산조 병주』에 수록되어 있는 28분 1초 분량의 <김영철류 철현금 긴산조>, 9분 40초 분량의 <김영철류 철현금 짧은산조>가 있다.

허희와 강정숙의 중주 음원은 강정숙이 30대 무렵인 1982년경 국립극장 공연실황<sup>35)</sup>으로 녹음된 국악방송 소장음원인 18분 34초 분량의 <김영철류>가 있다.

안향련의 음원은 2015년 5월 26일에 제작된 음반 『반락-그 남자의

31)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1978. ALS-505(1LP).

32) 『한국 전통음악 자료 분류법』에 김영철의 철현금산조의 기록이 실려있다. 녹음제목은 김영철 철현금산조, 취입자는 김영철(철현금), 일련번호는 2435, 분류번호는 51800000, 분수는 1922, 녹음일은 공란, 복제일은 12 / 13 / 94, 녹음장소는 공란, CD제목은 산조 1-2, CD번호는 1181, 릴번호는 5-130으로 기록되어있다. 비록 녹음일은 공란이지만 김영철 철현금산조 부근에 함께 실린 녹음음원들의 연도기록을 보면 바로 뒤에 기록되어있는 <가야금(철금)독주-박상근류 산조 진양조(이충선(가야금), 지갑성(장고))>의 녹음일 기록이 1975년 8월 1일이고 <통소산조-한범수(통소), 김윤덕(장고)>의 녹음일 기록이 1970년 10월 10일이다. 따라서 김영철 철현금산조도 1970년 부근에 녹음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전통음악 자료 분류법(행정간행물 등록번호 28800-86864-56-19)』(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3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34) 미국 어바인대 인류학과 교수. 1966년에 한국에 방문하여 우리나라 음악과 무용 등을 녹음, 녹화해서 자료로 남김,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보관.

35) 강정숙 대담(관리번호 chg151015-6-강정숙).

음반이야기 김호성·양정환』<sup>36)</sup>에 수록되어 있는 13분 16초 분량의 <안향련-철현금산조>가 있다.

임경주의 음원은 1985년에 스테레오로 녹음된 음반 『임경주의 아쟁·철현금·철가야금산조』<sup>37)</sup>에 수록되어 있는 14분 4초 분량의 <철현금산조>, 1989년 1월 1일에 발매된 음반 『가야금 명인 임경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에 수록된 <철현금소리>, 『우리 국악의 멋 4집 임경주 아쟁산조·철현금산조·철가야금산조』에 수록된 <철현금산조>, 『국악의 향기 3-아쟁산조 철현금산조 철가야금산조』에 수록된 13분 46초 분량의 <철현금산조>, 『가야금 명인 임경주』에 수록된 9분 25초 분량의 <철현금산조>가 있다.

유경화의 음원은 2005년 1월 6-18일에 녹음되고 같은 해 발매된 음반 『공감-유경화의 철현금』에 수록되어 있는 14분 59초 분량의 <김영철류 철현금산조>와 2014년 12월 4일에 국악방송에서 녹음된 2014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유경화 철현금산조』에 실린 45분 13초 분량의 <김영철류 산조가락><sup>38)</sup>이 있다.

동금악회의 음원은 2007년 9월 13일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공연 실황으로 녹음된 음반 『천년지기 동금악회』에 수록되어 있는 7분 12초 분량의 <김영철류 철현금산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19종의 음원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일부를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동일한 음원이 서로 다른 음반에 중복되어 실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선정한 음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김영철 연주의 4종의 음원 가운데 1977년에 스테레오로 녹음되고 1978년 1월 30일에 아세아레코드사에서 제작된 LP 『산조-철현금·아쟁』 음반<sup>39)</sup>에 수록되어 있는 26분 19초 분량의 <철현금산조>, 1970년 경 녹음으로 추정되고 2003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매된 음반 『국

---

36) 『반락-그 남자의 음반이야기 김호성·양정환』,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의 집 KOUS, 2015년 5월 26일.

37) 임경주, 『가야금 명인 임경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대성음반, 1989.

38) 유경화, 『2014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유경화 철현금산조』, 국악방송, 2014.

39) 김영철,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ALS-505(1LP), 1978.



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sup>40)</sup>에 수록되어 있는 19분 20초 분량의 <철현금산조> 2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영철이 남긴 음원은 총 4종이나 국악방송 소장 및 제공인 26분 27초 분량의 <69년 철현금산조>와 25분 23초 분량의 <71년 철현금산조>는 빠르기와 음높이만 차이가 있을 뿐 아세아레코드사 제작 LP 『산조-철현금·아쟁』에 수록되어 있는 <철현금산조>와 완전히 동일한 음원이므로 이를 하나로 간주하면 김영철이 남긴 음원은 총 2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중복되는 음원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둘째, 성창순 연주의 음원 3종.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성창순의 음원은, 1966년에 로버트 가피아스에 의하여 녹화된 11분 18초 분량의 영상 <Chulhyungum Sanjo>와 2014년 9월 11일에 국악방송에서 녹음된 2014 새음원 시리즈 음원 『명인 성창순 철현금산조』에 수록되어 있는 31분 47초 분량의 <명인 성창순 철현금 긴산조> 및 15분 58초 분량의 <명인 성창순 철현금 짧은산조> 등 3종이다.

셋째, 성창순·유경화 연주의 음원 2종.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성창순·유경화의 음원은, 2015년 3월 26일에 국악방송에서 녹음된 2015 새음원 시리즈 『성창순·유경화 철현금산조 병주』에 수록되어 있는 28분 1초 분량의 <김영철류 철현금 긴산조>와 9분 40초 분량의 <김영철류 철현금 짧은산조> 등 2종이다.

넷째, 허희·강정숙 연주의 음원 1종.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허희·강정숙의 음원은 1982년경 공연실황으로 녹음된 국악방송 소장음원인 18분 34초 분량의 <김영철류> 1종이다.

다섯째, 안향련 연주의 음원 1종.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안향련의 음원은, 2015년 5월 26일에 제작된 음반 『반락-그 남자의 음반이야기 김호성·양정환』<sup>41)</sup>에 수록되어 있는 13분 16초 분량의 <안향련-철현금산

40) 김영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41) 안향련, 『반락-그 남자의 음반이야기 김호성·양정환』,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의 집 KOUS, 2015.

조> 1종이다.

여섯째, 임경주 연주의 음원 1종. 임경주 연주의 음원은 총 5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가운데 1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판되어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임경주의 음원은 1989년 1월 1일에 발매된 음반 『가야금 명인 임경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에 수록된 9분 25초 분량의 <철현금 소리> 1종이다.

일곱째, 유경화 연주의 음원 2종.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유경화의 음원은, 2005년 1월 6-18일에 녹음되고 같은 해 발매된 음반 『공감-유경화의 철현금』에 수록되어 있는 14분 59초 분량의 <김영철류 철현금산조>와 2014년 12월 4일에 국악방송에서 녹음된 2014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유경화 철현금산조』에 실린 45분 13초 분량의 <김영철류 산조가락><sup>42)</sup> 등 2종이다.

여덟째, 동금악회 연주의 음원 1종.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동금악회의 음원은 2007년 9월 13일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공연실황으로 녹음된 음반 『천년지기 동금악회』에 수록되어 있는 7분 12초 분량의 <김영철류 철현금산조> 1종이다.

본고에서 다룬 철현금산조의 음원은 총 13종에 이른다. 그 13종의 음원을 연주자의 연배와 녹음연대의 순서에 의거하여 재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본고에서 연구할 철현금산조 음원 목록

	연주자	곡명	연도	연주 시간	음반명	제작
1	김영철	<철현금산조>	1977년(녹음) 1978년(제작)	26:19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 레코드사

42) 유경화, 『2014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유경화 철현금산조』, 국악방송, 2014.

2	김영철	<철현금산조>	2003년(발매)	19:20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23. 산조	국립문화재연구소
3	성창순	<Chulhyungum Sanjo>	1966년(녹화)	11:18		Robert Garfias 촬영
4	허희·강정숙	<김영철류>	1982년경(녹음)	18:34		국악방송 소장
5	안향련	<안향련-철현금산조>	2015년(제작)	13:16	반락-그 남자의 음반이야기 김호성·양정환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의 집 KOUS
6	임경주	<철현금소리>	1989년(발매)	9:25	가야금 명인 임경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대성음반 (제작) S.F뮤직 (배급)
7	유경화	<김영철류 철현금산조>	2005년(녹음) 2005년(제작)	14:59	공감-유경화의 철현금	C&L MUSIC
8	동금악회	<김영철류 철현금산조>	2007년(녹음) 2008년(발매)	7:12	천년지기 동금악회	동금악회
9	성창순	<명인 성창순 철현금 짧은산조>	2014년(녹음)	15:58	2014 새음원 시리즈-명인성창순 철현금산조	국악방송
10	성창순	<명인 성창순 철현금 긴산조>	2014년(녹음)	31:47	2014 새음원 시리즈-명인성창순 철현금산조	국악방송
11	유경화	<김영철류 산조가락>	2014년(녹음)	45:13	2014 새음원 시리즈-유경화 철현금산조	국악방송
12	성창순·유경화	<김영철류 철현금 짧은산조>	2015년(녹음)	9:40	2015 새음원 시리즈-성창순·유경화 철현금산조 병주	국악방송
13	성창순·유경화	<김영철류 철현금 긴산조>	2015년(녹음)	28:01	2015 새음원 시리즈-성창순·유경화 철현금산조 병주	국악방송

[표 1-1]에 명시한 음원들을 각각 채보하여 선율과 조의 구성 등 특성을 고찰하고 음원간의 비교를 통하여 선율의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각 음원의 연주된 실음을 보면 그 음고가 저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각각 연주된 청현<sup>43)</sup>의 음고를 보면, 김영철의 아세아레코드 『산

43) 철현금에서의 청현은 각 음계구성 안에서의 청, 즉 평으로 내는 음의 역할을 한다는 점과 조현할 때 그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현들이 조현된다는 점에서 거문고의 패상청·패하청·무현 등의 청현들과 그 기능이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거문고의 연주에서 청현의

조-첼현금·아쟁』의 음고는 B<sup>b</sup>, 김영철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 음고는 G, 성창순의 <Chulhyungum Sanjo> 영상 음고는 B, 허희·강정숙의 음고는 d, 안향련의 음고는 A, 임경주의 음고는 c<sup>#</sup>, 유경화의 『공감-유경화의 첼현금』의 음고는 B, 동금악회의 음고는 c, 성창순의 2014 새음원 시리즈 『명인 성창순 첼현금산조』에 수록되어 있는 <명인 성창순 첼현금 긴산조>와 <명인 성창순 첼현금 짧은산조>의 음고는 B, 유경화의 2014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유경화 첼현금산조』에 수록되어 있는 <김영철류 산조가락>의 음고는 B<sup>b</sup>, 성창순·유경화의 2015 새음원 시리즈 『성창순·유경화 첼현금산조 병주』에 수록되어 있는 <김영철류 첼현금 긴산조>, <김영철류 첼현금 짧은산조>의 음고는 B<sup>b</sup> 등으로 확인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sup>44)</sup>

[표 1-2] 13종 음원의 청현 실음 음고

연주자	김영철	김영철	성창순	허희· 강정숙	안향련	임경주	유경화	동금악회	성창순	성창순	유경화	성창순· 유경화	성창순· 유경화
청현 음고	B <sup>b</sup> -38 Cent	G +28 Cent	B +21 Cent	d -27 Cent	A +20 Cent	c <sup>#</sup> +47 Cent	B -36 Cent	c +34 Cent	B -5 Cent	B -44 Cent	B <sup>b</sup> -38 Cent	B <sup>b</sup> -11 Cent	B <sup>b</sup> -11 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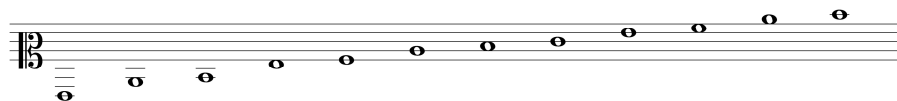
각 음원은 상기 [표 1-2]와 같이 청현의 음고가 상이하지만 산조를 채보한 악보의 정리 및 비교를 위하여, 본고에는 음원 전체 청현의 음고를 모두 c로 통일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음고는 연주하는 악곡의 전체적인 음고를 제시하는 잣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첼현금에서의 청현의 음고 역시 거문고의 청현과 같이 연주하는 악곡의 전체 음고를 대변하는 것이 된다.

- 44) 음고의 측정은 음성분석프로그램 “프라트(Praa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프라트(Praat)는 음성분석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소재 암스테르담 대학교부속 음성연구소의 파울 부르스마(Paul- Boersma)와 다비드 베닝크(David Weenink)가 개발하여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무료배포 프로그램으로 음성분석전문프로그램으로 사용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 현재 한국전통악기의 음고를 측정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

철현금산조 선율의 연원검토에서 비교할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의 악보도 청현의 음고를 c로 통일하겠다. 거문고산조 악보<sup>45)</sup>의 경우는 청현의 음이 c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에 불편이 없지만, 가야금산조 악보<sup>46)</sup>의 경우는 본고에서 사용할 악보와 음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 악보에서 쓰이는 음자리표와 음은 [보례 1-1]과 같다.

[보례 1-1]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에 쓰인 악보의 표기



[보례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가야금산조 악보는 가온음자리표를 사용하여 가장 아래음인 제1현은 G, 제2현은 c, 제3현은 d, 제4현은 g, 제5현은 a, 제6현은 c', 제7현은 d', 제8현은 e', 제9현은 g'', 제10현은 a'', 제11현은 c'', 제12현은 d''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먼저 높은음자리표로 바꾼 뒤, 청현의 통일을 위하여 12현의 각 음을 [보례 1-2]와 같이 이조하도록 하겠다.

[보례 1-2] 본고에서 활용할 가야금산조 악보의 보법



한국전통음악에서 ‘조’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산조에서의 ‘조’의 의미는 구성음(선법)과 시김새(성음)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경결해(起景結解) 등으로 나누어지는 선율의 흐름과 그에 따른 단락의 종지선율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그 중심 음을

45) 정대석, 『거문고산조 세바탕』(서울: 은하출판사, 2003).

46) 이재숙,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서울: 은하출판사, 2008).

청<sup>47)</sup>이라 명하고 그에 따른 선법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한편, 철현금산조에 사용된 조는 평조와 우조 및 계면조 3종으로 나타난다.<sup>48)</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음악학계에서의 음계이론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임재원에 의해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sup>49)</sup> 그 가운데 본 연구와 연관되는 평조와 우조 및 계면조 부분을 보면, 평조는 레-미-솔-라-도, 우조는 솔-라-도-레-미, 계면조는 미-솔-라-(도)시-레의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 다수 연구자들의 견해다. 반면 이보형의 경우, 계면조에 대한 이론적 견해는 여타 학자들과 차이가 없지만, 평조와 우조에 대해서는 기존의 견해와 다른 설을 제기하였다.<sup>50)</sup> 이보형이 정의하는 평조는 그 음조식이 솔-라-도-레-미<sup>51)</sup>로서 이는 여타의 학자들에게는 우조로 일컬어지고, 이보형의 우조는 라-도-레-미-솔<sup>52)</sup>로서 이는 여타의 학자들에게 계면조라 일컬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 연구자들의 견해를 채용하여 우조는 솔-라-도-레-미, 평조는 레-미-솔-라-도, 계면조는 미-솔-라-(도)시-레의 음조식

47) 임재원의 논문에서는 본청(本淸)이라고 명명되어있지만, 본고에서는 청으로 하겠다.

48) 김미경, “김영철의 철현금 제작과 산조연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9) 임재원, “대금산조의 생성 및 전승과 확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4-19쪽.

50) 이보형, “수궁가 고고천변 대목의 더늠과 3명창 3조”, 『한국음악학』 제24권(서울: 한국고음악연구회, 2014).

51) 이보형의 평조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평조는 옛날에 ‘시조목’이라 이르듯이 시조, 가곡의 계면조와 같은 음악적 특징을 갖는 것이다. 이를 민요의 토리로 말하자면, 이른바 성주풀이토리(남도경토리)와 같은 것이다. 자연태로 된 성주풀이토리 선율에 나타나는 구성음이 Sol, La, do, re, mi로 되고, 평균율에 비하여 La, re가 약간 낮고, mi가 약간 높은 점에서는 진경토리(창부타령토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중요음이 Sol, do, re로 4도+장2도 구조로 되고, 종지음이 do로 되고 시김새가 Sol에서 떠는목(요성)을 re에서 흘러내리는 목(퇴성)을 쓰고, 관용적인 선율은 Sol-do-re, re-do-Sol-do로 된 점에서 진경토리와 다르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이런 성주풀이토리(남도경토리)를 판소리 및 산조에서는 옛날에 ‘시조목’이라 하였고 이를 평조라 이른 것은 근래 일이다.

52) 이보형의 우조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민요의 토리에서 찾아보면 이른바 반경토리(한강수타령토리)와 같은 것이 우조에 가깝다. 자연태로 된 반경토리의 음악적 특성은 경북궁타령과 같은 민요에서 볼 수 있다. 구성음이 La, do, re, mi, sol로 되었고, 중요음이 La, re, mi로 4도+장2도 구조로 되었고, 종지음이 La나 re로 되었고, 시김새가 do에서 흘러내리는 목(퇴성)을 쓰고, sol에서 떠는목(요성)을 쓰고, 관용적인 선율은 La-re-mi, mi-re-La로 되었다.

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한편, 본고에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철현금산조 음원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였다. 각 음원의 본래 명칭을 사용할 경우, 명칭이 서로 같아 구별할 수 없거나, 누가 연주했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음원을 녹음 및 발매 연도에 따라 분류하여 다음 [표 1-3]과 같이 정리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표 1-3] 본고에서 철현금산조 음원의 명칭

	연주자	곡명	본고에서의 명칭
1	김영철	<철현금산조> <sup>53)</sup>	<김영철 I>
2	김영철	<철현금산조> <sup>54)</sup>	<김영철 II>
3	성창순	<Chulhyungum Sanjo>	<성창순 I>
4	허희·강정숙	<김영철류>	<허희·강정숙>
5	안향련	<안향련-철현금산조>	<안향련>
6	임경주	<철현금소리>	<임경주>
7	유경화	<김영철류 철현금산조>	<유경화 I>
8	동금악회	<김영철류 철현금산조>	<동금악회>
9	성창순	<명인 성창순 철현금 짧은산조>	<성창순 II>
10	성창순	<명인 성창순 철현금 긴산조>	<성창순 III>
11	유경화	<김영철류 산조가락>	<유경화 II>
12	성창순·유경화	<김영철류 철현금 짧은산조>	<성창순·유경화 I>
13	성창순·유경화	<김영철류 철현금 긴산조>	<성창순·유경화 II>

53)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1978. ALS-505(1LP).

54) 『국립문화재단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 국립문화재단연구소, 2003.

[표 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김영철 2종 음원은 발매연도에 따라 아세아레코드 음원은 <김영철 I>, 국립문화재연구소 음원은 <김영철 II>로 하겠다. 성창순의 경우 현재 3종의 음원이 있는데 연도에 따라 영상의 음원을 <성창순 I>, 국악방송의 음원 중 짧은산조를 <성창순 II>, 국악방송의 음원 중 긴산조를 <성창순 III>으로 하겠다. 허희·강정숙의 음원은 <허희·강정숙>, 안향련의 음원은 <안향련>, 임경주의 음원은 <임경주>, 동금악회의 음원은 <동금악회>로 하겠다. 유경화의 2종 음원은 녹음연도에 따라 유경화 음반의 음원을 <유경화 I>, 국악방송의 음원을 <유경화 II>로 하겠다. 성창순·유경화의 2종 음원은 짧은 산조를 <성창순·유경화 I>, 긴산조를 <성창순·유경화 II>라고 하겠다. 각 음원은 먼저 철현금산조의 창시자인 김영철을 필두로 각 연주자의 출생 및 녹음과 발매연도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동일연주자의 짧은 산조와 긴산조의 음원이 함께 한 매체에 담겨있는 경우는, 본래 철현금산조 창시자의 원형에 가까운 짧은 산조를 우선순위로 하였다.

철현금산조 연구에 대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전승자 및 관계자와의 대담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담 대상자는 성창순, 이생강, 차은경, 유경화, 김대균, 강정숙, 윤서경, 김무길, 송승민, 임경주 등이고, 대담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담 방법은 주로 필자의 방문 혹은 유선 상으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대담 날짜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1-4] 철현금산조 전승자 및 관련자 대담 일시 및 장소

	대상자	관계	일시	장소	관리번호
1	성창순	전승자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12시	전승자 주택 <sup>55)</sup>	chg150917-1-성창순
2	이생강	관련자	2015년 9월 17일(목) 오후 3시-6시	관련자 연구실 <sup>56)</sup>	chg150917-2-이생강



3	차은경	전승자	2015년 9월 18일(금) 오후 3시-4시	전화	chg150918-3-차은경
4	유경화	전승자	2015년 9월 19일(토) 오후 9시-11시	전승자 연구실 <sup>57)</sup>	chg150919-4-유경화
5	김대균	관련자	2015년 9월 20일(일) 오전 11시-12시	관련자 공연장 <sup>58)</sup>	chg150920-5-김대균
6	강정숙	전승자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3시-3시 30분	전화	chg151015-6-강정숙
7	윤서경	관련자 가족	2015년 11월 20일(금) 오후 5시-5시 30분	관련자 직장 <sup>59)</sup>	chg151120-7-윤서경
8	김무길	관련자	2015년 11월 20일(금) 오후 7시-7시 20분	전화	chg151120-8-김무길
9	송승민	전승자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6시-6시 20분	전승자 공연장 <sup>60)</sup>	chg151124-9-송승민
10	임경주	전승자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8시-9시	전화	chg151125-10-임경주

성창순은 김영철의 제자로 철현금산조의 제1세대 전승자에 해당된다. 성창순과의 대담은 2015년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12시에 성창순의 자택에서 진행하였다.

이생강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이다. 김영철의 지인으로 김영철과 함께 공연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다. 이생강과의 대담은 2015년 9월 17일(목)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생강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차은경은 대전연정국악원 거문고 수석단원이고, 임경주의 제자로 철현금산조의 제3세대 전승자에 해당된다. 차은경과의 대담은 2015년 9월

55) 운현신화타워(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2길 36).

56) 이생강 대금 전수소(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가 115-23 동방빌딩 지하1층).

57)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58) 과천시청(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3).

59) 국립국악원(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60) 국립국악원(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18일(금)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유선상으로 진행하였다.

유경화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및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 단장이고, 성장순 및 임경주의 제자로 철현금산조 제2세대 전승자에 해당된다. 유경화와와의 대담은 2015년 9월 19일(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유경화의 교수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김대균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예능보유자로 김영철의 줄타기 제자이다. 김대균과의 대담은 2015년 9월 20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김대균의 공연장인 과천시청의 잔디광장에서 진행하였다.

강정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보유자이고 허희의 제자로 철현금산조의 제2세대 전승자에 해당된다. 강정숙과의 대담은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유선상으로 진행하였다.

윤서경은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아쟁 연주자이고, 철현금 연주자로 알려진 윤윤석 명인의 자제이다. 윤서경과의 대담은 2015년 11월 20일(금)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연습실에서 진행하였다.

김무길은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을 역임한 거문고 연주자이다. 김무길과의 대담은 2015년 11월 20일(금) 오후 7시부터 7시 20분까지 유선상으로 진행하였다.

송승민은 국립부산국악원 연수단원을 역임하였고, 임경주의 제자로 철현금산조 제2세대 전승자에 해당된다. 송승민과의 대담은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6시부터 6시 20분까지 송승민의 공연장인 국립국악원에서 진행하였다.

임경주는 민속악의 명인으로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 장원을 수상한 바 있고, 김영철과 천대용의 제자로 철현금산조 제1세대 및 2세대 전승자에 해당된다. 임경주와의 대담은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유선상으로 진행하였다. 전승자 및 관련자와의 대담을 통하여 신문

기사 및 현전 자료에 없는 내용 혹은 잘못 알려진 내용에 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김영철의 철현금산조를 포함하여 현전하는 모든 철현금산조의 음원을 재정리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각 선율의 음계구성과 가락을 분석하고 철현금산조의 형성과정을 파악하여 철현금산조의 전승과 변화, 즉 철현금산조가 세대를 거쳐 이어지면서 수용된 가락과 변용된 가락, 새롭게 만들어진 가락 등을 파악하고 철현금산조가 변해가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 II. 김영철 첼현금산조에 대한 음악적 분석

첼현금산조의 창시자는 김영철이다.<sup>61)</sup> 김영철은 첼현금을 제작하여 그것으로 민요반주<sup>62)</sup>, 시나위<sup>63)</sup>, 첼현금산조<sup>64)</sup> 등을 무대<sup>65)</sup>에서 연주하였고 전수활동도 활발하게 하여 허희, 성창순, 천대용, 서용석, 임경주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김영철의 첼현금산조는 현재 두 바탕이 전해진다. 첫째 바탕은 『산조-첼현금·아쟁』 LP이고 둘째 바탕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23 산조』 음반으로 전해진다. 본고에서는 현전 두 바탕의 음원을 음악적으로 분석하여 장단구성과 연주 소요시간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첼현금산조를 선율의 흐름에 따라 구분한 뒤 단락별 출현 음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악조를 파악하겠다. 또한 첼현금산조만의 특징적 표현을 파악하고자 한다.

김영철이 연주한 초기의 첼현금산조에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등 5종 장단이 활용되었다. 5종 장단 가운데 진양조는 산조의 구성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장단으로서 모든 산조는 예외없이 이 진양조를 첫 악장으로 삼는다. 진양조 장단의 박자 단위는 3소박 6박자, 즉 18소박이다. 중모리는 진양조 다음으로 느린 장단으로 2소박 12박자이다. 중중모리

---

61) 이생강과의 대담(관리번호 chg150917-2-이생강)에서 기타를 얹혀 첼현금을 연주했던 최초의 사람은 판소리 명창 박봉술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산조를 만들어 그것을 직접 연주하고 후학에게 전수한 인물은 김영철이므로 본고에서는 김영철을 첼현금산조와 첼현금의 창시자로 간주하기로 하겠다.

62) 이생강과의 대담(관리번호 chg150917-2-이생강)에서 이생강이 김영철과 함께 민요반주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도민요의 향연 -오갑순 역창-』, 아세아 레코드, 1978(레이블번호 ALS-547, 12INCH, 10 INCH 음반, 녹음방식 STEREO, 필자 소장)에서 김영철의 첼현금 민요반주를 들을 수 있다.

63) 이생강 대담(관리번호 chg150917-2-이생강).

64) 이생강 대담(관리번호 chg150917-2-이생강), 김대균 대담(관리번호 chg150920-5-김대균).

65) 민속촌(김대균 대담), 일본, 유랑극단의 소규모 공연장 등(이생강 대담).

는 중모리와 비슷한 구조의 장단으로 매우 빠른 12박이지만, 이것을 넷으로 나누어 보기 때문에 3소박 4박자이다. 굿거리와 자진모리도 중중모리와 마찬가지로 3소박 4박자로 이루어진 장단인데, 굿거리에 비하여 자진모리가 더 빠른 장단에 속한다. 휘모리(단모리)는 가장 빠른 장단으로 2소박 매우 빠른 4박자이다. 본고에서는 장단을 제시하고 해당 박자와 소박을 지목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sup>66)</sup> 선율의 구분에 대한 단락의 구분은 조의 변화에 따른다. 조는 우조, 평조, 계면조로 분류하고 각 조에 따른 중심음을 청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 1. 김영철 철현금산조 첫째바탕: <김영철 I>

아세아레코드에서 출판한 『산조-철현금·아쟁』 LP에는 26분 19초 길이의 김영철류 철현금산조가 수록되어 있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등 5종으로 속도가 가장 느린 진양조로부터 점차 속도가 빨라져 자진모리까지 총 5개 악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악장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총 55장단으로 9분 20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총 33장단으로 4분 51초,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총 53장단으로 3분 40초, 네 번째 악장인 굿거리는 총 29장단으로 1분 29초, 다섯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총 196장단으로 6분 59초로 확인된다.<sup>67)</sup>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66) 이보형, 한국민속음악 장단의 대강박, 박, 분박에 대한 전통기보론적 고찰, 『국악원 논문집』(서울: 국립국악원, 1992) 제4집 25쪽; 이보형, “리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분류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3집, 한국국악학회, 1995; 김혜정, 『판소리 음악론』(서울: 민속원, 2009).

67) LP의 표지에 기록된 연주시간이 실제와 달라서 재측정 하였다.

[표 2-1] <김영철 I>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55	9분 20초
중모리	33	4분 51초
중중모리	53	3분 40초
굿거리	29	1분 29초
자진모리	196	6분 59초
총 소요시간		26분 19초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보건대, 진양조는 1분에 약 5.89장단을 연주하므로 1장단의 속도는 약 10.2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모리는 1분에 약 6.80장단을 연주하므로 1장단의 속도는 약 8.8초가 소요된다. 중중모리는 1분에 약 14.44장단을 연주하므로 1장단의 속도는 약 4.2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굿거리는 1분에 19.59장단을 연주하므로 1장단의 속도는 약 3.1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진모리는 1분에 약 28.08장단을 연주하므로 1장단의 속도는 약 2.1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각 장단별 소요시간은 일반적인 산조 연주에 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산해본 각 악장[장단]별 실제 소요시간으로 미루어 보건대, 음원 상으로 확인되는 각 장단별 연주 시간은 실제 연주 시간이라기보다 음원화 과정에서 속도가 다소 빠르게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1) 진양조의 음계구조와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총 55장단으로, 9분 20초가 소요된다. <김영철 I> 진양조는 총 10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c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b<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f청 계면조 → c청 계면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조의 변화에 의거하면 진양조는 총 11개의 단락으로 구획된다. 따라서 조의 변화에 근거한 단락에 의거하여 각 단락별로 출현 음과 악조 및 특징적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김영철 I>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

진양조 제1단락은 <김영철 I> 진양조의 제1-4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1]과 같다.

[보례 2-1] <김영철 I>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



#### ① 출현 음<sup>68)</sup>


[보례 2-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4장단에서는 C, c, d, e<sup>b</sup>, f, g, b<sup>b</sup>, c', d', e<sup>b</sup>', f', g'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g'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 종지음은 b<sup>b</sup>이다.

68) 선율의 골간음(骨幹音)으로 출현 음을 파악하기로 하겠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 음계구성음은 g, c', d'를 근간으로 하며 이 때 d는 e<sup>b</sup>-d로 진행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김영철 I>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4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과 여음선율,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에서 나타난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한 옥타브 아래 개방현을 사용한다. 개방현으로 사용한 제2현<sup>69)</sup>은 왼손에 잡은 물을 짚어 연주하는 현이기도 하다. 철현금을 연주할 때 개방현이 상당히 많이 연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철현금이 개방현을 연주하기 용이한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악기 중에 철현금과 가장 비슷한 악기인 거문고의 경우 왼손을 짚는 현의 경우 개방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철현금은 왼손으로 짚는 현도 개방현으로 쉽게 이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1장단 제13소박, 제3장단 제13소박, 제4장단 제1소박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장단 제7소박에서 나타난다. e<sup>b</sup>에서 f로 상행했다가 다시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69) 철현금에 현의 이름은 아직 없다. 본고에서는 연주자의 방향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차례대로 제1현, 제2현, 제3현, 제4현, 제5현, 제6현, 제7현, 제8현으로 명명하겠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sup>70)</sup> 같은 표현은 제3장단 제1-2소박, 제4-5소박, 제4장단 제1-3소박, 제4-5소박에서도 나타난다.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2장단 제10-11소박에서 나타나는데 c를 제6현과 제7현에서 차례로 연주하여 음색이 다른 효과를 연출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13-14소박에서 나타난다.

## (2) <김영철 I> 진양조 제2단락(제5-6장단)

진양조 제2단락은 <김영철 I> 진양조의 제5-6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2]와 같다.

[보례 2-2] <김영철 I> 진양조 제2단락(제5-6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6장단에서는 G, b<sup>b</sup>, d', g', a', c', b<sup>b</sup>, d''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d''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 종지음은 d' 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d''에 있고 꺾는 음이 b<sup>b</sup>에서 a<sup>b</sup>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진양조 제2단락(제5-6장단)은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70) 철현금은 철현의 특성상 국악기 중에서 잔향 지속시간이 가장 길다. 또한 넓은 음역을 여음으로 연주할 수 있다.

d, g, b<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b<sup>b</sup>은 a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김영철 I> 진양조 제2단락(제5-6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2	5-6	g청 계면조		d	g	b <sup>b</sup>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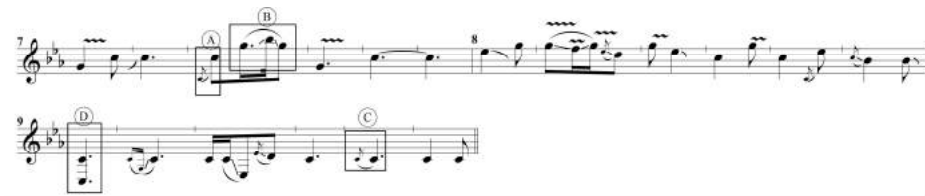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진양조 제2단락(제5-6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과 여음선율에서 나타난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6장단 제16소박에서 나타난다. b<sup>b</sup>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장단 제4-6소박에서 나타난다. b<sup>b</sup>에서 b<sup>b</sup>'로 한 옥타브를 상행하는데 이를 여음으로 표현한다. 한 옥타브를 여음으로 낼 수 있는 국악기는 현재 철현금이 유일하다. 같은 표현은 제5장단 제13-15소박, 제6장단 제4-5소박, 제6장단 제17-18소박에서도 나타난다.

### (3) <김영철 I> 진양조 제3단락(제7-9장단)

진양조 제3단락은 <김영철 I> 진양조의 제7-9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3]과 같다.

[보례 2-3] <김영철 I> 진양조 제3단락(제7-9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7-9장단에서는 C, E<sup>b</sup>, c, d, g, c', d', e<sup>b</sup>', f', g', b<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b<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7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로 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진양조 제3단락(제7-9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d'를 근간으로 하며 이 때 d는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김영철 I> 진양조 제3단락(제7-9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3	7-9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진양조 제3단락(제7-9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 여음선율,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에서 나타난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7장단 제7소박에서 나타난다. c'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8장단 제15소박, 제9장단 제13소박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7장단 제8-9소박에서 나타난다. g'에서 b<sup>b</sup>'로 상행했다가 다시 g'로 하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

현은 제8장단 제4-5소박, 제9장단 제4-6소박, 제9장단 제7-8소박에서도 나타난다.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9장단 제13소박에서 나타나는데 c를 제6현과 제7현에서 차례로 연주하여 음색이 다른 효과를 연출했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9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이처럼 철현금에서는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는 거문고에서 구음으로 ‘스르렁’이라 하는 연주기법과 유사하다. 거문고와 비슷한 연주주법으로 인해 철현금 연주에서 거문고와 비슷한 표현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4) <김영철 I> 진양조 제4단락(제10-12장단)

진양조 제4단락은 <김영철 I> 진양조의 제10-12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4]와 같다.

[보례 2-4] <김영철 I> 진양조 제4단락(제10-12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12장단에서는 G, B<sup>b</sup>, c, f, g, a, b<sup>b</sup>, c', d'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d'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한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f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진양조 제4단락(제10-12장단)은 b<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b<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f, b<sup>b</sup>, g를 근간으로 한다. 단, 제12장단은 c청 계면조로 넘어가는 연결구로 파악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김영철 I> 진양조 제4단락(제10-12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4	10-12	b <sup>b</sup> 청 우조		f	b <sup>b</sup>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진양조 제4단락(제10-12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에서 나타난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장단 제7소박에서 나타난다. f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11장단 제13소박, 제12장단 제1소박, 제12장단 제16소박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장단 제8-12소박에서 나타난다. b<sup>b</sup>에서 d로 상행했다가 다시 b<sup>b</sup>으로 하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10장단 제4-6소박, 제10장단 제16-17소박, 제9장단 제7-8소박, 제12장단 제8-9소박에서도 나타난다.

## (5) <김영철 I> 진양조 제5단락(제13-39장단)

진양조 제5단락은 <김영철 I> 진양조의 제13-39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

율은 다음 [보례 2-5]와 같다.

[보례 2-5] <김영철 I> 진양조 제5단락(제13-39장단)

13. *Allegretto* *moderato*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Fin*


① 출현 음

[보례 2-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3-39장단에서는 C, G, c, d, e<sup>b</sup>, f, g, b<sup>b</sup>, a, c', d', e<sup>b'</sup>, f', g', a', b<sup>b'</sup>, c'', d'', e<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e<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세 옥타브 + 3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c',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으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진양조 제5단락(제13-39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 구성 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김영철 I> 진양조 제5단락(제13-39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5	13-39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진양조 제5단락(제13-39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 여음선율,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에서 나타난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3장단 제7소박에서 나타난다. c'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14장단 제4소박, 제14장단 제7소박, 제14장단 제12소박, 제14장단 제14소박, 제15장단 제13소박, 제17장단 제13소박, 제18장단 제12소박, 제18장단 제14소박, 제19장단 제7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3장단 제8-9소박에서 나타난다. e<sup>b'</sup>에서 d'를 지나 c'

로 하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13장단 제11-12소박, 제15장단 제4-6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3장단 제13-14소박에서 나타나는데 c를 제6현과 제7현에서 차례로 연주하여 음색이 다른 효과를 연출했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23장단 제7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제13장단 제1소박, 제25장단 제1-2소박, 제27장단 제1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6) <김영철 I> 진양조 제6단락(제40-41장단)

진양조 제6단락은 <김영철 I> 진양조의 제40-41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6]과 같다.

[보례 2-6] <김영철 I> 진양조 제6단락(제40-41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40-41장단에서는 G, d', e<sup>b</sup>', g', a'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a'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2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g'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d'에 있고 꺾는 음이 b<sup>b</sup>'에서 a'로 하행



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진양조 제6단락(제40-41장단)은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d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d', g', b<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b<sup>b</sup>'은 a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김영철 I> 진양조 제6단락(제40-41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6	40-41	g청 계면조		d	g	b <sup>b</sup> - a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진양조 제6단락(제40-41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에서 나타난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40장단 제13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40장단 제7-9소박에서 나타난다. e<sup>b</sup>'에서 d'와 g'를 거쳐 b<sup>b</sup>'로 상행했다가 a'로 하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41장단 제13소박, 제41장단 제14-15소박에서도 나타난다.

## (7) <김영철 I> 진양조 제7단락(제42-45장단)

진양조 제7단락은 <김영철 I> 진양조의 제42-45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7]과 같다.

[보례 2-7] <김영철 I> 진양조 제7단락(제42-45장단)




① 출현 음

[보례 2-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42-45장단에서는 G, c, g, c', d', e<sup>b</sup>', f', g', a', b<sup>b</sup>' c'', d'', e<sup>b</sup>'', f''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f''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7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c'이다.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으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진양조 제7단락(제42-45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는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김영철 I> 진양조 제7단락(제42-45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7	42-45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진양조 제7단락(제42-45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에서 나타난다. 개방현을 이용

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43장단 제13소박에서 나타난다. e<sup>b'</sup>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44장단 제1소박, 제45장단 제12소박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43장단 제2-3소박에서 나타난다. g'에서 b<sup>b'</sup>상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여음연결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43장단 제4-6소박, 제43장단 제10-12소박, 제44장단 제1-3소박에서도 나타난다.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45장단 제14소박에서 나타나는데 c를 제6현과 제7현에서 차례로 연주하여 음색이 다른 효과를 연출했다.

#### (8) <김영철 I> 진양조 제8단락(제46-50장단)

진양조 제8단락은 <김영철 I> 진양조의 제46-50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8]과 같다.

[보례 2-8] <김영철 I> 진양조 제8단락(제46-50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46-50장단에서는 c, e<sup>b</sup>, f, b<sup>b</sup>, c', e<sup>b'</sup>, f', g', a<sup>b'</sup>, b<sup>b'</sup>, c'', e<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e<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3도 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

음은 c'이고, 중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f, f'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진양조 제8단락(제46-50장단)은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 구성 음은 f, e<sup>b</sup>, c를 근간으로 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김영철 I> 진양조 제8단락(제46-50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8	46-50	e <sup>b</sup> 청 우조		f	e <sup>b</sup>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진양조 제8단락(제46-50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에서 나타난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0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c'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50장단 제13소박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49장단 제14-15소박에서 나타난다. b<sup>b</sup>'에서 f'로 하행하였다가 a<sup>b</sup>'을 지나 c''로 상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여음연결로 이루어진다.

## (9) <김영철 I> 진양조 제9단락(제51장단)

진양조 제9단락은 <김영철 I> 진양조의 제51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9]와 같다.



(10) <김영철 I> 진양조 제10단락(제52-53장단)

진양조 제10단락은 <김영철 I> 진양조의 제52-53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10]과 같다.

[보례 2-10] <김영철 I> 진양조 제10단락(제52-53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1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2-53장단에서는 C, F, G, c, e<sup>b</sup>, f, g, a, b<sup>b</sup>, c'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c'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g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c에 있고 꺾는 음이 a<sup>b</sup>에서 g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진양조 제10단락(제52-53장단)은 f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f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c, f, a<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a<sup>b</sup>은 g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김영철 I> 진양조 제10단락(제52-53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0	52-53	f청 계면조		c	f	a <sup>b</sup> - g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진양조 제10단락(제52-53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3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 (11) <김영철 I> 진양조 제11단락(제54-55장단)

진양조 제11단락은 <김영철 I> 진양조의 제54-55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11]과 같다.

[보례 2-11] <김영철 I> 진양조 제11단락(제54-55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1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4-55장단에서는 C, G, c, d, e<sup>b</sup>, g, c', d', e<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e<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3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e<sup>b'</sup>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진양조 제11단락(제54-55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12]와 같다.

[표 2-12] <김영철 I> 진양조 제11단락(제54-55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1	54-55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진양조 제11단락(제54-55장단)에서 나타나는 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5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제55장단 제14소박에서도 나타난다.

## 2) 중모리의 음계구조와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총 33장단으로, 4분 51초가 소요된다. <김영철 I> 중모리는 하나의 음계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c청 계면조이다. 따라서 하나의 단락에 대한 출현 음과 악조 및 특징적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김영철 I> 중모리 제1단락(제1-33장단)

중모리 제1단락은 <김영철 I> 중모리의 제1-33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12]와 같다.



[보레 2-12] <김영철 I> 중모리 제1단락(제1-33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12]와 같이 제1-33장단에서는 C, E<sup>b</sup>, G, c, d, e<sup>b</sup>, f, g, b<sup>b</sup>, c', d', e<sup>b</sup>', f', g', b<sup>b</sup>', c'', e<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e<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세 옥타브 + 3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e<sup>b</sup>'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로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중모리 제1단락(제1-33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13]과 같다.

[표 2-13] <김영철 I> 중모리 제1단락(제1-33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33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중모리 제1단락(제1-33장단)에서 나타나는 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c의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1장단 제4소박, 제8장단 제7소박, 제11장단 제7소박, 제12장단 제4소박, 제13소박 제7소박, 제14장단 제4소박 제15장단 제1소박, 제18장단 제1소박, 제

19장단 제7소박, 제28장단 제1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7장단 제6소박에서 나타난다.  $e^b$ 에서  $g$ 로 상행했다가  $f$ 로 하행 후  $e^b$ 으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13장단 제3-4소박, 제18장단 제2-3소박, 제21장단 제10-12소박, 제23장단 제5-6소박, 제24장단 제4-5소박, 제27장단 제4-5소박, 제31장단 제2-3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2장단 제10소박에서 나타난다. 같은 표현은 제3장단 제11소박, 제4장단 제10소박, 제5장단 제10소박, 제19장단 제10소박, 제19장단 제10소박, 제29장단 제10소박, 제31장단 제10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㉖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 제7현의  $c$ , 제8현의  $C$ ,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제3장단 제7소박, 제3장단 제8소박, 제4장단 제1소박, 제7장단 제1소박, 제12장단 제1소박, 제18장단 제7소박, 제18장단 제8소박, 제18장단 제10소박, 제24장단 제9소박, 제26장단 제7소박, 제33장단 제10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3) 중중모리의 음계구조와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총 53장단으로, 3분 40초가 소요된다. <김영철 I> 중중모리는 총 2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c$ 청 계면조  $\rightarrow e^b$ 청 우조  $\rightarrow c$ 청 계면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조의 변화에 의거하면 중중모리는 총 3개의 단락으로 구획된다. 따라서 조의 변화에 근거한 단락에 의거하여 각 단락별로 출현 음과 악조 및 특징적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

중중모리 제1단락은 <김영철 I> 중중모리의 제1-29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13]과 같다.

[보례 2-13]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1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29장단에서는 C, G, c, d, e<sup>b</sup>, f, g, a, b<sup>b</sup>, c', d', g', b<sup>b</sup>, c'', d'', e<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e<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세 옥타브 + 3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로, e<sup>b</sup>'에서 d'로,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 g, c', e<sup>b</sup>', g', c'', e<sup>b</sup>''를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14]와 같다.

[표 2-14]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29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에서 나타나는 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장단 제7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c의 개방현을 사용한다. 같은 표현은 제20장단 제4소박, 제29장단 제7소박에서도 출현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장단 제1-2소박에서 나타난다. G에서 c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첼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3장단 제3-4소박, 제5장단 제3-4소박, 제11장단 제1-2소박, 제12장단 제1-2소박, 제15장단 제7-8소박, 제16장단 제2-3소박, 제18장단 제3-4소박, 제21장단 제10-11소박, 제21장단 제12소박-제22장단 제2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6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제7장단 제1소박, 제8장단 제1소박, 제9장단 제1소박, 제9장단 제3소박, 제10장단 제1소박, 제10장단 제9소박, 제11장단 제1소박, 제12장단 제1소박, 제20장단 제1소박, 제26장단 제1소박, 제29장단 제9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2) <김영철 I> 중중모리 제2단락(제30-32장단)

중중모리 제2단락은 <김영철 I> 중중모리의 제30-32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14]와 같다.

[보례 2-14] <김영철 I> 중중모리 제2단락(제30-32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1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0-32장단에서는  $e^b$ ,  $b^b$ ,  $d'$ ,  $e^b$ ,  $f'$ ,  $g'$ ,  $b^b$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e^b$ 이며 최고음은  $b^b$ 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한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b^b$ 이고, 중지음은  $d'$ 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f'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중중모리 제2단락(제30-32장단)은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f, e<sup>b</sup>, c를 근간으로 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15]와 같다.

[표 2-15] <김영철 I> 중중모리 제2단락(제30-32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2	30-32	e <sup>b</sup> 청 우조		f	e <sup>b</sup>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중중모리 제2단락(제30-32장단)에서는 주목할 만한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3)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단락(제33-53장단)

중중모리 제3단락은 <김영철 I> 중중모리의 제33-53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15]와 같다.

[보례 2-15]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단락(제33-53장단)





### ① 출현 음

[보레 2-1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3-53장단에서는 C, G, c, g, c', d', e<sup>b</sup>', f', g', b<sup>b</sup>', c'', e<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e<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6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e<sup>b</sup>'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로,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단락(제33-53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16]과 같다.

[표 2-16]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단락(제33-53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3	33-53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단락(제33-53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6장단 제7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c의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38장단 제7소박, 제40장단 제4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40장단 제4-5소박에서 나타난다. c'에서 e<sup>b</sup>'로 상행했다가 c'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41장단 제2-3소박, 제41장단 제4-5소박, 제47장단 제4-5소박, 제50장단 제1-2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4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제35장단 제1소박, 제36장단 제9소박, 제38장단 제9소박, 제40장단 제1소박, 제43장단 제9소박, 제47장단 제1소박, 제52장단 제4소박, 제52장단 제7소박, 제53장단 제1소박, 제53장단 제9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4) 굿거리의 음계구조와 특징적 표현

<김영철 I>의 네 번째 악장인 굿거리는 총 29장단으로, 1분 29초가 소요된다. <김영철 I>의 굿거리는 총 3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c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c청 우조 → c청 평조 → c청 우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조의 변화에 의거하면 굿거리는 총 4개의 단락으로 구획된다. 따라서 조의 변화에 근거한 단락에 의거하여 각 단락별로 출현 음과 악조 및 특징적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김영철 I> 굿거리 제1단락(제1-4장단)

굿거리 제1단락은 <김영철 I> 굿거리의 제1-4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16]과 같다.

[보례 2-16] <김영철 I> 굿거리 제1단락(제1-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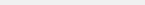
##### ① 출현 음

[보례 2-1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4장단에서는 G, c, d, g, c'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c'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한 옥타브 + 4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로 하

[표 2-17] <김영철 I> 굿거리 제1단락(제1-4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칭	꺾는 음
1	1-4	c칭 계면조		g	c	e <sup>b</sup> -d

<김영철 I> 굿거리 제1단락(제1~4장단)에서는 주목할 만한 첼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꺾거리 제2단락은 <김영철 I> 꺾거리의 제5-8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17]과 같다.

The musical score for 'The Rose Tree'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ntains measures 1 through 6, and the second system contains measures 7 through 8. The melody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time signature is 2/4. The melody consists of eighth and quarter notes, with some measures containing beamed eighth notes. Measure 6 is marked with a '6' above the staff. Measure 7 is marked with a '7' above the staff. Measure 8 is marked with an '8' above the staff. The piece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and a repeat sign.

[보례 2-1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8장단에서는 G, c, g, a, c', d'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d'가 된다. 따라서 그 음

역이 한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굿거리 제2단락(제5-8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우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g, c를 근간으로 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18]과 같다.

[표 2-18] <김영철 I> 굿거리 제2단락(제5-8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2	5-8	c청 우조		g	c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굿거리 제2단락(제5-8장단)에서는 주목할 만한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3) <김영철 I> 굿거리 제3단락(제9-17장단)

굿거리 제3단락은 <김영철 I> 굿거리의 제9-17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18]과 같다.

[보례 2-18] <김영철 I> 굿거리 제3단락(제9-17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1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9-17장단에서는 G, c, g, a, c' f', g', a', c'', d''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d''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5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c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굿거리 제3단락(제9-17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평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평조의 음계구성음은 g, c를 근간으로 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19]와 같다.

[표 2-19] <김영철 I> 굿거리 제3단락(제9-17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3	9-17	c청 평조		g	c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굿거리 제3단락(제9-17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여음선율이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6장단 제12소박-제17장단 제1-2소박에서 나타난다. g'에서 a'로 상행했다가 g'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 (4) <김영철 I> 굿거리 제4단락(제18-29장단)

굿거리 제4단락은 <김영철 I> 굿거리의 제18-29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19]와 같다.

[보례 2-19] <김영철 I> 굿거리 제4단락(제18-29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1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8-29장단에서는 C, G, c, g, a, c', d', e', g', a', c'', d''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d''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세 옥타브 + 2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c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d, d'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굿거리 제4단락(제18-29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우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d, c, e를 근간으로 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20]과 같다.

[표 2-20] <김영철 I> 굿거리 제4단락(제18-29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4	18-29	c청 우조		d	c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굿거리 제4단락(제18-29장단)에서 나타나는 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27장단 제12소박에서 나타난다. c'의 꾸밈음으로 c의 개방현을 사용한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27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같은 표현은 제26장단 제1-3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5) 자진모리의 음계구조와 특징적 표현

<김영철 I>의 다섯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총 196장단으로, 6분 59초가 소요된다. <김영철 I>의 자진모리는 총 8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데, c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f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조의 변화에 의거하면 자진모리는 총 9개의 단락으로 구획된다. 따라서 조의 변화에 근거한 단락에 의거하여 각 단락별로 출현 음과 악조 및 특징적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단락(제1-100장단)

자진모리 제1단락은 <김영철 I> 자진모리의 제1-100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20]과 같다.

[보레 2-20]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단락(제1-100장단)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a single melodic line in a 12-string instrument, likely a Korean Janggu. The key signature i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12/8.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each containing six stave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 to 25,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53 to 89. Measure numbers are indicated at the beginning of each staff.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quarter, eighth, and sixteenth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There are also some specific performance instructions or markings, such as 'D' in a box at measure 1 and 'A' and 'B' in boxes at measures 9 and 10 respectively. The scor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t measure 89.





### ① 출현 음

[보례 2-2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100장단에서는 C, G, c, d, e<sup>b</sup>, g, c', d', e<sup>b</sup> f', g', b<sup>b</sup>, c'', d''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d''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세 옥타브 + 2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c'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단락(제1-100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21]과 같다.

[표 2-21]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단락(제1-100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100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단락(제1-100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

와 같이 제11장단 제7소박에서 나타난다. c'의 꾸밈음으로 c의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13장단 제1소박, 제27장단 제1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2장단 제1-5소박에서 나타난다. e<sup>b</sup>'에서 d'로 하행했다가 g'로 상행 후 f'로 하행하고 e<sup>b</sup>'으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28장단 제10-12소박, 제51장단 제3-5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제1장단 제4소박, 제1장단 제7소박, 제2장단 제1소박, 제3장단 제1소박, 제3장단 제4소박, 제3장단 제7소박, 제4장단 제1소박, 제4장단 제4소박, 제4장단 제7소박, 제5장단 제1소박, 제5장단 제7소박, 제5장단 제10소박, 제6장단 제1소박, 제6장단 제7소박, 제8장단 제1소박, 제9장단 제1소박, 제14장단 제1소박, 제17장단 제1소박, 제19장단 제1소박, 제34장단 제1소박, 제35장단 제1소박, 제36장단 제1소박, 제37장단 제1소박, 제38장단 제1소박, 제38장단 제7소박, 제39장단 제1소박, 제41장단 제1소박, 제58장단 제4소박, 제59장단 제1소박, 제64장단 제1소박, 제65장단 제1소박, 제66장단 제1소박, 제67장단 제1소박, 제68장단 제1소박, 제69장단 제1소박, 제70장단 제1소박, 제73장단 제1소박, 제73장단 제4소박, 제77장단 제1소박, 제78장단 제1소박, 제88장단 제1소박, 제100장단 제1소박, 제100장단 제5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2)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단락(제101-103장단)

자진모리 제2단락은 <김영철 I> 자진모리의 제101-103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21]과 같다.

[보례 2-21]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단락(제101-103장단)



① 출현 음

[보례 2-2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1-103장단에서는 C, c, f, g, a<sup>b</sup>, b<sup>b</sup>, c'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c'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b<sup>b</sup>이고 종지음은 g이다.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c'에 있고 꺾는 음이 a<sup>b</sup>에서 g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단락(제101-103장단)은 f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f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c, f, a<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a<sup>b</sup>은 g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22]와 같다.

[표 2-22]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단락(제101-103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2	101-103	f청 계면조		c	f	a <sup>b</sup> - g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단락(제101-103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1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3)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단락(제104-107장단)

자진모리 제3단락은 <김영철 I> 자진모리의 제104-107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22]와 같다.

[보례 2-22]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단락(제104-107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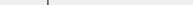
① 출현 음

[보례 2-2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4-107장단에서는 C, c, d, e<sup>b</sup>, g, c', d'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d'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2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단락(제104-107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23]과 같다.

[표 2-23]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단락(제104-107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3	104-107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단락(제104-107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7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제107장단 제5소박에서도 나타난다.

### (4) <김영철 I> 자진모리 제4단락(제108-112장단)

자진모리 제4단락은 <김영철 I> 자진모리의 제108-112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23]과 같다.

[보례 2-23] <김영철 I> 자진모리 제4단락(제108-112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2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8-112장단에서는  $e^b$ ,  $f$ ,  $b^b$ ,  $c'$ ,  $d'$ ,  $e^b$ ,  $f'$ ,  $g'$ ,  $b^b$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e^b$ , 최고음은  $b^b$ 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한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b^b$ 이고, 종지음은  $d'$ 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f'$ 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자

[표 2-24] <김영철 I> 자진모리 제4단락(제108-112장단)의 조 구성

### ③ 특징적 표현

(5) <김영철 I> 자진모리 제5단락(제113-123장단)

[보례 2-24] <김영철 I> 자진모리 제5단락(제113-123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2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13-123장단에서는 C, c, d, g, d, e<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e<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3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으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5단락(제113-123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25]와 같다.

[표 2-25] <김영철 I> 자진모리 제5단락(제113-123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5	113-123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5단락(제113-123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20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제121장단 제1소박, 제122장단 제1소박, 제122장단 제4소박, 제123장단 제1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6) <김영철 I> 자진모리 제6단락(제124-133장단)

자진모리 제6단락은 <김영철 I> 자진모리의 제124-133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25]와 같다.

[보례 2-25] <김영철 I> 자진모리 제6단락(제124-133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2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24-133장단에서는 c, e<sup>b</sup>, f, g, b<sup>b</sup>, c', d', e<sup>b</sup>', f', g', b<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b<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한 옥타브 + 7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c이고, 종지음은 d'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f'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 22-23단락(제124-133장단)은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f, e<sup>b</sup>을 근간으로 한다. 단, 제126장단에서 제128장단까지는 c청 계면조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26]과 같다.



[표 2-26] <김영철 I> 자진모리 제6단락(제124-133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6	124-133	e <sup>b</sup> 청 우조		f	e <sup>b</sup>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6단락(제124-133장단)에서는 주목할 만한 철현금 산조의 특징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7) <김영철 I> 자진모리 제7단락(제134-138장단)

자진모리 제7단락은 <김영철 I> 자진모리의 제134-138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26]과 같다.

[보례 2-26] <김영철 I> 자진모리 제7단락(제134-138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2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34-138장단에서는 C, c, d, g, b<sup>b</sup>, c', d', e<sup>b</sup>', g'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g'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로 e<sup>b</sup>'에서 d'으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7단락(제134-138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

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27]과 같다.

[표 2-27] <김영철 I> 자진모리 제7단락(제134-138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7	134-138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7단락(제134-138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37장단 제3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138장단 제1소박에서도 나타난다.

## (8) <김영철 I> 자진모리 제8단락(제139-148장단)

자진모리 제8단락은 <김영철 I> 자진모리의 제139-148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27]과 같다.

[보례 2-27] <김영철 I> 자진모리 제8단락(제139-148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2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39-148장단에서는 G, c, g, a, b<sup>b</sup>, c', d', f', g', a', b<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b<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3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g'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d에 있고 꺾는 음이 b<sup>b</sup>에서 a, b<sup>b</sup>'에서 a'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8단락(제139-148장단)은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d, g, b<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때 b<sup>b</sup>은 a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28]과 같다.

[표 2-28] <김영철 I> 자진모리 제8단락(제139-148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8	139-148	g청 계면조		d	g	b <sup>b</sup> - a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8단락(제139-148장단)에서는 주목할 만한 철현금 산조의 특징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9) <김영철 I> 자진모리 제9단락(제149-196장단)

자진모리 제9단락은 <김영철 I> 자진모리의 제149-196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28]과 같다.

[보레 2-28] <김영철 I> 사진모리 제9단락(제149-196장단)


① 출현 음

[보레 2-2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49-196장단에서는 C, c, d, e<sup>b</sup>, g, c', d', e<sup>b</sup>', f', g', c'', e<sup>b</sup>'', f'', g''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g''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세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f'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9단락(제149-196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29]와 같다.

[표 2-29] <김영철 I> 자진모리 제9단락(제149-196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9	149-196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 I> 자진모리 제9단락(제149-196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여음선율,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여음선율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49장단 제7-9소박에서 나타난다. f'에서 e<sup>b</sup>'으로 하행했다가 d'로 진행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169장단 제1-2소박, 제179장단 제10-12소박, 제190장단 제10-12소박, 제192장단 제1-5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60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제161장단 제1소박, 제162장단 제1소박, 제163장단 제1소박, 제164장단 제1소박, 제165장단 제1소박, 제166장단 제1소박, 제167장단 제1소박, 제168장단 제1소박, 제169장단 제1소박, 제170장단 제1소박, 제170장단 제7소박, 제171장

단 제1소박, 제171장단 제7소박, 제172장단 제1소박, 제172장단 제4소박, 제172장단 제7소박, 제172장단 제10소박, 제173장단 제1소박, 제173장단 제4소박, 제173장단 제7소박, 제173장단 제10소박, 제174장단 제1소박, 제174장단 제4소박, 제174장단 제7소박, 제174장단 제10소박, 제177장단 제1소박, 제178장단 제1소박, 제179장단 제1소박, 제179장단 제4소박, 제180장단 제1소박, 제183장단 제1소박, 제184장단 제1소박, 제184장단 제7소박, 제185장단 제1소박, 제185장단 제7소박, 제186장단 제1소박, 제187장단 제1소박, 제187장단 제4소박, 제188장단 제1소박, 제188장단 제4소박, 제189장단 제1소박, 제189장단 제4소박, 제196장단 제4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2. 김영철 철현금산조 둘째 바탕: <김영철Ⅱ>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23 산조』의 수록 산조는 김영철이 연주한 음원 중에서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음원이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악장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으로는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총 65장단으로 9분 22초가 소요되고,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총 24장단으로 3분 2초가 소요되고,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총 34장단으로 2분이 소요되고, 네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총 146장단으로 4분 56초가 소요된다.<sup>71)</sup> 정리하면 다음 [표 2-30]과 같다.

71) 음반해설서에는 총 소요시간만 기록되어 있어서 각 장단별로 측정하였다.

[표 2-30] <김영철Ⅱ>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65	9분 22초
중모리	24	3분 2초
중중모리	34	2분 0초
자진모리	146	4분 56초
총 소요시간		19분 20초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보건대, 진양조는 1분에 약 6.94장단을 연주하므로 1장단의 속도는 약 8.6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모리는 1분에 약 7.92장단을 연주하므로 1장단의 속도는 약 7.6초가 소요된다. 중중모리는 1분에 약 17장단을 연주하므로 1장단의 속도는 약 3.5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진모리는 1분에 약 29.61장단을 연주하므로 1장단의 속도는 약 2.0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각 장단별 소요시간은 일반적인 산조 연주에 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산해 본 각 악장[장단]별 실제 소요시간으로 미루어 보건대, 음원 상으로 확인되는 각 장단별 연주 시간은 실제 연주 시간이라기보다 음원화 과정에서 속도가 다소 빠르게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1) 진양조의 음계구조와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의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총 65장단으로, 9분 22초가 소요된다. <김영철Ⅱ>의 진양조는 총 13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a청 우조로 시작하여 d청 계면조, d청 계면조(엇청), d청 계면조, g청 계면조, c청 계면조, c청 우조, c청 계면조, g청 계면조, c청 계면조, e<sup>b</sup>청 우조, c청

계면조, f청 계면조, c청 계면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조의 변화에 의거하면 진양조는 총 14개의 단락으로 구획된다. 따라서 조의 변화에 근거한 단락에 의거하여 각 단락별로 출현 음과 악조 및 특징적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김영철Ⅱ> 진양조 제1단락(제1-8장단)

진양조 제1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1-18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29]와 같다.

[보례 2-29] <김영철Ⅱ> 진양조 제1단락(제1-8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2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8장단에서는 A, c, d, e, f, g, a, b, c', d', e', g', a', b', c'', d'', e''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A, 최고음은 e''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a'이고, 종지음은 d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e, e''에 있고 A, a, a'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1단락(제1-8장단)은 a를 청으로 하는 우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a를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e, a를 근간으로 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31]과 같다.

[표 2-31] <김영철Ⅱ> 진양조 제1단락(제1-8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1	1-8	a청 우조		e	a

## ③ 특징적 표현

진양조 제1단락(제1-8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a'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7장단 제13소박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장단 제7-9소박에서 나타난다. a'에서 g'로 하행했다가 a'로 상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3장단 제13-15소박, 제4장단 제10-12소박, 제4장단 제13-15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2장단 제1-2소박에서 나타나는데 a를 다른 현에서 차례로 연주하여 음색이 다른 효과를 연출했다.

(2) <김영철Ⅱ> 진양조 제2단락(제9-10장단)

진양조 제2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9-10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30]와 같다.

[보례 2-30] <김영철Ⅱ> 진양조 제2단락(제9-10장단)



① 출현 음

[보례 2-3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9-10장단에서는 G, A, a, b<sup>b</sup>, c', d'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d'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한 옥타브 + 4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A이고, 종지음은 a이다.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a에 있고 d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2단락(제9-10장단)은 d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d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a, d를 근간으로 한다. 단, 계면조임에도 불구하고 꺾는 음이 등장하지 않는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32]와 같다.

[표 2-32] <김영철Ⅱ> 진양조 제2단락(제9-10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2	9-10	d청 계면조		a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2단락(제9-10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이다. 여음선율은 ㉞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9장단 제4-6소박에서 나타난다. c'에서 b<sup>b</sup>으로 하행 후 a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9장단 제7-9소박, 제10장단 제8-9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3) <김영철Ⅱ> 진양조 제3단락(제11-14장단)

진양조 제3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11-14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31]와 같다.

[보례 2-31] <김영철Ⅱ> 진양조 제3단락(제11-14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3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1-14장단에서는 G, f', g', a', b<sup>b</sup>', f', g', c''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c''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4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f'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 3단락(제11-14장단)은 d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엇청<sup>72)</sup>에 속함을 알 수 있다. d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엇청 음계구성음은 g, d를 근간으로 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33]과 같다.

[표 2-33] <김영철Ⅱ> 진양조 제3단락(제11-14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3	11-14	d청 계면조(엇청)		g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3단락(제11-14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3장단 제7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이 사용된다. 같은 표현은 제11장단 제7소박, 제12장단 제16소박, 제14장단 제7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9장단 제4-6소박에서 나타난다. c'에서 b<sup>b</sup>으로 하행 후 a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11장단 제8-9소박, 제12장단 제4-6소박, 제13장단 제8-9소박, 제14장단 제8-9소박, 제14장단 13-15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72) 엇청이란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외가집목이라 하여 음 이름을 말할 때와, 둘째 본청이 바뀌어질 때(전조) 바뀌어진 본청을 원래의 본청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여기서는 첫 번째 개념이다. 백대웅,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구조』(서울:대광문화사, 1999), 28-29쪽.

#### (4) <김영철Ⅱ> 진양조 제4단락(제15-22장단)

진양조 제4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15-22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32]와 같다.

[보례 2-32] <김영철Ⅱ> 진양조 제4단락(제15-22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3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5-22장단에서는 D, G, A, d, e, f, a, d', e', f', g', a', b<sup>b'</sup>, e'' d'', f''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D, 최고음은 f''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세 옥타브 + 3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d'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A, a, a'에 있고 꺾는 음이 f에서 e, f'에서 e'으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4단락(제15-22장단)은 d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d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a, d, f를 근간으로 하며 이 때 f는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단, 제18-19장단은 a청 계면조의 흐름이 잠시 나타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34]와 같다.

[표 2-34] <김영철Ⅱ> 진양조 제4단락(제15-22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4	15-22	d청 계면조		a	d	f-e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4단락(제15-22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9장단 제16소박에서 나타난다. a'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21장단 제7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5장단 제7-9소박에서 나타난다. f'에서 d'로 하행했다가 f'로 상행 후 d'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16장단 제10-12소박, 제18장단 제7-9소박, 제20장단 제1-3소박, 제20장단 제4-6소박, 제21장단 제13-15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7장단 제10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 (5) <김영철Ⅱ> 진양조 제5단락(제23-28장단)

진양조 제5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23-28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33]과 같다.

[보례 2-33] <김영철Ⅱ> 진양조 제5단락(제23-28장단)




① 출현 음

[보례 2-3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23-28장단에서는 G, A, d, g, a, b<sup>b</sup>, c', d', f', g', a', d''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d''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g이다.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d에 있고 꺾는 음이 b<sup>b</sup>에서 a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5단락(제23-28장단)은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d, g, b<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b<sup>b</sup>은 a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35]와 같다.

[표 2-35] <김영철Ⅱ> 진양조 제5단락(제23-28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5	23-28	g청 계면조		d	g	b <sup>b</sup> -a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5단락(제23-28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26장단 제12소박에서 나타난다. d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27장단 제18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25장단 제10-12소박에서 나타난다. b<sup>b</sup>에서 a로 하행했다가 c'로 상행 후 b<sup>b</sup>으로 하행하고 a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27장단 제10-12소박, 제27장단 제13-15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6) <김영철Ⅱ> 진양조 제6단락(제29-30장단)

진양조 제6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29-30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34]와 같다.

[보례 2-34] <김영철Ⅱ> 진양조 제6단락(제29-30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3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29-30장단에서는 c, d, e<sup>b</sup>, g, a<sup>b</sup>, c', d'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d'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한 옥타브 + 2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d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6단락(제29-30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36]과 같다.

[표 2-36] <김영철Ⅱ> 진양조 제6단락(제29-30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6	29-30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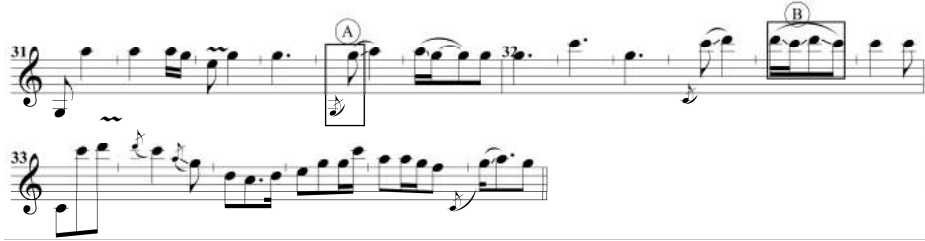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6단락(제29-30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0장단 제12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5도 아래 개방현을 사용한다.

## (7) <김영철Ⅱ> 진양조 제7단락(제31-33장단)

진양조 제7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31-33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35]와 같다.

[보례 2-35] <김영철Ⅱ> 진양조 제7단락(제31-33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3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1-33장단에서는 G, c, c', d' e', f', g', a', c'', d''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d''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g'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d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7단락(제31-33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우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d, c를 근간으로 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37]과 같다.

[표 2-37] <김영철Ⅱ> 진양조 제7단락(제31-33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7	31-33	c청 우조		d	c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7단락(제31-33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1장단 제13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32장단 제10소박, 제33장

단 제16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2장단 제13-15소박에서 나타난다. d''에서 c''로 하행하였다가 d''로 상행 후 c''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 (8) <김영철Ⅱ> 진양조 제8단락(제34-49장단)

진양조 제8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34-49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36]과 같다.

[보례 2-36] <김영철Ⅱ> 진양조 제8단락(제34-49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3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4-49장단에서는 C, G, c, d, e<sup>b</sup>, f, g, a, c', d', e<sup>b</sup>', f, g'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g'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f'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8단락(제34-49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38]과 같다.

[표 2-38] <김영철Ⅱ> 진양조 제8단락(제34-49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8	34-49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8단락(제34-49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4장단 제13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c의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35장단 제13소박, 제38장단 제7소박, 제38장단 제13소박, 제39장단 제4소박, 제39장단 제6소박, 제42장단 제7소박, 제42장단 제13소박, 제44장단 제7소박, 제44장단 제13소박, 제49장단 제10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5장단 제4-6소박에서 나타난다.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였다가 f'으로 상행 후 e<sup>b'</sup>으로 하행하고 d'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43장단 제1-3소박, 제45장단 제1-3소박, 제49장단 제10-12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9) <김영철Ⅱ> 진양조 제9단락(제50-51장단)

<김영철Ⅱ> 진양조 제9단락(제50-51장단)의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37]과 같다.

[보례 2-37] <김영철Ⅱ> 진양조 제9단락(제50-51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3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0-51장단에서는 G, d', g', a'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a'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2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g'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d'에 있고 꺾는 음이 b<sup>b'</sup>에서 a'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9단락(제50-51장단)은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d, g, b<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b<sup>b'</sup>은 a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39]와 같다.

[표 2-39] <김영철Ⅱ> 진양조 제9단락(제50-51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9	50-51	g청 계면조		d	g	b <sup>b</sup>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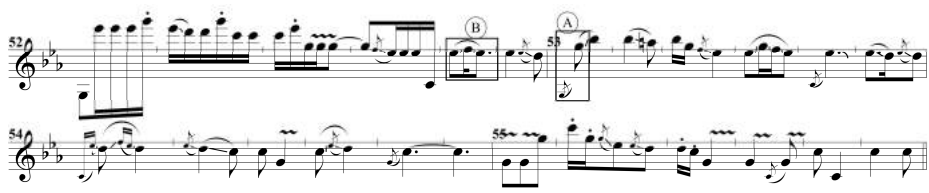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9단락(제50-51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여음선율이다. 여음선율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0장단 제7소박에서 나타난다. e<sup>b</sup>'에서 f'로 상행했다가 e<sup>b</sup>'으로 하행 후 d'로 하행하고 g'로 상행하였다가 b<sup>b</sup>'으로 상행 후 g'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51장단 제13-15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10) <김영철Ⅱ> 진양조 제10단락(제52-55장단)

진양조 제10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52-55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38]과 같다.

[보례 2-38] <김영철Ⅱ> 진양조 제10단락(제52-55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3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2-55장단에서는 G, c, g, c', d',

e<sup>b'</sup>, f', g', a', b<sup>b'</sup>, c'', d'', e<sup>b''</sup>, g''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g''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세 옥타브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10단락(제52-55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40]과 같다.

[표 2-40] <김영철Ⅱ> 진양조 제10단락(제52-55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0	52-55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10단락(제52-55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3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53장단 제13소박, 제54장단 제1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2장단 제13-15소박에서 나타난다. e<sup>b'</sup>에서 f'로 상행하였다가 e<sup>b'</sup>으로 진행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53장단 제10-12소박, 제54장단 제1-3소박, 제54장단 제4-6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11) <김영철Ⅱ> 진양조 제11단락(제56-60장단)

진양조 제11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56-60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39]와 같다.

[보례 2-39] <김영철Ⅱ> 진양조 제11단락(제56-60장단)



① 출현 음

[보례 2-3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 56-60장단에서는 G, e<sup>b</sup>, f, b<sup>b</sup>, c', d', e<sup>b</sup>', f', g', b<sup>b</sup>', c'', e<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e<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6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c'이고 종지음은 c'이다.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f, f'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11단락(제56-60장단)은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f, e<sup>b</sup>을 근간으로 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41]과 같다.

[표 2-41] <김영철Ⅱ> 진양조 제11단락(제56-60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11	56-60	e <sup>b</sup> 청 우조		f	e <sup>b</sup>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11단락(제56-60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9장단 제16소박에서 나타난다. c"의 꾸밈음으로 c의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60장단 제1소박, 제60장단 제13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56장단 제4소박에서 나타난다. b<sup>b</sup>에서 c'로 상행했다가 b<sup>b</sup>으로 진행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59장단 제14-15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12) <김영철Ⅱ> 진양조 제12단락(제61장단)

진양조 제12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61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40]과 같다.

[보례 2-40] <김영철Ⅱ> 진양조 제12단락(제61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4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61장단에서는 g, c', d', g'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g, 최고음은 g'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한 옥타브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진양조 제12단락(제61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 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42]와 같다.

[표 2-42] <김영철Ⅱ> 진양조 제12단락(제61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2	61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12단락(제61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61장단 제13소박에서 나타난다. c'의 꾸밈음으로 c의 개방현을 사용한다.

## (13) <김영철Ⅱ> 진양조 제13단락(제62-63장단)

진양조 제13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62-63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41]과 같다.

[보례 2-41] <김영철Ⅱ> 진양조 제13단락(제62-63장단)



① 출현 음

[보례 2-41]에서와 같이 제62-63장단에서는 C, F, G, c, f, g, a<sup>b</sup>, b<sup>b</sup>, c'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c'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a<sup>b</sup>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C에 있고 꺾는 음이 A<sup>b</sup>에서 G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I> 진양조 제13단락(제62-63장단)은 f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f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 음은 c, f, a<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a<sup>b</sup>은 g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43]과 같다.

[표 2-43] <김영철Ⅱ> 진양조 제13단락(제62-63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3	62-63	f청 계면조		c	f	a <sup>b</sup> -g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진양조 제13단락(제62-63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63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14) <김영철 II> 진양조 제14단락(제64-65장단)

진양조 제14단락은 <김영철Ⅱ> 진양조의 제64-65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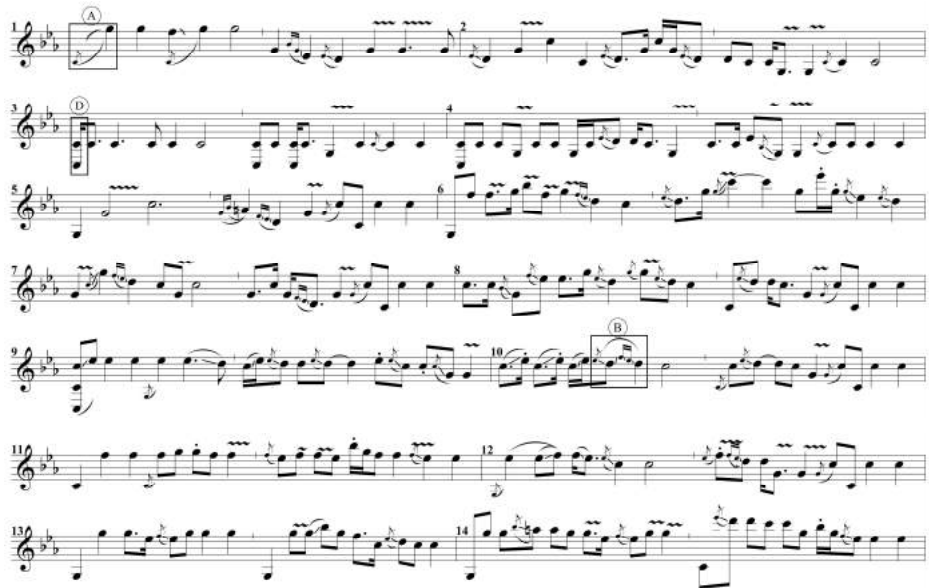
## 2) 중모리의 음계구조와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의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총 24장단으로, 3분 2초가 소요된다. <김영철Ⅱ> 중모리는 하나의 음계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c청 계면조이다. 따라서 하나의 단락에 대한 출현 음과 악조 및 특징적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김영철Ⅱ> 중모리 제1단락(제1-24장단)

중모리 제1단락은 <김영철Ⅱ> 중모리의 제1-24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43]과 같다.

[보례 2-43] <김영철Ⅱ> 중모리 제1단락(제1-24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24장단에서는 C, G, c, d, e<sup>b</sup>, g, a, c', d', e<sup>b'</sup>, f, g', b<sup>b'</sup>, c'', d'', e<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e<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세 옥타브 + 3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d'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 g'의 세 음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으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중 모리 제1단락(제1-24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45]와 같다.

[표 2-45] <김영철Ⅱ> 중모리 제1단락(제1-24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24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중모리 제1단락(제1-24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c의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1장단 제4소박, 제9장단 제4소박, 제10장단 제7소박, 제11장단 제4소박, 제12장단 제1소박, 제15장단 제1소박, 제16장단 제7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장단 제3-4소박에서 나타난다. e<sup>b</sup>'에서 d'로 상행했다가 f'로 하행 후 e<sup>b</sup>'으로 하행했다가 d'로 진행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15장단 제2-3소박, 제18장단 제10-12소박, 제20장단 제5-6소박, 제21장단 제4-5소박, 제24장단 제4-5소박, 제24장단 제7-8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제3장단 제7소박, 제3장단 제8소박, 제4장단 제1소박, 제9장단 제1소박, 제21장단 제9소박, 제23장단 제7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3) 중중모리의 음계구조와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의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총 34장단으로, 2분이 소요된다. <김영철Ⅱ>의 중중모리는 총 2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c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e<sup>b</sup>청 우조, c청 계면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조의 변화에 의거하면 중중모리는 총 3개의 단락으로 구획된다. 따라서 조의 변화에 근거한 단락에 의거하여 각 단락별로 출현 음과 악조 및 특징적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

중중모리 제1단락은 <김영철Ⅱ> 중중모리의 제1-29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44]와 같다.

[보례 2-44]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4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29장단에서는 C, G, A<sup>b</sup>, c, d, e<sup>b</sup>, g, a<sup>b</sup>, c', d', f', g', b<sup>b</sup>', c'', d'', e<sup>b</sup>''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e<sup>b</sup>''이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세 옥타브 + 3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 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

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46]과 같다.

[표 2-46]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29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1단락(제1-29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여음선율,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는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장단 제7소박에서 나타난다. g의 꾸밈음으로 c의 개방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14장단 제7소박, 제29장단 제7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음선율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5장단 제7-8소박에서 나타난다. g'에서 f'로 하행했다가 g'로 진행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16장단 제2-3소박, 제18장단 제3-4소박, 제21장단 제10-11소박, 제21장단 제12소박-제22장단 제2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6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제7장단 제1소박, 제8장단 제1소박, 제9장단 제1소박, 제10장단 제1소박, 제11장단 제1소박, 제12장단 제1소박, 제15장단 제1소박, 제20장단 제1소박, 제24장단 제1소박, 제26장단 제1소박, 제29장단 제9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③ 특징적 표현

중중모리 제2단락(제30-32장단)에서는 주목할 만한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3)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3단락(제33-34장단)

중중모리 제3단락은 <김영철Ⅱ> 중중모리의 제33-34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46]과 같다.

[보례 2-46]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3단락(제33-34장단)




#### ① 출현 음

[보례 2-4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3-34장단에서는 C, c, g, c', d', e<sup>b</sup>, g'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g'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두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g이고, 종지음은 d'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3단락(제33-34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 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48]과 같다.

[표 2-48]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3단락(제33-34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3	33-34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3단락(제33-34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34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 4) 자진모리의 음계구조와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의 네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총 146장단으로, 4분 56초가 소요된다. <김영철Ⅱ>의 자진모리는 하나의 음계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c청 계면조이다. 따라서 하나의 단락에 대한 출현 음과 악조 및 특징적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단락(제1-146장단)

자진모리 제1단락은 <김영철Ⅱ> 자진모리의 제1-146장단에 해당한다. 그 선율은 다음 [보례 2-47]과 같다.

[보레 2-47]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단락(제1-146장단)

69

73

77

81

85

89

93

97

77

81

85

89

93

97

101

105

109

113



### ① 출현 음


[보례 2-4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146장단에서는 C, G, c, d, e<sup>b</sup>, g c', d', e<sup>b'</sup>, f', g', b<sup>b'</sup>, c'', d'', e<sup>b''</sup>, f'', g'' 등의 음들이 출현함으로서 최저음은 C, 최고음은 g''가 된다. 따라서 그 음역이 세 옥타브 + 5도에 이른다. 선율의 시작음은 c'이고, 종지음은 C이다.

### ② 악조

출현 음 가운데 떠는 음의 위치가 g, g' 에 있고 꺾는 음이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것으로 보아 <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단락 (제1-146장단)은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본 단락의 조 구성 및 그에 따른 음계구성은 다음 [표 2-49]와 같다.



[표 2-49]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단락(제1-146장단)의 조 구성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146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 ③ 특징적 표현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단락(제1-146장단)에서 나타나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 표현은 여음선율,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이다. 여음선율은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0장단 제1-2소박에서 나타난다. e<sup>b</sup>'에서 d'로 하행했다가 g'로 상행 후 e<sup>b</sup>'으로 진행되는 음을 표현하는데 모두 여음선율로 이루어진다. 이는 철현금만이 낼 수 있는, 긴 여음으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은 제97장단 제9-11소박, 제115장단 제2-4소박, 제123장단 제7-12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은 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1장단 제1소박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6현의 c, 제7현의 c, 제8현의 C, 즉 여러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같은 표현은 제1장단 제4소박, 제1장단 제7소박, 제2장단 제1소박, 제2장단 제4소박, 제2장단 제7소박, 제3장단 제1소박, 제3장단 제4소박, 제4장단 제7소박, 제4장단 제10소박, 제5장단 제1소박, 제6장단 제1소박, 제7장단 제1소박, 제12장단 제1소박, 제15장단 제1소박, 제17장단 제1소박, 제23장단 제1소박, 제26장단 제1소박, 제31장단 제1소박, 제34장단 제1소박, 제37장단 제1소박, 제53장단 제1소박, 제76장단 제1소박, 제78장단 제1소박, 제85장단 제1소박, 제85장단 제4소박, 제90장단 제1소박, 제90장단 제4소박, 제100장단 제1소박, 제112장단 제1소박, 제112장단 제7소박, 제113장단 제1소박, 제118장단 제1소박, 제118장단 제7소박, 제131장단 제1소박, 제131장단 제4소박, 제131장단 제7소박, 제132장단 제1소박, 제133장단 제1소박, 제134장단 제1소박, 제135장단 제1소박, 제136장단 제1소박 등에서도 나타난다.

### 3. 철현금산조 두 바탕 비교

김영철 본인의 산조의 변화는 <김영철 I>과 <김영철 II>의 음원을 통해 알 수 있다. 두 바탕의 선율은 공통선율과 상이선율로 나뉜다.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가락 전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통선율과 상이선율을 추출하여 나눈 뒤, 총 장단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sup>73)</sup>

본 장에서는 김영철에 의해 성립된 각 악장별 총 장단수와 해당 선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김영철 I>에만 나타나는 선율을 A가락, <김영철 II>에만 나타나는 선율을 B가락, 두 바탕의 산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선율을 C가락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가락을 파악해보기로 하겠다.

#### 1) 진양조

진양조에서 <김영철 I>은 총 55장단으로 이루어졌고 <김영철 II>는 총 65장단으로 이루어졌다. 두 산조의 선율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에서 동일한 선율이 발견된다. 우선 두 산조 진양조의 동이(同異)선율을 비교해 나타내면 다음 [표 2-50]과 같다.

[표 2-50]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진양조 선율비교

	상이			공통(1장단)				상이			공통(25장단)							
김 I	1-18(18장단)			19				20-30(11장단)			31	32	33	34	35	36	37	38
김 II	1-37(37장단)			38				39-40(2장단)			41	42	43	44	45	46	47	48
김 I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김 II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73) 김영철 I + 김영철 II - 공통가락 =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총 장단수가 된다.

[표 2-50]에서와 같이 <김영철 I> 제19장단의 선율은 <김영철Ⅱ>의 제38장단의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고, <김영철 I> 제31-55장단의 선율은 <김영철Ⅱ>의 제41-65장단의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선율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분은 총 26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26장단은 총 55장단으로 구성된 <김영철 I> 진양조에서는 47%<sup>74)</sup>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총 65장단으로 구성된 <김영철Ⅱ> 진양조에서는 4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김영철 I> 제1-18장단과 제20-30장단은 <김영철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락이다. 마찬가지로 <김영철Ⅱ>의 제1-37장단과 제39-40장단은 <김영철 I>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락이다. 즉 <김영철 I> 진양조 가운데 총 29장단이 <김영철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김영철Ⅱ>의 진양조 가운데 총 39장단이 <김영철 I> 진양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김영철 I>과 <김영철Ⅱ>의 공통선율 총 26장단과 <김영철 I>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29장단, <김영철Ⅱ>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39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진양조 선율은 총 94장단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음원에서 나타난 진양조의 A가락은 <김영철 I> 제1-18장단의 선율과 제20-30장단의 선율이다. B가락은 <김영철Ⅱ>의 제1-37장단의 선율과 제39-40장단의 선율이다. C가락은 <김영철 I> 제19장단의 선율과 <김영철Ⅱ>의 제38장단의 선율, <김영철 I> 제31-55장단의 선율과 <김영철Ⅱ>의 제41-65장단의 선율이다.

---

74) 백분율의 산출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 2) 중모리

중모리에서 <김영철 I>은 총 33장단으로 이루어졌고 <김영철 II>는 총 24장단으로 이루어졌다. 두 산조의 선율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에서 동일한 선율이 발견된다. 우선 두 산조 중모리의 동이(同異)선율을 비교해 나타내면 다음 [표 2-51]과 같다.

[표 2-51]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중모리 선율비교

	공통(5장단)					상이	공통(19장단)									
김 I	1	2	3	4	5	6-8(3장단)	9	10	11	12	13	14	15	16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상이					
김 I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33(6장단)				
김 II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표 2-5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5장단의 선율은 <김영철 II>의 제1-5장단의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고, <김영철 I> 제9-27장단의 선율은 <김영철 II>의 제6-24장단의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선율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분은 총 24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24장단은 총 33장단으로 구성된 <김영철 I> 중모리에서는 73%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총 24장단으로 구성된 <김영철 II> 중모리에서는 10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김영철 I> 제6-8장단과 제28-33장단은 <김영철 II>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락이다. 즉 <김영철 I> 중모리 가운데 총 9장단이 <김영철 II>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김영철 I>과 <김영철 II>의 공통선율 총 24장단과 <김영철 I>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9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중모리 선율은 총 33장단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음원에서 나타난 중모리의 A가락은 <김영철 I> 제 6-8장단의 선율과 제28-33장단의 선율이다. B가락은 나타나지 않는다. C가락은 <김영철 I> 제1-5장단의 선율과 <김영철Ⅱ>의 제1-5장단의 선율, <김영철 I> 제9-27장단의 선율과 <김영철Ⅱ>의 제6-24장단의 선율이다.

### 3) 중중모리

중중모리에서 <김영철 I>은 총 53장단으로 이루어졌고 <김영철Ⅱ>는 총 34장단으로 이루어졌다. 두 산조의 선율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에서 동일한 선율이 발견된다. 우선 두 산조 중중모리의 동이(同異)선율을 비교해 나타내면 다음 [표 2-52]와 같다.

[표 2-52]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중중모리 선율비교

	공통(34장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김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김 I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김Ⅱ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상이				
김 I	27	28	29	30	31	32	33	34	35-53(19장단)				
김Ⅱ	27	28	29	30	31	32	33	34					

[표 2-5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34장단의 선율은 <김영철Ⅱ>의 제1-34장단의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선율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분은 총 34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34장단은 총 53장단으로 구성된 <김영철 I> 중중모리에서는 64%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총 34장단으로 구성된 <김영철Ⅱ> 중중모리에서는 10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김영철Ⅰ> 제35-53장단은 <김영철Ⅱ>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가락이다. 즉 <김영철Ⅰ> 중중모리 가운데 총 19장단이 <김영철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김영철Ⅰ>과 <김영철Ⅱ>의 공통 선율 총 34장단과 <김영철Ⅰ>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19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중모리 선율은 총 53장단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음원에서 나타난 중중모리의 A가락은 <김영철Ⅰ> 제35-53장단의 선율이다. B가락은 나타나지 않는다. C가락은 <김영철Ⅰ> 제1-34장단의 선율과 <김영철Ⅱ>의 제1-34장단의 선율이다.

#### 4) 굿거리

굿거리에서 <김영철Ⅰ>은 총 29장단으로 이루어졌고 <김영철Ⅱ>에서는 굿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김영철Ⅰ>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29장단이 곧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굿거리 선율의 전부이다.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음원에서 나타난 굿거리의 A가락은 <김영철Ⅰ> 제1-29장단의 선율이다. B가락과 C가락은 나타나지 않는다.

#### 5) 자진모리

자진모리에서 <김영철Ⅰ>은 총 196장단으로 이루어졌고 <김영철Ⅱ>는 총 146장단으로 이루어졌다. 두 산조의 선율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에서 동일한 선율이 발견된다. 우선 두 산조 자진모리의 동이(同異)선율을 비교해 나타내면 다음 [표 2-53]과 같다.

[표 2-53]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자진모리 선율비교

	상이			공통(23장단)											
김 I	1-2(2장단)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이			
김 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김 II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7(14장단)		38	
	공통(76장단)														
김 I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김 II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김 I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김 II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김 I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김 II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김 I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김 II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김 I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김 II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0	111	112	113
	상이			공통(15장단)											
김 I	102-106(5장단)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김 II	114-117(4장단)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상이	공통(1장단)	상이			
김 I	119	120	121	122(1장단)	123	124-166(43장단)	167	168	169
김 II	130	131	132		133		134	135	136
	공통(9장단)						상이		
김 I	170	171	172	173	174	175	176-196(21장단)		
김 II	137	138	139	140	141	142	143-146(4장단)		

[표 2-5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3-25장단의 선율은 <김영철 II>의 제1-23장단의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고, <김영철 I> 제26-101장단의 선율은 <김영철 II>의 제38-113장단의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고, <김영철 I> 제107-121장단의 선율은 <김영철 II>의 제118-132장단의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고, <김영철 I> 제123장단의 선율은 <김영철 II>의 제133장단의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고, <김영철 I> 제167-175장단의 선율은 <김영철 II>의 제134-142장단의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선율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분은 총 124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124장단은 총 196장단으로 구성된 <김영철 I> 자진모리에서는 63%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총 146장단으로 구성된 <김영철 II> 자진모리에서는 8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김영철 I> 제1-2장단과 제102-106장단, 제122장단, 제124-166장단, 제176-196장단은 <김영철 II>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락이다. 마찬가지로 <김영철 II>의 제24-37장단, 114-117장단, 제143-146장단은 <김영철 I>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락이다. 즉 <김영철 I> 자진모리 가운데 총 72장단이 <김영철 II>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김영철 II>의 자진모리 가운데 총 22장단이 <김영철 I> 자진모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김영철 I>과 <김영철 II>의 공통선율 총 124장단과 <김영철 I>에



만 나타나는 선율 총 72장단, <김영철Ⅱ>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22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자진모리 선율은 총 218장단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김영철 두 바탕 산조 음원에서 나타난 자진모리의 A가락은 <김영철Ⅰ> 제1-2장단과 제102-106장단, 제122장단, 제 124-166장단, 제176-196장단의 선율이다. B가락은 <김영철Ⅱ>의 제24-37장단, 114-117장단, 제 143-146장단의 선율이다. C가락은 <김영철Ⅰ> 제3-25장단의 선율과 <김영철Ⅱ>의 제1-23장단의 선율, <김영철Ⅰ> 제26-101장단의 선율과 <김영철Ⅱ>의 제38-113장단의 선율, <김영철Ⅰ> 제107-121장단의 선율과 <김영철Ⅱ>의 제118-132장단의 선율, <김영철Ⅰ> 제123장단의 선율과 <김영철Ⅱ>의 제133장단의 선율, <김영철Ⅰ> 제167-175장단의 선율과 <김영철Ⅱ>의 제134-142장단의 선율이다.

#### 4. 소결론

<김영철Ⅰ> 진양조는 총 55장단으로 총 10번의 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c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b<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f청 계면조 → c청 계면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순서에 따른 조의 변화는 [표 2-54]와 같다.

[표 2-54] <김영철Ⅰ> 진양조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4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2	5-6	g청 계면조		d	g	b <sup>b</sup> - a


3	7-9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4	10-12	b <sup>b</sup> 청 우조		f	b <sup>b</sup>	
5	13-39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6	40-41	g청 계면조		d	g	b <sup>b</sup> - a
7	42-45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8	46-50	e <sup>b</sup> 청 우조		f	e <sup>b</sup>	
9	51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10	52-53	f청 계면조		c	f	a <sup>b</sup> - g
11	54-55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표 2-54]와 같이 진양조에서 <김영철 I> 제1단락은 제1-4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 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2단락은 제5-6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g청 계면조이다.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d, g, b<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b<sup>b</sup>은 a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3단락은 제7-9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 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4단락은 제10-12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 구성은 b<sup>b</sup>청 우조이다. b<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f, b<sup>b</sup>, g를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 I> 제5단락은 제13-39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 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 구성 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6단락은 제40-41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 구성은 g청 계면조이다.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d, g, b<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b<sup>b</sup>은 a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7단락은 제42-45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 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8단락은 제46-50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 구성은 e<sup>b</sup>청 우조이다.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 구성 음은 f, e<sup>b</sup>, c를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 I> 제9단락은 제51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 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10단락은 제52-53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 구성은 f청 계면조이다. f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 구성음은 c, f, a<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a<sup>b</sup>은 g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11단락은 제54-55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 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중모리는 총 33장단으로 모두 c청 계면조로 나타난다. 중모리 음계구조는 다음 [표 2-55]와 같다.

[표 2-55] <김영철 I> 중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33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표 2-55]와 같이 중모리에서 <김영철 I> 제1단락은 제1-33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중중모리는 총 53장단으로 총 2번의 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c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순서에 따른 조의 변화는 [표 2-56]과 같다.

[표 2-56] <김영철 I> 중중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29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2	30-32	e <sup>b</sup> 청 우조		f	e <sup>b</sup>	
3	33-53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표 2-56]과 같이 중중모리에서 <김영철 I> 제1단락은 제1-29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2단락은 제30-32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e<sup>b</sup>청 우조이다.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f, e<sup>b</sup>, c를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 I> 제3단락은 제33-53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굿거리리는 총 29장단으로 총 3번의 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c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c청 우조 → c청 평조 → c청 우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순서에 따른 조의 변화는 [표 2-57]과 같다.

[표 2-57] <김영철 I> 굿거리에서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4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2	5-8	c청 우조		g	c	
3	9-17	c청 평조		g	c	
4	18-29	c청 우조		d	c	

[표 2-57]과 같이 굿거리에서 <김영철 I> 제1단락은 제1-4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2단락은 제5-8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우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g, c를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 I> 제3단락은 제9-17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평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평조의 음계구성음은 g, c를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 I> 제4단락은 제18-29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우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d, c, e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 I> 자진모리는 총 196장단으로 총 8번의 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데, c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f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순서에 따른 조의 변화는 [표 2-58]과 같다.

[표 2-58] <김영철 I> 자진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100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2	101-103	f청 계면조		c	f	a <sup>b</sup> - g
3	104-107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4	108-112	e <sup>b</sup> 청 우조		f	e <sup>b</sup>	
5	113-123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6	124-133	e <sup>b</sup> 청 우조		f	e <sup>b</sup>	
7	134-138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8	139-148	g청 계면조		d	g	b <sup>b</sup> - a
9	149-196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 d

[표 2-58]과 같이 자진모리에서 <김영철 I> 제1단락은 제1-100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2단락은 제101-103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f청 계면조이다. f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c, f, a<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a<sup>b</sup>은 g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3단락은 제104-107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4단락은 제108-112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e<sup>b</sup>청 우조이다.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f, e<sup>b</sup>, c를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 I> 제5단락은 제113-123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6단락은 제124-133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e^b$  청 우조이다.  $e^b$ 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f,  $e^b$ 을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 I> 제7단락은 제134-138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b$ 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b$ 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8단락은 제139-148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g청 계면조이다.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d, g,  $b^b$ 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b^b$ 은 a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제9단락은 제149-196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b$ 의 세 음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b$ 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 I> 철현금산조에서 특징적인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 여음선율,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 등이 발견되었다. 이 표현은 철현금만의 특징적인 연주기법으로 철현금산조의 독특한 표현을 부각시켜 나타난다.

<김영철 II> 진양조는 총 65장단으로 총 13회에 걸쳐 조가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a청 우조로 시작하여 d청 계면조 → d청 계면조(엇청) → d청 계면조 →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c청 우조 → c청 계면조 →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e^b$ 청 우조 → c청 계면조 → f청 계면조 → c청 계면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순서에 따른 조의 변화는 [표 2-59]와 같다.

[표 2-59] <김영철Ⅱ> 진양조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8	a청 우조		e	a	
2	9-10	d청 계면조		a	d	
3	11-14	d청 계면조(엇청)		g	d	
4	15-22	d청 계면조		a	d	f-e
5	23-28	g청 계면조		d	g	b <sup>b</sup> -a
6	29-30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7	31-33	c청 우조		d	c	
8	34-49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9	50-51	g청 계면조		d	g	b <sup>b</sup> -a
10	52-55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11	56-60	e <sup>b</sup> 청 우조		f	e <sup>b</sup>	
12	61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13	62-63	f청 계면조		c	f	a <sup>b</sup> -g
14	64-65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표 2-59]와 같이 진양조에서 <김영철Ⅱ> 제1단락은 제1-8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a청 우조이다. a를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e, a, c를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Ⅱ> 제2단락은 제9-10장단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d청 계면조이다. d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a, d를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Ⅱ> 제3단락은 제11-14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d청 계면조의 엇청에 해당한다. d를 청




으로 하는 계면조 엇청음계의 구성음은 g, d를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Ⅱ> 제4단락은 제15-22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d청 계면조이다. d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a, d, f를 근간으로 하며 이 때 f는 e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제5단락은 제23-28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g청 계면조이다.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d, g, b<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b<sup>b</sup>은 a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제6단락은 제29-30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제7단락은 제31-33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우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d, c를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Ⅱ> 제8단락은 제34-49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제9단락은 제50-51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g청 계면조이다. g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d, g, b<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b<sup>b</sup>은 a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제10단락은 제52-55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제11단락은 제56-60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e<sup>b</sup>청 우조이다.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f, e<sup>b</sup>을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Ⅱ> 제12단락은 제61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제13단락은 제62-63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f청 계면조이다. f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c, f, a<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a<sup>b</sup>은 g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제14단락은 제64-65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중모리는 총 24장단으로 전 장단이 모두 c청 계면조로 나타났다. 중모리 음계구조는 다음 [표 2-60]과 같다.

[표 2-60] <김영철Ⅱ> 중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24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표 2-60]과 같이 중모리에서 <김영철Ⅱ> 제1단락은 제1-24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중중모리는 총 34장단으로 총 2회에 걸쳐 조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c청 계면조로 시작하여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의 순서로 진행한다. 순서에 따른 조의 변화는 [표 2-61]과 같다.

[표 2-61] <김영철Ⅱ> 중중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29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2	30-32	e <sup>b</sup> 청 우조		b <sup>b</sup>	e <sup>b</sup>	
3	33-34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표 2-61]과 같이 중중모리에서 <김영철Ⅱ> 제1단락은 제1-29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

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제2단락은 제30-32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e<sup>b</sup>청 우조이다. e<sup>b</sup>을 청으로 하는 우조의 음계구성음은 f, e<sup>b</sup>을 근간으로 한다. <김영철Ⅱ> 제3단락은 제33-34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자진모리는 총 146장단으로 전 장단이 모두 c청 계면조로 나타났다. 자진모리 음계구조는 다음 [표 2-62]와 같다.

[표 2-62] <김영철Ⅱ> 자진모리에 나타나는 조의 변화 및 음계구조

단락	장단	음계구성	음계구성(오선보)	농현	청	꺾는 음
1	1-146	c청 계면조		g	c	e <sup>b</sup> -d

[표 2-62]와 같이 자진모리에서 <김영철Ⅱ> 제1단락은 제1-146장단이 이에 해당되며, 음계구성은 c청 계면조이다. c를 청으로 하는 계면조의 음계구성음은 g, c, e<sup>b</sup>을 근간으로 하며 이 때 e<sup>b</sup>은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에 해당한다.

<김영철Ⅱ> 철현금산조에서 특징적인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 여음선율,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 등이 발견되었다. 이 표현은 철현금만의 특징적인 연주기법으로 철현금산조의 독특한 표현을 부각시켜 나타난다.

김영철 철현금산조 두 바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진양조는 <김영철Ⅰ>과 <김영철Ⅱ>의 공통선율을 총 26장단과 <김영철Ⅰ>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29장단, <김영철Ⅱ>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39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진양조 선율은 총 94장단에 이른다. 중모리는 <김영철Ⅰ>과 <김영철Ⅱ>의 공통선율을 총 24장단과 <김영철

I >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9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중모리 선율은 총 33장단에 이른다. 중중모리는 <김영철 I>과 <김영철 II>의 공통 선율 총 34장단과 <김영철 I>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19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중중모리 선율은 총 53장단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굿거리리는 <김영철 I>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29장단이 유일하므로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굿거리 선율은 29장단에 이른다. 자진모리는 <김영철 I>과 <김영철 II>의 공통선율 총 124장단과 <김영철 I>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72장단, <김영철 II>에만 나타나는 선율 총 22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자진모리 선율은 총 218장단에 이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63]과 같다.

[표 2-63]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철현금산조의 장단 수

장단	장단수	<김영철 I> 단독선율	<김영철 II> 단독선율	공통선율
진양조	94	29	39	26
중모리	33	9		24
중중모리	53	19		34
굿거리	29	29		
자진모리	218	72	22	124

[표 2-6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철현금산조의 장단 수는 진양조가 총 94장단, 중모리가 총 33장단, 중중모리가 총 53장단, 굿거리가 총 29장단, 자진모리가 총 218장단으로 확인되었다.

### Ⅲ. 초기 철현금산조 선율의 연원 추고(推考)

앞서 다룬 두 바탕의 김영철 철현금산조는 그 유사 선율이 한갑득류 거문고산조(이하 “거문고산조”로 약칭)나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이하 “가야금산조”로 약칭)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 산조의 가락이 김영철의 철현금산조의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김영철의 선친 김완근은 거문고의 명인이었으므로<sup>75)</sup> 김영철은 거문고 음악을 수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명인 명창들과 빈번한 교류는 물론,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였다.<sup>76)</sup> 이러한 경험들이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형성에 음양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김영철은 생전에 거문고의 명인인 한갑득과 가야금의 명인인 박상근·성금연<sup>77)</sup> 등과 교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역시 철현금산조에서 거문고산조나 가야금산조와 유사한 선율이 상당부분 발견되어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여러 산조들 가운데서도 특히 유사선율이 많이 발견되는 한갑득류 거문고산조<sup>78)</sup>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sup>79)</sup>를 선정하여, 각 산조

75)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천문화원 향토자료집 21-부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2013 연구자료 “다시 찾은 부천인물”(부천: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3).

76) 이생강과의 대담(관리번호 chg150917-2-이생강)에 의하면, 김영철은 생전에 김득수(고수), 이생강(대금), 한갑득(거문고), 박상근(가야금), 성금연(가야금) 등의 명인들과 음악적 교류가 빈번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김대균에 의하면 임방울(판소리), 성우향(판소리), 박동진(판소리), 안향련(판소리), 김백국(민요, 재담) 등의 명창들과도 상당히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77)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는 박상근류 가야금산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성금연류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겠다.

78) 비교를 위하여 활용된 악보는 정대석의 『거문고산조 세바탕』(서울: 은하출판사, 2003)으로 하겠다. 거문고산조 악보는 실음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되어 있다.

79) 비교를 위하여 활용한 가야금산조 악보는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서울: 은하

의 선율에서 김영철 첼현금산조와 유사한 부분을 찾아 비교하도록 하겠다. 특이하게도 <김영철 I>의 선율과 유사한 가락은 대체로 거문고산조에서 발견되고, <김영철Ⅱ>의 선율과 유사한 가락은 대체로 가야금산조에서 발견되는바, <김영철 I>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와, <김영철Ⅱ>는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와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 거문고산조와의 비교

### 1) 진양조

<김영철 I>의 진양조는 총 55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총 45장단의 유사선율이 거문고산조에서 발견된다. 선율의 흐름에 따라 구분한 단락에 의거하여 두 산조 간의 선율을 상호 비교해 나가기로 하겠다.

#### (1) <김영철 I>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1단락(제1-4장단)의 선율 중 제1-2장단 부분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 짧은 산조 진양조 제1-2장단<sup>80)</sup>과 비교되고, 제3-4장단 부분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3-4장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1]과 같다.

---

출판사, 2008)으로 하겠다.

80) 정대석, 『거문고산조 세바탕』(서울: 은하출판사, 2003), 15쪽.

[보례 3-1] <김영철 I>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1]<sup>81)</sup>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장단의 선율은 g로 시작하여 b<sup>b</sup>에서 a로 꺾는 음이 1회 등장한 뒤 g로 진행하고, <김영철 I> 제2장단은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sup>82)</sup>으로 시작하여 b<sup>b</sup>으로 상행한 후 c로 하행 진행하며, <김영철 I> 제3장단의 선율은 e<sup>b</sup>으로 d로 퇴성하는 음으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였다가 c'로 진행한다. 거문고산조가 제7소박부터 G로 하행하여 철현금산조와 한 옥타브의 차이가 나지만 두 선율의 선율선은 대동소이하다. <김영철 I> 제4장단의 선율은 e<sup>b</sup>'으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한 후 b<sup>b</sup>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이다. 제1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4장단의 선율 중 제1-2장단 부분의 선율은 한 갑득류 거문고 짧은 산조 진양조 제1-2장단과 비교되고, 제3-4장단 부분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3-4장단과 비교된다.

81) 보례에서 비교를 위해 제시하는 거문고와 가야금 악보의 조표 및 박자표는 원본대로 표기하겠다.

82) [보례 3-1]에 나타나는 ‘한’(한갑득류 거문고산조 보례)의 제2장단 제1소박에 나타나는 ^표기는 꺾는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김영철 철현금산조 보례)의 제2장단 제1소박의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것과 같다.

## (2) <김영철 I> 진양조 제2단락(제5-6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2단락(제5-6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5-6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2]와 같다.

[보례 3-2] <김영철 I> 진양조 제2단락(제5-6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5장단의 선율은  $b^b$ 으로 시작하여  $b^b$ 으로 상행하였다가  $b^b$ 에서  $a'$ 음을 거쳐  $d''$ 까지 상행했다가 다시  $a'$ 로 하행 후  $g$ 로 마무리 한다. <김영철 I> 제6장단의 선율은  $b^b$ 으로 시작하여  $d'$ 와  $b^b$ 를 반복해서 진행한 후  $g'$ 를 거쳐  $b^b$ 에서  $d$ 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하행한다. 제2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5-6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5-6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김영철 I> 진양조 제3단락(제7-9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3단락(제7-9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7-9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3]과 같다.

[보례 3-3] <김영철 I> 진양조 제3단락(제7-9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7장단의 선율은 g로 시작하여 b'으로上行하였다가 c로 하행하여 진행하고 <김영철 I> 제8장단의 선율은 e'으로 시작하여, g로上行하였다가 b'으로 마무리한다. 제18소박에 철현금산조가 b'을 연주하고 거문고산조가 c'를 연주해서 엇갈리는 부분을 제외하면, 앞서 언급한 거문고산조와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다음 단락으로의 연결가락에 해당하는 <김영철 I> 제9장단의 선율은 c로 시작하여 e'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하고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3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7-9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7-9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김영철 I> 진양조 제4단락(제10-12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4단락(제10-12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10·11·31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4]와 같다.

[보례 3-4] <김영철 I> 진양조 제4단락(제10-12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comparison between two pieces. It consists of six staves arranged in three pairs. Each pair represents a different measure (10, 11, and 12). The left staff of each pair is labeled '김' (Kim) and the right staff is labeled '한' (Han). The notation includes treble clefs,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and various musical notes, rests, and ornaments (trills, grace notes) to represent the specific melodic lines of each measure.

[보례 3-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0장단의 선율은 G를 연주 후 g에서 f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上行한 후 b<sup>b'</sup>을 거쳐 f로 하행하는 선율로 진행하고 <김영철 I> 제11장단의 선율은 d에서 c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b<sup>b'</sup>으로上行한 후 d에서 c로 꺾는 음을 거쳐 B<sup>b'</sup>으로 하행하는 선율이다. 다음 단락으로의 연결가락에 해당하는 <김영철 I> 제12장단의 선율은 c로 시작하여 c'로上行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하고, c'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4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0-12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10·11·31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김영철 I> 진양조 제5단락(제13-16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5단락(제13-16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32·33·50·51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각 선율은 다음 [보례 3-5]와 같다.

[보례 3-5] <김영철 I> 진양조 제5단락(제13-16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the piece '<김영철 I> 진양조 제5단락(제13-16장단)'. The score is presented in four systems, each corresponding to a measure (13, 14, 15, and 16). Each system contains two staves: the top staff is for the '김' (Kim) part and the bottom staff is for the '한' (Han) part. The key signature i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ornaments.

[보례 3-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3장단의 선율은 c로 시작하여 c'를 거쳐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한 후 g로 하행했다가 c'로 진행하고 <김영철 I> 제14장단의 선율은 c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상행 한 후 g음을 거친 후 c'로 진행하고 <김영철 I> 제15장단의 선율은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한 후 또 한 번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음을 거쳐 c'로 진행하고 <김영철 I> 제16장단의 선율은 g로 시작하여 c'와 g를 차례대로 거쳐 e<sup>b</sup>'으로 상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또 한 번 c'와 g를 차례대로 거쳐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5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3-16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32·33·50·51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김영철 I> 진양조 제6단락(제17-18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6단락(제17-18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52·57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6]과 같다.

[보례 3-6] <김영철 I> 진양조 제6단락(제17-18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7장단의 선율은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c'와 g를 차례대로 거쳐 진행한다. c'로 상승한 뒤 다시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한 번 더 등장하고 g로 하행한 후 다시 c'로 상승하여 진행하고 <김영철 I> 제18장단의 선율은 g로 시작하여 a'로 상승한 후 g'에서 e<sup>b</sup>'까지 하행하고 c'를 거쳐 다시 g로 하행했다가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6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7-18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52·57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 (7) <김영철 I> 진양조 제7단락(제19-21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7단락(제19-21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58장단의 ㉔선율-제59-60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7]과 같다.

[보례 3-7] <김영철 I> 진양조 제7단락(제19-21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9장단의 선율은 c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상행한 후 유지하다가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진행하고 <김영철 I> 제2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으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두 번 등장한 후 g로 하행했다가 c'를 거쳐 e<sup>b</sup>으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이는 거문고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다. 단, 두 번째 박에서 철현금산조는 d'에서 c'로 하행하는 것에 반해 거문고산조는 c'에서 f'로 상행 진행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인 진행으로

과악할 수 있다. <김영철 I> 제2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f'에서 e<sup>b'</sup>'으로 꺾는 음 두 번,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g로 하행했다가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7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9-21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58장단의 ㉔선율·제59·60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김영철 I> 진양조 제8단락(제22-24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8단락(제22-24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61·62·63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8]과 같다.

[보례 3-8] <김영철 I> 진양조 제8단락(제22-2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22장단의 선율은 c로 시작하여 f'로 상행한 후 e<sup>b'</sup>'과 b<sup>b'</sup>', f'를 거쳐 e<sup>b'</sup>'으로 진행한다. <김영철 I> 제23장단의 선율은 f'로 시작하여 f'에서 e<sup>b'</sup>'으로 꺾고, 또 e<sup>b'</sup>'에서 d'로 연속

해서 꺾는 음을 거쳐 c'로 진행한다. 그 후에 g'로 상행한 뒤 e'에서 d'로 꺾고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단, 제7소박의 경우 거문고산조는 개방현을 사용하지 않고 c'를 연주하지만, 철현금산조는 개방현을 함께 사용하여 c'를 연주한 점이 다르다. <김영철 I> 제24장단의 선율은 e'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f'에서 e'으로 연속해서 꺾고 c'를 거쳐 다시 e'에서 d'로 꺾는 음이 두 번 등장한 후 g'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단, 제9소박에서 시작하는 꾸밈음이 거문고산조는 g', 철현금산조는 c'인 점이 다르다. 이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인 선율로 파악할 수 있다. 제8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22-24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61·62·63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 <김영철 I> 진양조 제9단락(제25-26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9단락(제25-26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64·171장단의 ㉔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9]와 같다.

[보례 3-9] <김영철 I> 진양조 제9단락(제25-26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25장단의 선율을 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한 뒤 계속해서 유지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26장단의 선율은 c''로 시작하여 c''에서 g'로, g'에서 e<sup>b'</sup>으로, e<sup>b'</sup>에서 d'로 연속해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한 후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9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25-26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64·171장단의 ㉔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10) <김영철 I> 진양조 제10단락(제27-31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10단락(제27-31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104·105장단의 ㉔선율 첫째장단·제198·105장단 ㉔선율 첫째장단·제105장단 ㉔선율 둘째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10]과 같다.

[보례 3-10] <김영철 I> 진양조 제10단락(제27-31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comparison between two pieces. It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staves, each with two parts: Kim (김) and Han (한). The first system is for measure 27, the second for measure 28, and the third for measure 29.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illustrating the melodic structure of the Jin Yang Jo Je 10 Dan-rak and its comparison to the Geomungo San 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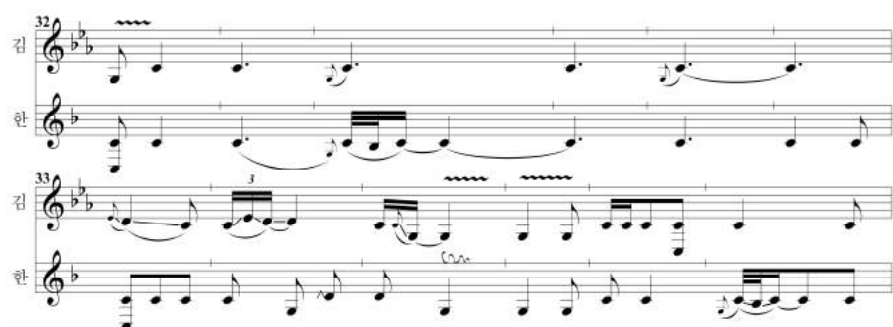


[보례 3-1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27장단의 선율은 c'로 시작해 e<sup>b</sup>''으로 상행한 후 e<sup>b</sup>''에서 d'', c'에서 g'로 꺾는 음을 거쳐 e<sup>b</sup>'으로 하행하여 진행하고, <김영철 I> 제28장단의 선율은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한 후 c''에서 g',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을 거쳐 c'로 하행하여 진행하고, <김영철 I> 제2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으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한 다음 c''에서 e<sup>b</sup>',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을 거친 후 g로 진행한다. 이후 다시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을 거친 후 g로 하행 하고 g'에서 f'를 지나 e'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여 진행하고 <김영철 I> 제30장단의 선율은 g로 시작하여 g'에서 e<sup>b</sup>',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을 거친 후 c로 하행하고 다시 c'로 상행하여 진행하고 마지막 <김영철 I> 제31장단의 선율은 g로 시작하여 높은음 g'에서 e<sup>b</sup>', e<sup>b</sup>'에서 d', b<sup>b</sup>에서 g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하였다가 c'로 상행한 후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0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27-31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104-105장단의 ㉠선율 첫째장단-제198장단-105장단 ㉠선율 첫째장단-제105장단 ㉠선율 둘째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김영철 I> 진양조 제11단락(제32-33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11단락(제32-33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46·47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11]과 같다.

[보례 3-11] <김영철 I> 진양조 제11단락(제32-33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1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3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한 후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전체적인 선율을 보았을 때, 거문고산조의 선율이 철현금산조의 선율보다 잔가락이 더 많다. 따라서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철 I> 제33장단의 경우는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c에서 G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하고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단, 제1소박에서 철현금산조는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는 반면, 거문고산조는 개방현으로 시작하는 점이 다르다. 이는 철현금산조의 특징적인 선율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2·5·6박을 보았을 때,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선율로 나타난다. 제11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32-33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46·47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김영철 I> 진양조 제12단락(제34-35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12단락(제34-35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58장단의 ㉔선율, 제60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12]와 같다.

[보례 3-12] <김영철 I> 진양조 제12단락(제34-35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1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3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상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와 거문고산조 모두 개방현으로 시작하는 점이 기본적으로 같다. 반면 철현금산조의 선율이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전체적으로 한 옥타브 낮은 것이 다른 점이며, 전체적인 선율로 봤을 때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가락 변형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3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f에서 e<sup>b</sup>으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g에서 e<sup>b</sup>으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한 뒤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이 선율도 진양 제34장단과 동일하게 철현금산조의 선율이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전체적으로 한 옥타브가 낮다. 또한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철현금산조의 선율이 잔가락이 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확대한 것으

로 나타난다. 제12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34-35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58장단의 ㉔가락, 제60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김영철 I> 진양조 제13단락(제36-39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13단락(제36-39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66·67·68·51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레 3-13]과 같다.

[보레 3-13] <김영철 I> 진양조 제13단락(제36-39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1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3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해서 e<sup>b</sup>으로 진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한 옥타브 낮게 진행되지만 선율선은 동일하다. <김영철 I> 제3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이 선율 또한 위의 제36장단과 동일하게 첼현금산조의 선율이 전체적으로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한 옥타브 낮다. 더불어 첼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잔가락이 더 많다. 따라서 첼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가락 확대하여 변형한 선율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3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한 옥타브 하행한 뒤 다시 c'로 상행하고 c로 하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하고 c로 진행하고 <김영철 I> 제3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이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첼현금산조는 처음 시작을 개방현 G로 시작하는 것이 다르다. 이는 첼현금산조의 특징적인 선율로 파악할 수 있다. 제13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36-39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66·67·68·51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 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김영철 I> 진양조 제14단락(제40-41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14단락(제40-41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 짧은산조 진양조 제1-2장단<sup>83)</sup>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14]와 같다.

83) 정대석, 『거문고산조 세바탕』(서울: 은하출판사, 2003), 15쪽.

[보례 3-14] <김영철 I> 진양조 제14단락(제40-41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1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4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한 후 b<sup>b'</sup>에서 a'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와 거문고산조 모두 개방현으로 시작하는 점이 기본적으로 같다. 반면 철현금산조의 선율이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전체적으로 한 옥타브 낮은 것이 다른 점이며, 전체적인 선율로 봤을 때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가락 변형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4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으로 시작하여 a'로 상행한 뒤 b<sup>b'</sup>에서 a'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하여 끝나는 선율이다. 전체적으로 거문고산조의 선율이 철현금산조의 선율보다 한 옥타브 낮고 제10-18소박에서 거문고산조는 c로 진행되는 데 반해 철현금산조는 g'로 진행된다. 따라서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가락 축소 및 변형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14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40-41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 짧은산조 진양조 제1-2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김영철 I> 진양조 제15단락(제42-45장단)

<김영철 I>의 진양조 제15단락(제42-45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104·109·105의 ㉠선율 첫째장단·제105의 ㉡선율 둘째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15]와 같다.

[보례 3-15] <김영철 I> 진양조 제15단락(제42-45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1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의 제4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상행한 후 f'에서 e<sup>b</sup>'으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e<sup>b</sup>'에서 d'로 진행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확대하여 부분적으로 변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철현금산조의 선율이 잔가락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4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b

'b'으로 상행한 후 f'에서 e'b'으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e'b'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선율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4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d'로 시작하여 e'b'에서 d'로 꺾는 음이 연속해서 등장한 후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이 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의 선율이 철현금산조의 선율보다 잔가락이 많다. 따라서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4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으로 상행한 후 g'에서 e'b'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이 선율의 제4-6박을 살펴보면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5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42-45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104·109·105의 ㉠선율 첫째장단·제105의 ㉡선율 둘째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중모리

중모리는 총 33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총 21장단의 유사선율이 거문고산조에서 발견된다. 선율의 흐름에 따라 구분한 단락에 의거하여 두 산조 간의 선율을 상호 비교해 나가기로 하겠다.

### (1) <김영철 I> 중모리 제1단락(제1-4장단)

<김영철 I>의 중모리 제1단락(제1-4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1·2·4·5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16]과 같다.



[보례 3-16] <김영철 I> 중모리 제1단락(제1-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1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진행하고 <김영철 I> 제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변형한 선율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한 후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시작을 개방현으로 시작하는 점이 동일하다. 제1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4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1·2·4·5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 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김영철 I> 중모리 제2단락(제5-8장단)

<김영철 I>의 중모리 제2단락(제5-8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6·7·8·9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17]과 같다.

[보례 3-17] <김영철 I> 중모리 제2단락(제5-8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1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한 후 c로 하행하고 다시 c'로 상행하며 종지하는 선율이다. 이 선율은 개방현으로 시작하는 점이 같다. <김영철 I> 제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b<sup>b</sup>'에서 a,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였다가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b<sup>b</sup>'에서 a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였다가 e<sup>b</sup>'에서 d로, g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상행하여 진행하고 <김영철 I> 제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한 후 g'에서 e'♭으로 꺾는 음 1회, e'♭에서 d'로 꺾는 음이 연속해서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여 끝난다. 전체적인 선율을 보았을 때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선율로 나타난다. 제2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5-8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6·7·8·9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3) <김영철 I> 중모리 제4단락(제12-13장단)

<김영철 I>의 중모리 제4단락(제12-13장단) 중 제12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33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18]과 같다.

[보례 3-18] <김영철 I> 중모리 제4단락(제12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1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며 e'♭으로 상행한 후 e'♭에서 d'로 꺾는 음, e'♭에서 c'로 꺾는 음, c'에서 g로 꺾는 음이 등장 후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4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2-13장단의 중 제12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33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선율을

보았을 때 칠현금산조의 선율에서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잔가락이 더 많은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즉 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김영철 I> 중모리 제6단락(제16-20장단)

<김영철 I>의 중모리 제6단락(제16-20장단) 중 제16·17·18·20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75·28·70·32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19]와 같다.

[보례 3-19] <김영철 I> 중모리 제6단락(제16-20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The musical score displays four systems of music, each corresponding to a measure (16, 17, 18, and 20). Each system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for '김' (Kim) and the bottom staff is for '한' (Han).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ornaments (trills and grace notes) to represent the specific melodic lines and their comparison between the two modes.

[보레 3-1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두 옥타브 g'로 상행한 후 f'에서 e<sup>b'</sup>으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b<sup>b'</sup>으로 상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철현금산조의 선율 모두 개방현으로 시작하는 점이 기본적으로 같다. <김영철 I> 제1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낮은 c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한 후 b<sup>b'</sup>에서 a', f'에서 e<sup>b'</sup>으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높은 d''로 상행한 후 f'에서 e<sup>b'</sup>으로 꺾는 음이 연속해서 등장 후 e<sup>b'</sup>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이 선율을 살펴보면 개방현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같다. <김영철 I> 제1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제1-6박은 e<sup>b'</sup>을 지속하다가 d'로 꺾고 제7-12박은 c에서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진행 후 다시 c'를 거쳐 g로 마무리 한다. 거문고산조와는 제1-6박까지 유사하게 진행되고 제7박부터는 상이한 선율이다. <김영철 I> 제2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를 거쳐 c'로 상행하였다가 b<sup>b'</sup>에서 a로 꺾는 음을 거쳐 c로 하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1회 등장한 후 c를 거쳐 한 옥타브 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하고 g로 하행하였다가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6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6-20장단 중 제16·17·18·20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75·28·70·32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5) <김영철 I> 중모리 제7단락(제21-24장단)

<김영철 I>의 중모리 제7단락(제21-24장단)의 선율 중 제21-22장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51장단의 선율과 비교되고, 제23-24장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77·90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

레 3-20]과 같다.

[보레 3-20] <김영철 I> 중모리 제7단락(제21-2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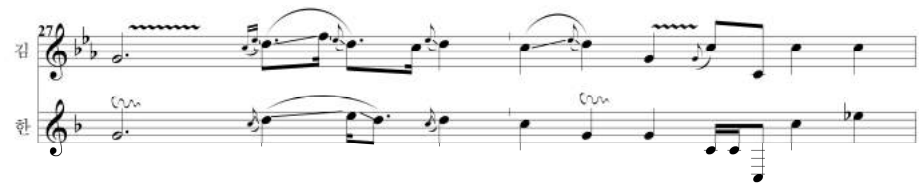
[보레 3-2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2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상행한 후 d'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2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에서 d'로 꺾는 음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c'를 거쳐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2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f'로 시작하여 b<sup>b</sup>에서 g로,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상행한 후 g'에서 e<sup>b'</sup>, c''에서 g', e<sup>b'</sup>에서 d'로 진행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변형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2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7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21-24장단의 선율 중 제21-22

장단은 거문고산조 진양조 제51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6) <김영철 I>의 중모리 제8단락(제25-27장단)

<김영철 I>의 중모리 제8단락(제25-27장단)의 선율 중 제27장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90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21]과 같다.

[보례 3-21] <김영철 I> 중모리 제8단락(제25-27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2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2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f'로 상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연속해서 등장한 뒤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8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25-27장단의 선율 중 제27장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90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7) <김영철 I> 중모리 제9단락(제28-29장단)

<김영철 I>의 중모리 제9단락(제28-29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68·47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22]와 같다.

[보례 3-22] <김영철 I> 중모리 제9단락(제28-29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2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2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으로 시작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상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연속해서 등장한 뒤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전체적인 선율을 보았을 때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부분적으로 가락 변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2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한 뒤 f에서 e<sup>b</sup>,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전체적인 선율을 보았을 때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잔가락이 더 많다. 제9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28-29장단의 선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68·47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8) <김영철 I> 중모리 제10단락(제30-33장단)

<김영철 I>의 중모리 제10단락(제30-33장단)의 선율 중 제33장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6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23]과 같다.



[보례 3-23] <김영철 I> 중모리 제10단락(제30-33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2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33장단의 선율을 살펴 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한 후 b<sup>b</sup>에서 a로 꺾는 음을 거쳐 d로 하행한 다음 e<sup>b</sup>'으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0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30-33장단의 선율 중 제33장단은 거문고산조 중모리 제6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3) 중중모리

<김영철 I>의 중중모리는 총 53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거문고산조의 중중모리의 선율과 비교되는 선율이 없다.

### 4) 굿거리

<김영철 I>의 굿거리는 총 29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거문고산조와 비교되는 가락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 <김영철 I>의 굿거리에서 가야금산조와 비교되는 가락으로 추정되는 선율이 나타나므로 다음 장, 가야금산조와의 비교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5) 자진모리

자진모리는 총 196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총 71장단의 선율과 유사선율이 거문고산조에서 발견된다. 선율의 흐름에 따라 구분한 단락에 의거하여 두 산조 간의 선율을 상호 비교해 나가기로 하겠다.

### (1)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단락(제3-9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2단락(제3-9장단)의 선율 중 제3·4·8·9장단은 한 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341·342·58·59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24]와 같다.

[보례 3-24]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단락(제3-9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2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하는 선율이다. 위의 자진모리 3장단 선율과 동일하게 개방현으로 시작하며, 개방현이 3회 등장하는 점이 동일하다. <김영철 I> 제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상행하여 e

♭'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이 선율에서는 철현금산조는 개방현으로 시작하는데 반해 거문고산조는 개방현으로 시작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전체적인 선율을 살펴보면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잔가락이 더 많다. 따라서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가락확대 변형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낮은 c로 하행한 후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와 거문고산조 모두 개방현으로 시작하는 점이 동일하다. 제2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3-9장단의 선율 중 제3·4·8·9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341·342·58·59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2)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단락(제10-14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3단락(제10-14장단)의 선율 중 제10·11·13·14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97·98·132·133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25]와 같다.

[보례 3-25]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단락(제10-1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2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상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f'로 상행한 뒤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거문고산조와 철현금산조 모두 개방현으로 시작하는 점이 동일하다. <김영철 I> 제1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를 거쳐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동일하다. <김영철 I> 제1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개방현인 C와 c를 동시에 연주한 후 c'로 진행한다. 제3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0-14장단의 선율 중 제10·11·13·14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97·98·132·133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3) <김영철 I> 자진모리 제4단락(제15-19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4단락(제15-19장단)의 선율 중 제15·16·19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134·135·133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26]과 같다.

[보례 3-26] <김영철 I> 자진모리 제4단락(제15-19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comparison.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top system covers measures 15 and 16, and the bottom system covers measure 19. Each system has two staves: the top staff is labeled '김' (Kim) and the bottom staff is labeled '한' (Han).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indicating G major. The notation shows the melodic lines for both pieces, with the Gemonkongsanjo version (Han) featuring a trill on the final note of measure 16. The notation for measure 19 is identical in both versions.

[보례 3-2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으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한 후 g'에서 e<sup>b'</sup>,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으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한 뒤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와 거문고산조 모두 개방현인 C·c·c'로 시작하는 점이 동일하다. 제4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5-19장단의 선율 중 제15·16·19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134·135·133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4) <김영철 I> 자진모리 제5단락(제20-25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5단락(제20-25장단)의 선율 중 제24·25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58·59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27]과 같다.

[보례 3-27] <김영철 I> 자진모리 제5단락(제20-25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김영철 I> 제2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2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20-25장단의 선율 중 제24·25장단은 한갑득류 거문

고산조 자진모리 제58·59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5) <김영철 I> 자진모리 제6단락(제26-34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6단락(제26-34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97·98·174·175·176·203·204·413·414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28]과 같다.

[보례 3-28] <김영철 I> 자진모리 제6단락(제26-34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The musical score is presented in two columns, labeled '김' (Kim) and '한' (Han). It covers measures 26 through 34. Measures 26-27 are for Kim, 28-29 for Han, 30-31 for Kim, 32-33 for Han, and 34 for Kim.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ornaments (trills, wavy lines).

[보례 3-2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제2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에서 f'를 거쳐 e<sup>b'</sup>으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1회 등장한 뒤,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2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2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f'에서 e<sup>b'</sup>으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한 뒤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인데,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변형한 선율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2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한 뒤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3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한 후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3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였다가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를 거쳐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3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한 다음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는 g에서 c로 마무리하는데 반해 거문고산조는 g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3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두 번 등장한 후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3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6단락의 전체적인 선율 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26-34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97·98·174·175·176·203·204·413·414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전체적인 선율을 살펴보았을 때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기본으로 철현금에 어울리는 가락으로 변형한 선율로 나타난다.

(6) <김영철 I> 자진모리 제7단락(제35-41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7단락(제35-41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자진모리 제407·414·99·100·419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29]와 같다.

[보례 3-29] <김영철 I> 자진모리 제7단락(제35-41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2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3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상행한 뒤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을 연속해서 연주하며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3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지속하다가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3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에서 e<sup>b</sup>,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3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



하여 g에서 e<sup>b</sup>,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거문고산조와 철현금산조 모두 개방현으로 시작되는 점이 동일하다. <김영철 I> 제3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여 진행하다가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4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4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낮은 c로 하행한 후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하는 선율이다. 제7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35-41장단의 선율은 한 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407·414·99·100·419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7) <김영철 I> 자진모리 제9단락(제48-53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9단락(제48-53장단)의 선율 중 제48·49·50·52·53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406·136·137·413·414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30]과 같다.

[보례 3-30] <김영철 I> 자진모리 제9단락(제48-53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3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4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한 후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이 선율은 개방현으로 시작 하는 점이 동일하다. <김영철 I> 제4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f로 시작하여 f에서 e<sup>b</sup>,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전체적인 선율을 살펴보면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한 옥타브 낮으며, 이는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변형한 선율로 나타난다. <김영철 I> 제5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연속해서 등장한 후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의 선율은 거문고산조의 선율보다 한 옥타브 낮은 점이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선율의 진행은 유사하다. <김영철 I> 제5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5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9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48-53장단의 선율 중 제48·49·50·52·53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406·136·137·413·414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8)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6단락(제89-100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16단락(제89-100장단)의 선율 중 제93-100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71-78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31]과 같다.

[보례 3-31]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6단락(제89-100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3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93-9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한 뒤 e<sup>b</sup>과 g를 거쳐 c'로 상행하고, 다시 c'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한 뒤 e<sup>b</sup>과 g를 거쳐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 반복된다. <김영철 I> 제9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를 거쳐 c'로 상행하고, 다시 c로 하행하였다가 g를 거쳐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9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c로 하행하고 g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9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g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9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c로 하행하였다가 g를 거쳐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9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g로 하행하고 c'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0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6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89-100장단의 선율 중 제93-100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71-78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9)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7단락(제101-103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17단락(제101-103장단)의 선율 중 제102-103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357-358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32]와 같다.

[보례 3-32]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7단락(제101-103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3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0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f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0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f로 시작하여 b<sup>b</sup>을 지나 c'로 상행하였다가 b<sup>b</sup>과 a를 거쳐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7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01-103장단

의 선율 중 제102-103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357-358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10)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8단락(제104-107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18단락(제104-107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359-362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33]과 같다.

[보례 3-33]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8단락(제104-107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3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0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에서 d로 꺾는 음이 두 번 등장한 뒤, g를 거쳐 c'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0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에서 d로 꺾는 음이 두 번 등장한 뒤, c로 하행하였다가 f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0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를 지나 d'로上行하였다가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0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8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

과 비교하여 볼 때, 제104-107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359-362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11)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1단락(제120-123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21단락(제120-123장단)의 선율 중 제120·122·123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321·347·351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34]와 같다.

[보례 3-34]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1단락(제120-123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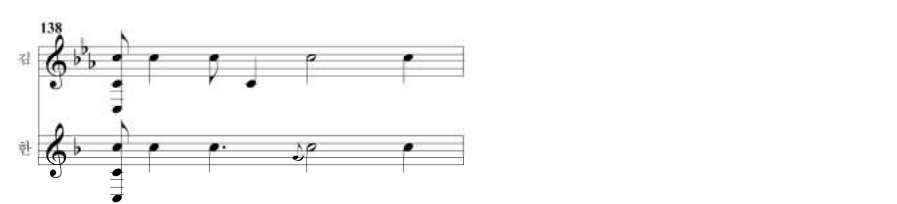
[보례 3-3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2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上行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다시 c'로上行하고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2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上行하였다가 다시 c로 하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上行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g를 지나 c'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2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上行하였다가 다시 c로 하행하고 c'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21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20-123장단의 선율 중 제120·122·123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321·347·351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12)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4단락(제134-138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24단락(제134-138장단)의 선율 중 제138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59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35]와 같다.

[보례 3-35]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4단락(제134-138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3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3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낮은 c로 하행한 후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와 거문고산조 모두 개방현으로 시작하는 점이 동일하다. 제134-138장단의 선율중 제138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59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13)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5단락(제139-148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25단락(제139-148장단)의 선율 중 제139장단

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118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36]과 같다.

[보례 3-36]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5단락(제139-148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3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3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로上行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다시 g'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39-148장단의 선율 중 제139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118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14)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6단락(제149-157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26단락(제149-157장단)의 선율 중 제151·152·153·156·157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63·64·74·74·76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37]과 같다.

[보례 3-37]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6단락(제149-157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3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5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5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다시 c'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5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c'로 상행하고 다시 c로 하행하였다가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5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c로 하행하고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5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c로 하행하고 g를 지나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26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49-157장단의 선율 중 제151·152·153·156·157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63·64·74·74·76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15)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7단락(제158-161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27단락(제158-161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346·59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38]과 같다.

[보례 3-38]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7단락(제158-161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3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6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를 지나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c'를 지나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6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낮은 c로 하행한 후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58-161장단의 선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346·59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16)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8단락(제162-166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28단락(제162-166장단)의 선율 중 제166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59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39]와 같다.

[보례 3-39]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8단락(제162-166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3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6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낮은 c로 하행한 후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철현금산조와 거문고산조 모두 개방현으로 시작하는 점이 동일하다. 제162-166장단의 선율 중 제166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59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17)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9단락(제167-178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29단락(제167-178장단)의 선율 중 제167·168·169·177·178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118·119·120·336·59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40]과 같다.

[보례 3-40]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9단락(제167-178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4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6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였다가 G로 하행하고 다시 g'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6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b<sup>b'</sup>으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다시 b<sup>b'</sup>으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6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여 진행하고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7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g를 지나 c'로 상행하고 다시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7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29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67-178장단의 선율 중 제167·168·169·177·178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118·119·120·336·59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18)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0단락(제179-196장단)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제30단락(제179-196장단)의 선율 중 제180·181·182·186·187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59·118·338·346·347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41]과 같다.

[보례 3-41]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0단락(제179-196장단)과 거문고산조의 비교

[보례 3-4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8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18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G로 하행하고 g'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8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를 지나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8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c'를 지나 g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8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g를 지나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30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79-196장단의 선율 중 제180-181-182-186-187장단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제59-118-338-346-347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2. 가야금산조와의 비교

### 1) 진양조

<김영철Ⅱ>의 진양조는 총 65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총 42장단의 유사선율이 가야금산조에서 발견된다. 선율의 흐름에 따라 구분한 단락에 의거하여 두 산조 간의 공통선율을 상호 비교하겠다.

#### (1) <김영철Ⅱ>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1-4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42]와 같다.

[보례 3-42] <김영철Ⅱ> 진양조 제1단락(제1-4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4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1장단의 선율을 살펴

보면 a'로 시작하여 f'로 하행한 뒤 다시 a'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a로 시작하여 e로 하행했다가 g'를 거쳐 a'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g'로 하행하여 a'로 상행하고 다시 c'로 진행했다가 a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b'로 시작하여 e'로 상행했다가 a'로 하행하고 e'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4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1-4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김영철Ⅱ> 진양조 제2단락(제5-8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2단락(제5-8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5-8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43]과 같다.

[보례 3-43] <김영철Ⅱ> 진양조 제2단락(제5-8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4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a로 시작하여 a에서 b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e로 하행하였다가 a를 지나 d'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고 g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고 a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로 상행하였다가 a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d로 하행하고 A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d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2단락의 전체적인 선율 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5-8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5-8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김영철Ⅱ> 진양조 제3단락(제9-10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3단락(제9-10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9-10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44]와 같다.

[보례 3-44] <김영철Ⅱ> 진양조 제3단락(제9-10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4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A로 시작하여 a로 상행하고 c에서 b로 꺾는 음이 1회 등장하고 다시 a로 하행하고 d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1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a로 시작하여 d'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a로 하행하고 c'로 상행하였다가 a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3단락의 전체적인 선율 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9-10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9-10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김영철Ⅱ> 진양조 제4단락(제11-12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4단락(제11-12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11-12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45]와 같다.

[보례 3-45] <김영철Ⅱ> 진양조 제4단락(제11-12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4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1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1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a로 하행하였다

가 d'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4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1-12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11-12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김영철Ⅱ> 진양조 제5단락(제13-14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5단락(제13-14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13-14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46]과 같다.

[보례 3-46] <김영철Ⅱ> 진양조 제5단락(제13-14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4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1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1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a'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g'하행하여 진행하고 f'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5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3-14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13-14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김영철Ⅱ> 진양조 제6단락(제15-17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6단락(제15-17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15-17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47]과 같다.

[보례 3-47] <김영철Ⅱ> 진양조 제6단락(제15-17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4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1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f'로 하행하였다가 a로 하행하고 d'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1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d'로 상행하였다가 f'에서 e'로 꺾는 음이 세 번 등장하고 다시 a로 하행하였다가 d'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1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a에서 밀어 올려 c'로 상행하였다가 f에서 e로 꺾는 음이 등장하고 d를 거친 뒤 a로 상행하였다가 d'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6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5-17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15-17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김영철Ⅱ> 진양조 제7단락(제18-20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7단락(제18-20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 20-22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48]과 같다.

[보례 3-48] <김영철Ⅱ> 진양조 제7단락(제18-20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4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1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a'로 상행하였다가 f'에서 e'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하행하고 다시 a'로 상행하고 c''에서 b'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a'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1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a'로 시작하여 f''로 상행하였다가 c''에서 b'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f로 하행하고 c''에서 b'로 꺾는 음<sup>84)</sup>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2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a''로 상행하였다가 D로 하행하고 d와 a를

84) [보례 3-48]에 나타나는 성(가야금 보례)의 제19장단 제8소박에 나타나는 ㄴ표기는 꺾는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첼현금 보례)의 제19장단 제8소박의 c''에서 b'로 진행하는 꺾는 음과 같다.

(8) <김영철Ⅱ> 진양조 제8단락(제21-22장단)

[보례 3-49] <김영철Ⅱ> 진양조 제8단락(제21-22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 182 -

# (9) <김영철Ⅱ> 진양조 제10단락(제29-30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10단락(제29-30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29-30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50]과 같다.

[보례 3-50] <김영철Ⅱ> 진양조 제10단락(제29-30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5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2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d로 시작하여 g로上行하였다가 다시 d로下行하고 b<sup>b</sup>에서 a로 꺾는 음이 등장한 뒤 g로下行하고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하고 c로下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下行하였다가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上行하고 g로下行하였다가 c'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0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29-30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29-30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10) <김영철Ⅱ> 진양조 제11단락(제31-33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11단락(제31-33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31-33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51]과 같다.

[보례 3-51] <김영철Ⅱ> 진양조 제11단락(제31-33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comparison between the melody of <Kim Young-cheol II> Jinyangjo Jeon 11 Danrak (Jeon 31-33 Jangdan) and Gayageum Sanjo. The score is written for voice (김, 생) and guitar (김, 생) across three measures (31, 32, 33). The notation includes treble clefs, key signatures, and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accidentals.

[보례 3-5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3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a'로 상행하였다가 e'로 하행하고 g'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g'로 하행하고 d''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d''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c''로 상행하였다가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1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31-33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31-33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김영철Ⅱ> 진양조 제12단락(제34-37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12단락(제34-37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34-35·38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52]와 같다.

[보례 3-52] <김영철Ⅱ> 진양조 제12단락(제34-37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5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3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f'에서 내려오는 d'로 시작하여 e'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뒤 c'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f'에서 내려오는 e'으로 시작하여 e'에서 d'로 꺾는 음이 나오고 c'를 지나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e'에서 d로 꺾는 음이 나오고 c'를 지나 g로 하행하고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하여 진행하고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리되는 선율이다. 제12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34-37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34-35, 제38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12) <김영철Ⅱ> 진양조 제13단락(제38-41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13단락(제38-41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43-46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53]과 같다.

[보례 3-53] <김영철Ⅱ> 진양조 제13단락(제38-41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5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3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상행하여 진행하다가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상행하였다가 c'를 지나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4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c'를 지나 g로 하행하고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4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상행하였다가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하고 c'를 지나 g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3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38-41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43-46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13) <김영철Ⅱ> 진양조 제14단락(제42-43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14단락(제42-43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47-48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54]와 같다.

[보례 3-54] <김영철Ⅱ> 진양조 제14단락(제42-43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5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4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여 진행하고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4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

하여 G로 하행하였다가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4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42-43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47-48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 (14) <김영철Ⅱ> 진양조 제15단락(제44-48장단)

<김영철Ⅱ>의 진양조 제15단락(제44-49장단)의 선율 중 제44-48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49-50·31-32·53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55]와 같다.

[보례 3-55] <김영철Ⅱ> 진양조 제15단락(제44-48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The musical score is presented in a system of six staves, grouped into three pairs. Each pair represents a different melodic line or instrument. The first pair (measures 44-45) is labeled '김' (Kim) and '성' (Seong). The second pair (measures 46-47) is also labeled '김' and '성'. The third pair (measures 48-49) is labeled '김' and '성'.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ornaments.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shows measures 44, 45, 46, and 47.



[보례 3-5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4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b$ 으로 상행하여 진행하고  $e^b$ 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4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f에서  $e^b$ 을 지나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고 G를 지나 C로 하행하였다가 G를 지나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4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b$ 으로 상행하여 G로 하행하였다가 f로 상행하고  $e^b$ 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4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 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 로 상행하고  $b^b$ 에서 a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c로 하행하고 진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5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44-49장단의 선율 중 제44-48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진양조 제49-50·31-32·53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중모리

<김영철Ⅱ>의 중모리는 총 2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총 6장단의 유사선율이 가야금산조에서 발견된다. 선율의 흐름에 따라 구분한 단락에 의거하여 두 산조 간의 선율을 상호 비교해 나가기로 하겠다.

# (1) <김영철Ⅱ> 중모리 제1단락(제1-4장단)

<김영철Ⅱ>의 중모리 제1단락(제1-4장단) 중 제1·3·4장단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제3·33·34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56]과 같다.

[보례 3-56] <김영철Ⅱ> 중모리 제1단락(제1-4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5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를 지나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하행하였다가 g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를 지나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고 c로 하행하여 진행하고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4장단 중 제1·3·4장단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제3·33·34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2) <김영철Ⅱ> 중모리 제2단락(제5장단)

<김영철Ⅱ>의 중모리 제2단락(제5장단)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제 35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57]과 같다.

[보례 3-57] <김영철Ⅱ> 중모리 제2단락(제5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5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1장단의 선율을 살펴 보면 G로 시작하여 g를 지나 c'로上行하였다가 a를 지나 d로下行하고 c'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2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5장단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제 35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김영철Ⅱ> 중모리 제3단락(제6-8장단)

<김영철Ⅱ>의 중모리 제3단락(제6-8장단)의 선율 중 제6-7장단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제31-32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58]과 같다.

[보례 3-58] <김영철Ⅱ> 중모리 제3단락(제6-8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5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f'를 지나 b<sup>b'</sup>으로上行하였다가 c'로 하행하고 다시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e<sup>b''</sup>로上行하였다가 g'를 지나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로上行하였다가 f'에서 e<sup>b'</sup>를 지나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c'로 하행하고, g로 하행하고 f에서 e<sup>b</sup>을 지나 d로 꺾는 음이 등장한 후, g를 지나 c'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3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6-8장단의 선율 중 제6-7장단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제31-32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한다.

### 3) 중중모리

<김영철Ⅱ>의 중중모리는 총 3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총 3장단의 유사선율이 가야금산조에서 발견된다. 선율의 흐름에 따라 구분한 단락에 의거하여 두 산조 간의 선율을 상호 비교해 나가기로 하겠다.

# (1)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1단락(제1-3장단)

<김영철Ⅱ>의 중중모리 제1단락(제1-3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중중모리 제1-3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59]와 같다.

[보례 3-59] <김영철Ⅱ> 중중모리 제1단락(제1-3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5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를 지나 c'로 상행하였다가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는 꺾는 음이 등장하여 진행하고 G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에서 c로 밀어 올리는 음이 등장하고 c로 상행하였다가 G로 하행하고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3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중중모리 제1-3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굿거리

<김영철Ⅱ>에는 굿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김영철Ⅰ>에 나타나는 굿거리의 장단이 가야금산조와 유사한 가락이 있다. 따라서 가야금산조와 <김영철Ⅱ>를 비교하는 본 단락에서, <김영철Ⅰ>의 굿거리와 가야금산조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굿거리는 총 29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총 10장단의 선율과 유사선율이 가야금산조에서 발견된다. 선율의 흐름에 따라 구분한 단락에 의거하여 두 산조 간의 선율을 상호 비교해 나가기로 하겠다.

##### (1) <김영철Ⅰ> 굿거리 제1단락(제1-4장단)

<김영철Ⅰ>의 굿거리 제1단락(제1-4장단)은 가야금산조의 굿거리 제1-4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60]과 같다.

[보례 3-60] <김영철Ⅰ> 굿거리 제1단락(제1-4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6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Ⅰ> 제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를 지나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Ⅰ> 제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하였다가 g를 지나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였다가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c로 하행하여 진행하고 다시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d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하였다가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4장단은 가야금산조의 굿거리 제1-4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김영철 I> 굿거리 제4단락(제11-13장단)

<김영철 I>의 굿거리 제4단락(제11-13장단)은 가야금산조의 굿거리 제13-15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61]과 같다.

[보례 3-61] <김영철 I> 굿거리 제4단락(제11-13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6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a'로 상행하였다가 g'로 하행하고 c'로 상행하였다가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g를 지나 c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g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4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1-13장단은 가야금산조의 굿거리 제13-15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김영철 I> 굿거리 제5단락(제14-17장단)

<김영철 I>의 굿거리 제5단락(제14-17장단)의 선율 중 제14-16장단은 가야금산조의 굿거리 제16-18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62]와 같다.

[보례 3-62] <김영철 I> 굿거리 제5단락(제14-17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6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 I> 제1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a'로 상행하였다가 g'로 하행하고 c''로 상행하였다가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f'로 하행하고 g'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 I> 제16장단의 선율을 살

해보면 c로 시작하여 d"로 상행하고 c"를 지나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5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4-17장단의 선율 중 제14-16장단은 가야금산조의 굿거리 제16-18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자진모리

<김영철Ⅱ>의 자진모리는 총 146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총 46장단의 선율과 유사선율이 가야금산조에서 발견된다. 선율의 흐름에 따라 구분한 단락에 의거하여 두 산조 간의 선율을 상호 비교해 나가기로 하겠다.

### (1)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2단락(제8-12장단)

<김영철Ⅱ>의 자진모리 제2단락(제8-12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5-9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63]과 같다.

[보례 3-63]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2단락(제8-12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6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의 제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상행하여 진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에서 g'로 밀어 올리는 음으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1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하고 c'를 지나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1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하행하였다가 c'를 지나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1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2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8-12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5-9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4단락(제18-23장단)

<김영철Ⅱ>의 자진모리 제4단락(제18-23장단)의 선율 중 제20-23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17-20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64]와 같다.

[보례 3-64]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4단락(제18-23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6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2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을 지나 g로 상행하고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2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을 지나 g로 상행하고 c'로 상행하였다가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2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2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4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18-23장단의 선율 중 제20-23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17-20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5단락(제24-31장단)

<김영철Ⅱ>의 자진모리 제5단락(제24-31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21-28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65]와 같다.

[보례 3-65]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5단락(제24-31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comparison. It consists of four staves arranged in two pairs. The top pair represents the music of Kim Young-cheol II, with measures 24 and 25 on the first staff, and measures 26 and 27 on the second staff. The bottom pair represents the Sanjo music, with measures 21 and 22 on the third staff, and measures 23 and 24 on the fourth staff. The notation includes treble clefs, key signatures of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various musical notes and rests. The score is used to compare the melodic structure and line of the two pieces.



[보레 3-6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2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2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e<sup>b</sup>'으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g'로 상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2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였다가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2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2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하고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2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하였다가 d''를 지나 g''로 상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여 c'를 지나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5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24-31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21-28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6단락(제32-37장단)

<김영철Ⅱ>의 자진모리 제6단락(제32-37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29-34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66]과 같다.

[보례 3-66]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6단락(제32-37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6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3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b^b$ 에서  $a$ 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d'$ 로 상행하였다가  $g$ 를 지나  $c$ 로 하행하고  $e^b$ 에서  $d'$ 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g$ 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 로 시작하여  $e^b$ 에서  $d'$ 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d$ 로 하행하고  $g$ 를 지나  $c'$ 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g$ 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 로 시작하여  $c$ 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 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 로 시작하여  $g$ 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c$ 로 하행하고  $c'$ 로 상행하였다가  $c$ 로 하행



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上行하였다가 c로 하행하였다가 g를 지나 c'로上行하고 다시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3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6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32-37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29-34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9단락(제54-59장단)

<김영철Ⅱ>의 자진모리 제9단락(제54-59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35-40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67]과 같다.

[보례 3-67]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9단락(제54-59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6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5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g'를 지나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하행하고 다시 g'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5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였다가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5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g'로 하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등장하고 다시 g'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5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5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를 지나 g로 상행하고 c'로 상행하여 진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5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를 지나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9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54-59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35-40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0단락(제60-65장단)

<김영철Ⅱ>의 자진모리 제10단락(제60-65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41-46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68]과 같다.

[보례 3-68]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0단락(제60-65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6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6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고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6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으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c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6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으로 시작하여 g로 상행하였다가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6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e<sup>b</sup>으로 시작하여 진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꺾는 음이 한 번 등장하였다가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6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였다가 c를 지나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6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0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60-65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41-46장단의 선율과 선율구조 및 선율선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7)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1단락(제66-70장단)

<김영철Ⅱ>의 자진모리 제11단락(제66-70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47-51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69]와 같다.

[보례 3-69]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1단락(제66-70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6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6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f에서 e<sup>b</sup>으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上行하였다가 다시 G로下行하고 e<sup>b</sup>으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67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에서 e<sup>b</sup>으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을 지나 c로下行하였다가 다시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68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d로 시작하여 G로下行하였다가 다시 c로上行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69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까지 밀어올려서 내는 음이 두 번 등장하고 다시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70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1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 66-70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47-51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2단락(제71-76장단)

<김영철Ⅱ>의 자진모리 제12단락(제71-76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52-57장단의 선율과 비교된다. 양 자의 비교 악보는 다음 [보례 3-70]과 같다.

[보례 3-70]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2단락(제71-76장단)과 가야금산조의 비교

[보례 3-7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영철Ⅱ> 제71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72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G로 하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

철Ⅱ> 제73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G로 시작하여 c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G로 하행하고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74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g를 지나 c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g를 지나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7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e<sup>b</sup>'에서 d'로 진행하는 꺾는 음으로 상행하고 g로 하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김영철Ⅱ> 제76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c'로 시작하여 c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c'로 상행하여 마무리되는 선율이다. 제12단락의 전체적인 선율진행을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하여 볼 때, 제71-76장단은 가야금산조의 자진모리 제52-57장단의 선율과 동일한 선율구조 및 선율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소결론

두 바탕의 김영철 철현금산조와 거문고산조·가야금산조의 선율을 비교해 본 결과, 철현금산조 선율의 상당부분이 거문고산조·가야금산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문고산조와 비교한 <김영철Ⅰ>의 경우, 진양조와 유사한 가락은 총 45장단, 중모리와 유사한 선율은 총 21장단, 자진모리와 유사한 가락은 총 71장단으로 나타났다. 가야금산조와 비교한 <김영철Ⅱ>의 경우 진양조와 유사한 가락은 총 42장단, 중모리와 유사한 가락은 총 6장단, 중중모리와 유사한 가락은 총 3장단, 자진모리와 유사한 가락은 총 46장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철Ⅰ>의 굿거리는 거문고산조보다는 가야금산조와 유사한 가락이 다수 나타났다. 그리하여 <김영철Ⅰ> 굿거리를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비교해 본 결과, 총 10장단이 가야금산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영철Ⅰ>의 진양조 선율 55장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를 각 장단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sup>85)</sup>

[표 3-1] <김영철 I>의 진양조 선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

연주자	유사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김 II											
한	짧①	짧②	3	4	5	6	7	8	9	10	11
김 I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김 II								38			
한	31	32	33	50	51	52	57	58㉔	59	60	61
김 I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김 II									41	42	43
한	62	63	64	171㉔	104	105㉔-1	198	105㉔-1	105㉔-2	46	47
김 I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김 II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한	58B	60	66	67	68	51	짧①	짧②	104	109	105A-1
김 I	45	46-51	52-53	54-55							
김 II	55	56-61	62-63	64-65							
한	105㉔-2										

[표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철 I>의 진양조 선율 55장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은 총 45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82%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영철 I>의 중모리 선율 33장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를 각 장단 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85) 겹세로줄은 단락의 구분임.

[표 3-2] <김영철 I>의 중모리 선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

연주자	유사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11	12	13	14-15	16	17	
김 II	1	2	3	4	5				6-8	9	10	11-12	13	14	
한	1	2	4	5	6	7	8	9		33			75	28	
김 I	18	19	20	21	22	23	24	25-26	27	28	29	30-32	33		
김 II	15	16	17	18	19	20	21	22-23	24						
한	70		32	진양51	진양51	77	90		90	68	47		6		

[표 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철 I>의 중모리 선율 33장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은 총 21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64%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선율 196장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를 각 장단 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선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

연주자	유사선율													
김 I	1-2		3	4	5-7		8	9	10	11	12	13	14	15
김 II			1	2	3-5		6	7	8	9	10	11	12	13
한			341	342			58	59	97	98		132	133	134
김 I	16	17-18		19	20-23		24	25	26	27	28	29	30	31
김 II	14	15-16		17	18-21		22	23	38	39	40	41	42	43
한	135			133			58	59	97	98	174	175	176	203
김 I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45		46-47	
김 II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57		58-59	
한	204	413	414	407	414	99	100	419	58	59				



김 I	48	49	50	51	52	53	54-58		59-64		65-73		74-78	
김 II	60	61	62	63	64	65	66-70		71-76		77-85		86-90	
한	406	136	137		413	414								
김 I	79-83		84-88		89-92		93	94	95	96	97	98	99	100
김 II	91-95		96-100		101-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한							71	72	73	74	75	76	77	78
김 I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112		113-119		120	121	122
김 II	113						118	119-123		124-130		131	132	
한		357	358	359	360	361	362					321		347
김 I	123	124-128		129-133		134-137		138	139	140-148		149-150		151
김 II	133													
한	351							59	118					63
김 I	152	153	154-155		156	157	158-159		160	161	162-165		166	167
김 II														134
한	64	74			74	76			346	59			59	118
김 I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김 II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한	119	120								336	59		59	118
김 I	182	183-185		186	187	188-196								
김 II														
한	338			346	347									

[표 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철 I>의 자진모리 선율 196장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은 총 71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36%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영철 II>의 진양조 선율 65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를 각 장단 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김영철Ⅱ>의 진양조 선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

연주자	유사선율													
김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김Ⅰ														
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김Ⅱ	15	16	17	18	19	20	21	22	23-28		29	30	31	32
김Ⅰ														
성	15	16	17	20	21	22	23	24			29	30	31	32
김Ⅱ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김Ⅰ						19			31	32	33	34	35	36
성	33	34	35	38	38	43	44	45	46	47	48	49	50	51
김Ⅱ	47	48	49	50-51		52-55		56-61		62-63		64-65		
김Ⅰ	37	38	39	40-41		42-45		46-51		52-53		54-55		
성	32	53												

[표 3-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철Ⅱ>의 진양조 선율 65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은 총 42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65%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영철Ⅱ>의 중모리 선율 24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를 각 장단 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김영철Ⅱ>의 중모리 선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

연주자	유사선율													
김Ⅱ	1	2	3	4	5	6	7	8	9-10	11-12	13-17	18-21	22-24	
김Ⅰ	1	2	3	4	5	9	10	11	12-13	14-15	16-20	21-24	25-27	
성	3		33	34	35	31	32							

[표 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철Ⅱ>의 중모리 선율 24장단과 유

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은 총 6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25%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영철Ⅱ>의 중중모리 선율 34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를 각 장단 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김영철Ⅱ>의 중중모리 선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

연주자	유사선율								
김Ⅱ	1	2	3	4	5-8	9-10	11-12	13-14	15-16
김Ⅰ	1	2	3	4	5-8	9-10	11-12	13-14	15-16
성	1	2	3						
김Ⅱ	17-18		19-20		21-22	23-25	26-29	30-32	33-34
김Ⅰ	17-18		19-20		21-22	23-25	26-29	30-32	33-34
성									

[표 3-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철Ⅱ>의 중중모리 선율 34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은 총 3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9%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영철Ⅰ>은 전반적으로 거문고산조와의 유사선율이 많지만, <김영철Ⅰ>의 굿거리의 거문고산조보다는 가야금산조와 유사한 가락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김영철Ⅰ>의 굿거리 선율 29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를 각 장단 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김영철Ⅱ>의 굿거리 선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

연주자	유사선율										
김Ⅰ	1	2	3	4	5	6-8	9-10	11	12	13	14
성	1	2	3	4				13	14	15	16
김Ⅰ	15	16	17	18-19		20-21	22-23	24-28		29	
성	17	18									

[표 3-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철 I>의 굵거리 선율 29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은 총 10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34%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영철 II>의 자진모리 선율 146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를 각 장단 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김영철 II>의 자진모리 선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

연주자	유사선율											
김Ⅱ	1-7		8	9	10	11	12	13-17		18-19		20
김Ⅰ	3-9		10	11	12	13	14	15-19		20-21		22
성			5	6	7	8	9					17
김Ⅱ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김Ⅰ	23	24	25									
성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김Ⅱ	33	34	35	36	37	38-46		47-53		54	55	56
김Ⅰ						26-34		35-41		42	43	44
성	30	31	32	33	34					35	36	37
김Ⅱ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김Ⅰ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성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김Ⅱ	69	70	71	72	73	74	75	76	77-85		86-90	
김Ⅰ	57	58	59	60	61	62	63	64	65-73		74-78	
성	50	51	52	53	54	55	56	57				
김Ⅱ	91-95		96-100		101-112		113	114-117		118	119-123	
김Ⅰ	79-83		84-88		89-100		101			107	108-112	
성												
김Ⅱ	124-132		133	134-142		143-146						
김Ⅰ	113-121		123	167-175								
성												

[표 3-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철Ⅱ>의 자진모리 선율 146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은 총 46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32%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로써 두 바탕의 김영철 철현금산조에는, 거문고산조의 영향을 받은 선율과 가야금산조의 영향을 받은 선율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기존의 선율이 철현금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됨으로써 철현금산조만의 특징이 조성되었다. 예컨대 가야금산조로부터 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율의 경우, 가야금으로만 연출 가능한 연퉁김 등의 주법이 단순화되어 여음 처리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문고산조로부터 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율 역시 가야금산조에서 유래된 부분과 같이 단순화되어 여음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문고산조 선율로부터 유래된 경우, 원래의 선율인 거문고 가락에서 큰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가야금산조로부터 유래된 부분보다는 본래 선율과 보다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IV. 철현금산조의 전승 및 변화

### 1. 전승실태

철현금산조는 김영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승되어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철현금산조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수자들의 철현금산조와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선율을 비교하였고, 전수자 및 관련자와의 대담을 통하여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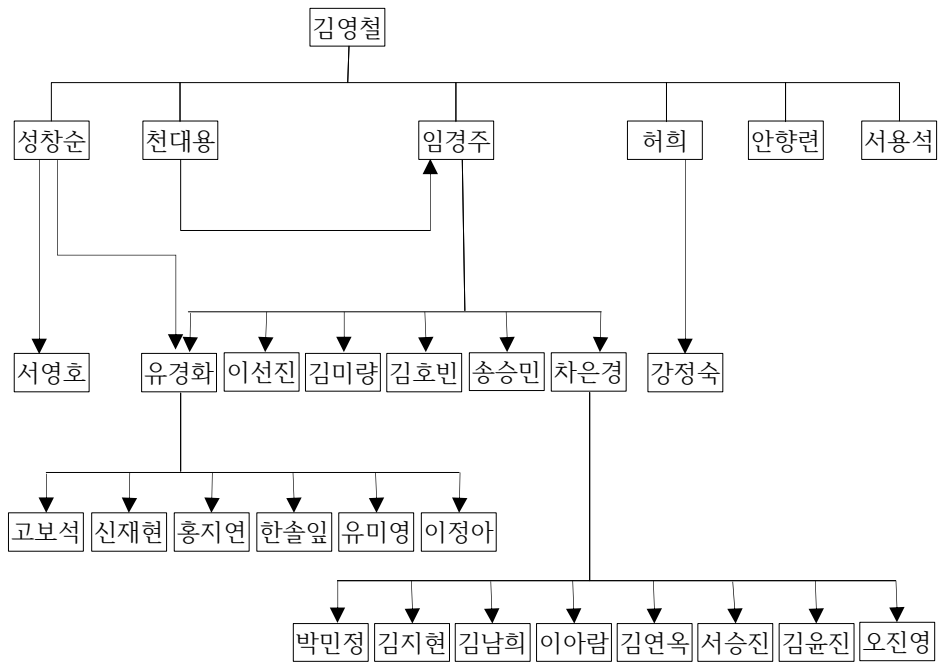
#### 1) 계보

철현금산조는 김영철로부터 시작됐다. 제1세대 전승을 거쳐 제2세대로, 현재는 제3세대까지 전승되고 있다. 철현금산조 창시자인 김영철의 제1세대 전승 제자는 성창순, 허희, 서용석, 천대용, 안향련, 임경주 등이다. 제1세대 전승자로부터 전수받은 제2세대 전승 제자는 강정숙, 서영호, 유경화, 차은경 등이 있다. 2세대 전승자로부터 전수받은 제3세대 전승 제자는 유미영, 신재현, 고보석, 이정아, 홍지연, 한솔잎, 이선진, 김미량, 박민정, 김지현, 김남희, 이아람, 김연옥, 서승진, 김윤진, 오진영 등이 있다.

한 세대에서 단절되지 않고, 전승이 이어진 경우를 살펴보면 제1세대 전승자 성창순은 김영철과 허희에게 철현금산조를 전수받아 유경화와 서영호에게 전승하였다. 허희는 김영철에게 전수받아 성창순과 강정숙에게 전승하였다. 천대용은 김영철에게 전수받아 임경주에게 전승하였다. 임경주는 김영철과 천대용, 허희에게 전수받아 유경화, 차은경, 이선진, 김미량, 송승민, 김호빈 등에게 전승하였다. 제2세대 전승자 유경화는 성창순과 임경주에게

전수받아 고보석, 신재현, 홍지연, 한솔잎, 유미영, 이정아 등에게 전승하였다. 차은경은 임경주에게 전수받아 박민정, 김지현, 김남희, 이아람, 김연옥, 서승진, 김윤진, 오진영 등에게 전승하였다. 위의 계보를 정리하면 다음 [도판1]과 같다.<sup>86)</sup>

[도판1] 철현금산조의 전승계보



현재 철현금으로 활발한 연주와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 전승자로는 성창순, 임경주, 유경화, 차은경이 대표적이다.

86) 연합뉴스 기사(기사입력일: 1993년 4월 9일, 기사제목: '아쟁의 명인' 윤윤석씨 연주회)에 따르면 윤윤석이 철현금을 연주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윤윤석의 아들 윤서경과의 대담(분류번호 chg151120-7-윤서경)을 통해 철아쟁이 철현금으로 잘못 기록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성창순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로 철현금연주도 함께 하고 있다. 성창순은 철현금산조를 익히기 이전에 한갑득에게 거문고를, 강태홍과 원옥화에게 가야금을 전수 받았다. 21세 무렵 부산에서 김영철이 철현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음에 매료돼 김영철에게 철현금산조를 배웠다. 당시에는 아직 철현금산조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김영철이 성창순을 가르치면서 산조의 구성을 완성하여 짧은산조가 탄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창순은 1961년경 부산에서 서울로 거처를 옮기면서 악기보다는 소리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 무렵인 1966년(당시 32세)에 연주한 철현금산조가, 미국인 인류학자인 로버트 가피아스에 의해 영상으로 기록되어 지금에 전한다. 이 영상은 방송국(KBS 추정)에서 성창순이 연주한 것을 가피아스가 촬영한 것인데, 촬영 후 몇십 년이 지난 뒤 지인(국문학 교수)을 통해 성창순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성창순이 허희에게 철현금산조를 전수하던 무렵, 성창순은 허희를 통해 김영철의 철현금산조가 녹음된 테이프를 받았다. 김영철이 자신이 만든 기존의 짧은산조에 다른 가락을 추가해 직접 연주한 테이프였다. 성창순은 이를 간직하고 있다가 테이프에 담긴 김영철의 추가 선율과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가락을 합하여 긴산조를 구성하였고, 짧은산조 음원과 함께 2014년에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로 남겼다.<sup>87)</sup>

허희는 국립창극단 소속의 판소리 명창으로 철현금 연주도 함께 하였다고 전한다. 허희는 김영철에게 철현금산조를 사사하여 강정숙에게 철현금산조를 전승하였다. 제자인 강정숙과 함께 국립극장에서 철현금산조를 연주했는데<sup>88)</sup> 그 공연실황 음원이 현재 남아있다.

임경주는 민속악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야금 주자이다. 임경주는 김영철, 천대용에게 철현금산조를 사사하고 김미경, 차은경, 유경화 등에게 철현금산조를 전승하였다. 임경주가 김영철에게 철현금산조를 배우던 중 김영철이 작고하여, 당시 원서동에 거주하던 천대용에게 미처 배우지 못한 가락을 전수받았다고 한다.<sup>89)</sup> 대성음반에서 철현금산조 음반을 취입했으며

87) 성창순 대담(관리번호 chg150917-1-성창순).

88) 강정숙 대담(관리번호 chg151015-6-강정숙).



현재까지 철현금산조 공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유경화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본래 거문고를 전공했고 타악 및 철현금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유경화는 임동식의 거문고와 안향련의 철현금 중주를 들은 후, 이를 계기로 1995년에 임경주로부터 철현금 짧은산조를 사사했다. 이후 2012년에는 성창순으로부터 철현금 긴산조를 전수받았다.<sup>90)</sup> 유경화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주 및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전승자이다. 철현금산조는 물론 정악과 창작음악에 이르기까지 철현금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차은경은 현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거문고 연주자로 철현금 연주를 병행하고 있다. 2000년에 임경주로부터 철현금을 사사했다. 동국악회는 차은경의 제자로 이루어진 거문고 전공자 모임인데, 거문고 외에도 다양한 악기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철현금을 전수받아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sup>91)</sup>

## 2) 현행 전승실태

현재 철현금은 소수의 연주자들에 의해 전공 외의 악기로 전승되고 있다. 철현금의 창시자인 김영철 역시 알려진 바와 같이 줄타기의 명인이다. 제1세대 전승 제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리를 하는 연주자가 많은데 그 까닭은,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악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철현금을 선택했고, 김영철이 극단이나 예술단에서 근무하는 등 민속악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세대 제자들 중에서는 비교적 거문고를 하는 연주자가 많은데 그 까닭은 철현금의 운용체계가 거문고와 비슷하고 가락이나 성음을 내는 방법 또한 거문고에서 익혔던 수법

---

89) 임경주 대담(관리번호 chg151125-11-임경주).

90) 유경화 대담(관리번호 chg150919-4-유경화).

91) 차은경 대담(관리번호 chg150918-3-차은경).

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현금은 현재 제1세대 전승자인 성창순을 필두로 임경주, 유경화, 차은경, 서영호, 신재현, 이정아, 유미영, 고보석, 홍지연, 한솔잎, 박민정, 김지현, 김남희, 이아람, 김연옥, 서승진, 김윤진, 오진영 등에 의하여 전해지고 있다.

## 2. 선율변화 및 발전

제1세대 제자인 성창순, 허희·강정숙, 안향련, 임경주, 제2세대 이하 제자인 유경화, 동금악회의 가락을 살펴보면 대부분 <김영철 I>과 <김영철 II>의 가락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전승자의 짧은 산조에서 나타나는 선율은 김영철의 선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각 장단별로 동일한 선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성창순 <Chulhyungum Sanjo>: <성창순 I>

성창순 영상은 1966년에 로버트 가피아스(Robert Garfias)에 의하여 녹화된 11분 18초 분량의 <Chulhyungum Sanjo> 영상이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장단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38장단으로 6분 11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17장단으로 2분 31초,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34장단으로 2분 36초가 소요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성창순 I>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38	6분 11초
중모리	17	2분 31초
중중모리	34	2분 36초
총 소요시간		11분 18초

### (1) 진양조

#### ① 동일선율

<성창순 I>에 나타나는 진양조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89%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 I>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성창순 I>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9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	19		20
김 II 93)																	38	39	
성 I 9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김 I	3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4	45
김 II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4	55
성 I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92) <김영철 I>.

93) <김영철 II>.

94) <성창순 I>.

[표 4-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 I> 진양조 제1-15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1-15장단, <성창순 I> 진양조 제16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21장단, <성창순 I> 진양조 제17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19장단·<김영철 II> 진양조 제38장단, <성창순 I> 진양조 제18장단은 <김영철 II> 진양조 제39장단, <성창순 I> 진양조 제19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20장단, <성창순 I> 진양조 제20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31장단, <성창순 I> 진양조 제21-32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31-42장단·<김영철 II> 진양조 제41-52장단, <성창순 I> 진양조 제37-38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44-45장단·<김영철 II> 진양조 제54-55장단과 시김새의 표현에서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성창순 I>의 상이선율은 제33-36장단까지 총 4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김영철 철현금산조에서 추가·확대된 선율로 추정할 수 있다. <성창순 I>의 진양조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보례 4-1]과 같다.

[보례 4-1] <성창순 I>의 진양조 추가·확대된 선율



[보례 4-1]의 상이 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성창순은 철현금을 배우기 이전에 거문고를 수학<sup>95)</sup>하였기에 거문고산조의 선율이 철현금으로 모방 및 발전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95) 성창순 대담(관리번호 chg150917-1-성창순).

## (2) 중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 I>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 I>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 선율은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성창순 I>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12	13	9	10	11	14	15	16	17	18	19	20		
김 II	1	2	3	4	5	9	10	6	7	8	11	12	13	14	15	16	17		
성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표 4-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 I> 중모리 제1-5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5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1-5장단, <성창순 I> 중모리 제6-7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2-13장단·<김영철 II> 제9-10장단, <성창순 I> 중모리 제8-10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9-11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6-8장단, <성창순 I> 중모리 제11-17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4-20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11-17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3) 중중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 I>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 I>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성창순 I>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9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9
성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김 I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김 II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성 I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표 4-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 I> 중중모리 제1-16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16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1-16장단, <성창순 I> 중중모리 제17-34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9-36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19-34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2) 허희·강정숙 <김영철류>: <허희·강정숙>

허희·강정숙의 철현금산조 음원은 국악방송 소장의 음원이다. 강정숙에 따르면<sup>96)</sup> 강정숙의 30대 무렵 국립창극단에서 허희와 함께 근무하던 시절에 국립극장에서 연주한 것을 녹음한 음원이라고 한다.

총 18분 34초 분량의 음원으로,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장단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28장단으로 4분 45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36장단으로 5분 30초,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53장단으로 3분 53초, 네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118장단으로 4분 26초가 소요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 4-5]와 같다.

96) 강정숙 대담(관리번호 chg151015-6-강정숙).

[표 4-5] <허희·강정숙>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28	4분 45초
중모리	36	5분 30초
중중모리	53	3분 53초
자진모리	118	4분 26초
총 소요시간		18분 34초

## (1) 진양조

### ① 동일선율

<허희·강정숙>에 나타나는 산조의 진양조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93%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은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김 II			19											
허·강 <sup>97)</s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김 I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김 II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허·강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97) <허희·강정숙>.

[표 4-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허희·강정숙> 진양조 제3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19장단·<김영철 II> 제19장단, <허희·강정숙> 진양조 제4-14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20-30장단, <허희·강정숙> 진양조 제15-28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31-44장단·<김영철 II> 제41-54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허희·강정숙>의 상이선율은 제1-2장단까지 총 2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김영철 철현금산조에서 추가·확대된 선율로 추정할 수 있다. <허희·강정숙>의 진양조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보례 4-2]와 같다.

[보례 4-2] <허희·강정숙>의 진양조 추가·확대된 선율



[보례 4-2]의 상이 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유사한 선율을 발견할 수 있다. 허희와 강정숙은 판소리 명창으로 같은 민속악의 부류에 속하는 거문고산조에도 일가견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거문고산조의 선율이 철현금으로 모방 및 발전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 (2) 중모리

### ① 동일선율

<허희·강정숙>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허·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김 I	19	18	23	24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김 II	16	15	20	21	17	18	19	20	21	22	23	24						
허·강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표 4-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허희·강정숙> 중모리 제1-5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5장단.<김영철 II> 제1-5장단, <허희·강정숙> 중모리 제6-8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6-8장단, <허희·강정숙> 중모리 제9-20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9-19장단.<김영철 II> 제6-16장단, <허희·강정숙> 중모리 제21-30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20-27장단.<김영철 II> 제17-24장단, <허희·강정숙> 중모리 제31-36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28-33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3) 중중모리

#### ① 동일선율

<허희·강정숙>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8]과 같다.

[표 4-8]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허·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김 I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김 II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허·강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김 I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김 II																		
허·강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표 4-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허희·강정숙> 중중모리 제1-34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34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1-34장단, <허희·강정숙> 중중모리 제35-53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5-53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자진모리

##### ① 동일선율

<허희·강정숙>에 나타나는 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 <허희·강정숙>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허·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김 I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김 II	17	18	19	20	21	22	23	38	39	40	41	42	43	44	45	46
허·강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김 I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김 II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허·강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김 I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김 II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허·강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김 I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김 II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허·강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김 I	83	84	85	86	87	88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62	166	167
김 II	95	96	97	98	99	100	113	114		115	116	117	118			134
허·강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김 I	168	169	170	171	172	173	142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김 II	135	136	137	138	139	140										
허·강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김 I	189	190		194	196											
김 II			144			146										
허·강	113	114	115	116	117	118										

[표 4-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1-23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25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23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24-86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6-88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38-100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87-88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1-102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13-114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89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3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90-93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4-107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15-118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94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62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95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66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96-102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67-173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34-140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103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42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104-112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78-186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113-114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89-190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115장단은 <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44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116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94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117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96장단, <허희·강정숙> 자진모리 제118장단은 <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46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3) 안향련 <안향련-철현금산조>: <안향련>

<안향련> 음원은 『반락-그 남자의 음반이야기 김호성&양정환』<sup>98)</sup>에 수록되어있는 13분 16초 분량의 <안향련 철현금산조> 음원이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장단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24장단으로 3분 22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17장단으로 2분 13초,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34장단으로 1분 59초, 네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140장단으로 4분 34초, 다섯 번째 장단인 휘모리는 41장단으로 1분 8초가 소요된다.<sup>99)</sup> 정리하면 다음 [표 4-10]과 같다.

98) 『반락-그 남자의 음반이야기 김호성&양정환』,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의 집 KOUS, 2015년 5월 26일.

99) 음반해설서에는 총 소요시간만 기록되어 있어서 각 장단별로 측정하였다.

[표 4-10] <안향련>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24	3분 22초
중모리	17	2분 13초
중중모리	34	1분 59초
자진모리	140	4분 34초
휘모리	41	1분 8초
총 소요시간		13분 16초

## (1) 진양조

### ① 동일선율

<안향련>에 나타나는 산조의 진양조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96%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안향련>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은 다음 [표 4-11]과 같다.

[표 4-11] <안향련>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35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김 II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안 <sup>100)</s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김 I	49	50	51	52	53	54	55										
김 II	59	60	61	62	63	64	65										
안	18	19	20	21	22	23	24										



은 다음 [표 4-12]와 같다.

[표 4-12] <안향련>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표 4-1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안향련> 중모리 제1-5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5장단·<김영철 II> 제1-5장단, <안향련> 중모리 제6-17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9-20장단·<김영철 II> 제6-17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3) 중중모리

#### ① 동일선율

<안향련>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안향련>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13]과 같다.

[표 4-13] <안향련>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김 I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김 II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안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표 4-1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안향련> 중중모리 제1-34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34장단·<김영철 II> 제1-34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자진모리

##### ① 동일선율

<안향련>에 나타나는 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83%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안향련>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14]와 같다.

[표 4-14] <안향련>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김 I	19	20	21	22	23	24	25											
김 II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안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김 I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김 II	33	34	35	36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안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김 I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김 II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안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김 I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김 II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안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김 I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김 II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안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김 I	101		103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김 II	113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안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김 I	118	3,119	120	188	9											
김 II	129	1,130	131		7											
안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김 I																
김 II																
안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표 4-1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안향련> 자진모리 제1-23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25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23장단, <안향련> 자진모리 제24-36장단은 <김영철 II> 자진모리 제24-36장단, <안향련> 자진모리 제37-97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41-101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53-113장단, <안향련> 자진모리 제99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3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15장단, <안향련> 자진모리 제100-113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5-118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16-129장단, <안향련> 자진모리 제114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장단, 제119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장단, 제130장단, <안향련> 자진모리 제115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20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31장단, <안향련> 자진모리 제116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88장단, <안향련> 자진모리 제117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9장단·<김영철 II> 제7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안향련>의 상이선율은 제98장단, 제118-140장단까지 총 24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김영철 철현금산조에서 추가·확대된 선율로 추정할 수 있다. <안향련>의 자진모리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보례 4-4]와 같다.

[보례 4-4] <안향련>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보례 4-4]의 상이 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 및 가야금산조와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안향련은 앞서 언급했듯, 본인과 같은 민속악의 부류에 속하는 거문고산조 및 가야금산조에도 일가견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거문고산조 및 가야금산조의 선율이 철현금으로 모방 및 발전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 (5) 휘모리

### ① 상이선율

<안향련>에 나타나는 산조의 휘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에 나타나지 않는다. 철현금산조에서 휘모리 장단의 선율은 안향련의 음원이 유일하다. 이는 김영철 철현금산조에서 추가·확대된 선율로 추정할 수 있다. <안향련>의 휘모리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보례 4-5]와 같다.

[보례 4-5] <안향련>의 휘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41 measures across 10 staves. The melody is characterized by a mix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often beamed together, with some measures containing triplets. The scor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t measure 41.

[보례 4-5]의 선율을 살펴보면 신평동류 거문고산조의 휘모리 선율의 리듬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안향련은 앞서 언급했듯, 판소리 명창으로 같은 민속악의 부류에 속하는 거문고산조에도 일가견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거문고산조의 선율이 철현금으로 모방 및 발전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 4) 임경주 <철현금소리>: <임경주>

임경주 음반의 음원은 『가야금 명인 임경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에 수록된 9분 25초 분량의 <철현금 소리> 음원이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장단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10장단으로 2분 30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17장단으로 3분 4초,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21장단으로 1분 47초, 네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47장단으로 2분 4초가 소요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 4-15]와 같다.

[표 4-15] <임경주>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10	2분 30초
중모리	17	3분 4초
중중모리	21	1분 47초
자진모리	47	2분 4초
총 소요시간		9분 25초

## (1) 진양조

### ① 동일선율

<임경주>에 나타나는 산조의 진양조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은 다음 [표 4-16]과 같다.

[표 4-16]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19	20	21	22	23	24	25	26
김 II			38							
임 <sup>101)</sup>	1	2	3	4	5	6	7	8	9	10

[표 4-1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임경주> 진양조 제1-2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1-2장단, <임경주> 진양조 제3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19장단<김영철 II> 진양조 제38장단, <임경주> 진양조 제4-10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20-26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2) 중모리

### ① 동일선율

<임경주>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100%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17]과 같다.

---

101) <임경주>.

[표 4-17]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5	6	7	12	13	14	15	16	17	18	19	3	4		
김 II	1	2	5			9	10	11	12	13	14	15	16	3	4	24	27
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표 4-1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임경주> 중모리 제1-2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2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1-2장단, <임경주> 중모리 제3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5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5장단, <임경주> 중모리 제4-5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6-7장단, <임경주> 중모리 제6-13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2-19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9-16장단, <임경주> 중모리 제14-15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3-4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3-4장단, <임경주> 중모리 제16-17장단은 <김영철 II> 중모리 제24·27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3) 중중모리

#### ① 동일선율

<임경주>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100%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18]과 같다.

[표 4-18]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11	12	13	14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9	20
김 II	1	2	3	4	11	12	13	14	26	27	28	29	30	31	32	33	34				20
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표 4-1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임경주> 중중모리 제1-4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4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1-4장단, <임경주> 중중모리 제5-17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1-34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11-34장단, <임경주> 중중모리 제18-19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5-36장단, <임경주> 중중모리 제20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9장단, <임경주> 중중모리 제21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20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20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자진모리

##### ① 동일선율

<임경주>에 나타나는 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19]와 같다.

[표 4-19] <임경주>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01	102	103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3	114	
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 I	104	105	106	10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 II	115	116	117	118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김 I	39	40	41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5	180			
김 II	51	52	5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2				
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표 4-1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임경주> 자진모리 제1-12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14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12장단, <임경주> 자진모리 제13-19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1-107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13-118장단, <임경주> 자진모리 제20-33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8-41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40-53장단, <임경주> 자진모리 제34-42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67-180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34-142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5) 유경화 <김영철류 첼현금산조>: <유경화 I>

유경화 음반의 음원은 『공감-유경화의 첼현금』에 수록되어 있는 14분 58초 분량의 <김영철류 첼현금산조> 음원이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장단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28장단으로 6분 13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15장단으로 2분 33초,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40장단으로 3분 5초, 네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79장단으로 3분 7초가 소요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 4-20]과 같다.

[표 4-20] <유경화 I>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28	6분 13초
중모리	15	2분 33초
중중모리	40	3분 5초
자진모리	79	3분 7초
총 소요시간		14분 58초



## (1) 진양조

### ① 동일선율

<유경화 I>에 나타나는 산조의 진양조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 선율은 다음 [표 4-21]과 같다.

[표 4-21]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9	10	11	12	13	14	19	20	21	25
김 II											38			
유 I 1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김 I	53	54	55		41	42	43	44	47	48	49	63	64	65
김 II	26	27	28	29	31	32	33	34	37	38	39	53	54	55
유 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표 4-2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경화 I> 진양조 제1-4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1-4장단, <유경화 I> 진양조 제5-10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9-14장단, <유경화 I> 진양조 제11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19장단·<김영철 II> 진양조 제38장단, <유경화 I> 진양조 제12-13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20-21장단, <유경화 I> 진양조 제14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25장단, <유경화 I> 진양조 제15-17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53-55장단·<김영철 II> 진양조 제26-28장단, <유경화 I> 진양조 제18장단은 <김영철 II> 진양조 제29장단, <유경화 I> 진양조 제19-22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41-44장단·<김영철 II> 진양조 제31-34장단, <유경화 I> 진양조 제23-25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47-49장단·<김영철 II> 진

102) <유경화 I>.

양조 제37-39장단, <유경화 I> 진양조 제26-28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63-65장단·<김영철 II> 진양조 53-55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2) 중모리

### ① 동일선율

<유경화 I>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22]와 같다.

[표 4-22]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5	6	7	8	25	26	27	28	29	30	31	32	33
김 II	1	2	5				22	23	24						
유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4-2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경화 I> 중모리 제1-2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2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1-2장단, <유경화 I> 중모리 제3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5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5장단, <유경화 I> 중모리 제4-6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6-8장단, <유경화 I> 중모리 제7-9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25-27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22-24장단, <유경화 I> 중모리 제10-15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28-33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3) 중중모리

#### ① 동일선율

<유경화 I>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100%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23]과 같다.

[표 4-23]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9	20	26	27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9	20	26	27
유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김 I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9	10
김 II	28	29	30	31	32	33	34												9	10
유 I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표 4-2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경화 I> 중중모리 제1-16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16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1-16장단, <유경화 I> 중중모리 제17-18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9-20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19-20장단, <유경화 I> 중중모리 제19-27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26-34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26-34장단, <유경화 I> 중중모리 제28-38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5-45장단, <유경화 I> 중중모리 제39-40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9-10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9-10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3) 자진모리

#### ① 동일선율

<유경화 I>에 나타나는 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81%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24]와 같다.

[표 4-24] <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2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		
유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김 I	23	24	25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김 II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유 I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김 I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167	168	169	170	171		
김 II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134	135	136	137	138		
유 I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김 I	172	173	174	175	189	190																
김 II	139	140	141	142																		
유 I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표 4-2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경화 I> 자진모리 제1-14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16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14장단, <유경화 I> 자진모리 제17-19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7-19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5-17장단, <유경화 I> 자진모리 제20-23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2-25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20-23장단, <유경화 I> 자진모리 제24-55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42-73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54-85장단, <유경화 I> 자진모리 제56-64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67-175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134-142장단, <유경화 I> 자진모리 제65-66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89-190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유경화 I>의 상이선율은 제15-16장단, 제67-79장단까지 총 15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이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의 선율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유경화 I>의 자진모리에서 김영철 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보례 4-6]과 같다.

[보례 4-6] <유경화 I>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 6) 동금악회 <김영철류 칠현금산조>: <동금악회>

동금악회의 음원은 『천년지기 동금악회』에 수록되어 있는 7분 12초 분량의 <김영철류 칠현금산조> 음원이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장단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10장단으로 2분 28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9장단으로 1분 36초,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17장단으로

1분 24초, 네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36장단으로 1분 44초가 소요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 4-25]와 같다.

[표 4-25] <동금악회>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10	2분 28초
중모리	9	1분 36초
중중모리	17	1분 24초
자진모리	36	1분 44초
총 소요시간		7분 12초

## (1) 진양조

### ① 동일선율

<동금악회>에 나타나는 산조의 진양조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은 다음 [표 4-26]과 같다.

[표 4-26]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19	20	21	22	23	24	25	26
김 II			38							
동 <sup>103)</sup>	1	2	3	4	5	6	7	8	9	10

103) <동금악회>.

[표 4-2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금악회> 진양조 제1-2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1-2장단, <동금악회> 진양조 제3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19장단·<김영철 II> 진양조 제38장단, <동금악회> 진양조 제4-10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20-26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2) 중모리

### ① 동일선율

<동금악회>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27]과 같다.

[표 4-27]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5	6	11	12	13	14	15
김 II	1	2	5		8	9	10	11	12
동	1	2	3	4	5	6	7	8	9

[표 4-2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금악회> 중모리 제1-2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2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1-2장단, <동금악회> 중모리 제3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5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5장단, <동금악회> 중모리 제4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6장단, <동금악회> 중모리 제5-6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1-12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8-9장단, <동금악회> 중모리 제7-9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3-15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10-12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3) 중중모리

#### ① 동일선율

<동금악회>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28]과 같다.

[표 4-28]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11	12	13	14	26	27	28	29	30	31	32	33	34
김 II	1	2	3	4	11	12	13	14	26	27	28	29	30	31	32	33	34
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표 4-2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금악회> 중중모리 제1-4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4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1-4장단, <동금악회> 중중모리 제5-8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1-14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11-14장단, <동금악회> 중중모리 제9-17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26-34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26-34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자진모리

#### ① 동일선율

<동금악회>에 나타나는 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78%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29]와 같다.

[표 4-29] <동금악회>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01	102	103	104	105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3	114		115	116
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김 I	106	107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89						
김 II	117	118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동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36					

[표 4-2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금악회> 자진모리 제1-12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14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12장단, <동금악회> 자진모리 제13-14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1-102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13-114장단, <동금악회> 자진모리 제15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3장단, <동금악회> 자진모리 제16-19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4-107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15-118장단, <동금악회> 자진모리 제20-27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67-174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34-141장단, <동금악회> 자진모리 제28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89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동금악회>의 상이선율은 제29-36장단까지 총 8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진모리의 맺음 가락으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서 추가·확대된 선율로 추정할 수 있다. <동금악회>의 자진모리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보례 4-7]과 같다.

[보례 4-7] <동금악회>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보례 4-7]의 상이 선율을 살펴보면 민속악의 시나위의 선율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동금악회의 대표인 차은경은 민속악에 능한 거문고 연주자이다. 따라서 산조 시나위의 선율이 철현금으로 모방 및 발전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 7) 성창순 <명인 성창순 철현금 짧은산조>: <성창순Ⅱ>

성창순 짧은산조 국악방송 음원은 국악방송에서 녹음된 2014 새음원시리즈에 수록되어 있는 15분 58초 분량의 <명인 성창순 철현금 짧은산조> 음원이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장단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31장단으로 5분 24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33장단으로 5분 15초, 세 번째 악장인 굿거리는 29장단으로 1분 45초, 네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84장단으로 3분 34초가 소요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 4-30]과 같다.

[표 4-30] <성창순Ⅱ>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31	5분 24초
중모리	33	5분 15초
굿거리	29	1분 45초
자진모리	84	3분 34초
총 소요시간		15분 58초

### (1) 진양조

#### ① 동일선율

<성창순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진양조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 선율은 다음 [표 4-31]과 같다.

[표 4-31]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김 II																
성 II <sup>104)</s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김 I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김 II			19												31	
성 II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4) <성창순Ⅱ>.

[표 4-3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Ⅱ> 진양조 제1-18장단은 <김영철Ⅰ> 진양조 제1-18장단, <성창순Ⅱ> 진양조 제19장단은 <김영철Ⅰ> 진양조 제19장단·<김영철Ⅱ> 진양조 제19장단, <성창순Ⅱ> 진양조 제20-30장단은 <김영철Ⅰ> 진양조 제20-30장단, <성창순Ⅱ> 진양조 제31장단은 <김영철Ⅰ> 진양조 제31장단·<김영철Ⅱ> 진양조 제31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2) 중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32]와 같다.

[표 4-32]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김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성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김Ⅰ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김Ⅱ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성Ⅱ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표 4-3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Ⅱ> 중모리 제1-5장단은 <김영철Ⅰ> 중모리 제1-5장단·<김영철Ⅱ> 중모리 제1-5장단, <성창순Ⅱ> 중모리 제6-8장단은 <김영철Ⅰ> 중모리 제6-8장단, <성창순Ⅱ> 중모리 제9-27장단은 <김영철Ⅰ> 중모리 제9-27장단·<김영철Ⅱ> 중모리 제6-24장단, <성창순Ⅱ> 중모리 제28-33장단은 <김영철Ⅰ> 중모리 제28-33장단과 선

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3) 굿거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굿거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굿거리 동일 선율은 다음 [표 4-33]과 같다.

[표 4-33]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굿거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 II															
성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 I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김 II															
성 II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표 4-3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Ⅱ> 굿거리 제1-29장단은 <김영철 I> 굿거리 제1-29장단·<김영철Ⅱ> 굿거리 제1-29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자진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100%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34]와 같다.

[표 4-34] <성창순Ⅱ>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3	4	5	6	7	8	9	26	27	28	29	30	31	32	33	34
김 II		1	2	3	4	5	6	7	38	39	40	41	42	43	44	45	46
성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김 I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김 II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성 II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김 I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101	102	103	104
김 II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113	114		115
성 II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김 I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김 II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성 II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김 I	122	123	124	13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90	192	189	190	191
김 II		133															
성 II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표 4-3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1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2-8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9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7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9-47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6-64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38-76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48-49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1-102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13-114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50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3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51-68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04-121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15-132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69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22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70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23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33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71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24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72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37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73-80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168-175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81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190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82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192장단, <성창순Ⅱ> 자진모리 제83-85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189-191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8) 성창순 <명인 성창순 철현금 긴산조>: <성창순Ⅲ>

성창순 긴산조 국악방송 음원은 국악방송에서 녹음된 2014 새음원시리즈에 수록되어 있는 31분 47초 분량의 <명인 성창순 철현금 긴산조> 음원이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장단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84장단으로 14분 31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36장단으로 5분 46초,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53장단으로 4분 8초, 네 번째 악장인 굿거리는 29장단으로 1분 57초, 다섯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127장단으로 5분 25초가 소요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 4-35]와 같다.

[표 4-35] <성창순Ⅲ>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84	14분 31초
중모리	36	5분 46초
중중모리	53	4분 8초
굿거리	29	1분 57초
자진모리	127	5분 25초
총 소요시간		31분 47초

## (1) 진양조

### ① 동일선율

<성창순Ⅲ>에 나타나는 산조의 진양조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69%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 선율은 다음 [표 4-36]과 같다.

[표 4-36]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4	15	21	22		23	24		25	26
성Ⅲ <sup>105)</s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김 I																					
김 II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성Ⅲ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김 I																					
김 II	46	47	48	49	50	51															
성Ⅲ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김 I			34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김 II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성Ⅲ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표 4-3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Ⅲ> 진양조 제1-11장단은 <김영철Ⅱ> 진양조 제1-11장단, <성창순Ⅲ> 진양조 제12-13장단은 <김영철Ⅱ> 진양조 제14-15장단, <성창순Ⅲ> 진양조 제14-15장단은 <김영철Ⅱ> 진양조 제21-22장단, <성창순Ⅲ> 진양조 제17-18장단은 <김영철Ⅱ> 진양

105) <성창순Ⅲ>.



조 제23-24장단, <성창순Ⅲ> 진양조 제20-25장단은 <김영철Ⅱ> 진양조 제25-30장단, <성창순Ⅲ> 진양조 제29-48장단은 <김영철Ⅱ> 진양조 제32-51장단, <성창순Ⅲ> 진양조 제66장단은 <김영철Ⅰ> 진양조 제34장단, <성창순Ⅲ> 진양조 제71-84장단은 <김영철Ⅰ> 진양조 제42-55장단·<김영철Ⅱ> 진양조 제52-65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성창순Ⅲ>의 상이선율은 제16장단, 제19장단, 제26-28장단, 제49-65장단, 제67-70장단까지 총 26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이 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의 선율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성창순Ⅲ>의 진양조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보례 4-8]과 같다.

[보례 4-8] <성창순Ⅲ>의 진양조 추가·확대된 선율





## (2) 중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Ⅲ>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3%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

율은 다음 [표 4-37]과 같다.

[표 4-37]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김 II	1	
성Ⅲ	1	2-36

[표 4-3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Ⅲ> 중모리 제1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1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성창순Ⅲ>의 상이선율은 제2-36장단까지 총 35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이 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의 선율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성창순Ⅲ>의 중모리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보례 4-9]와 같다.

[보례 4-9] <성창순Ⅲ>의 중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3) 중중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Ⅲ>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38]과 같다.

[표 4-38]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성Ⅲ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김 I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김 II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성Ⅲ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김 I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김 II																		
성Ⅲ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표 4-3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Ⅲ> 중중모리 제1-34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34장단·<김영철 II> 중중모리 제1-34장단, <성창순Ⅲ> 중중모리 제35-53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5-53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굿거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Ⅲ>에 나타나는 산조의 굿거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굿거리 동일 선율은 다음 [표 4-39]와 같다.

[표 4-39]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굿거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 II															
성Ⅲ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 I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김 II															
성Ⅲ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표 4-3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Ⅲ> 굿거리 제1-29장단은 <김영철 I> 굿거리 제1-29장단·<김영철Ⅱ> 굿거리 제1-29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5) 자진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Ⅲ>에 나타나는 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100%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40]과 같다.

[표 4-40] <성창순Ⅲ>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김 II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성I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김 I	21	22	23	157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 II	19	20	21		22	23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성III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 I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김 II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성III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김 I	58	59	60	61	62	63	64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김 II	70	71	72	73	74	75	76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성III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김 I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김 II	98	99	98	99																
성III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김 I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9	120	167	45	168	169	
김 II																134	57	135	136	
성III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김 I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89	190	191									
김 II	137	138	139	140	141	142	14					145	146							
성III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표 4-4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1-22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23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21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23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57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24-25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4-25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22-23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26-64장단은 <김영철 I> 자

진모리 제26-64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38-76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65-78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74-87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86-99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79-108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88-117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109-110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119-120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111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167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34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112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45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57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113-119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168-174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35-141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120-122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175-177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42-14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123-125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189-191장단, <성창순Ⅲ> 자진모리 제126-127장단은 <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45-146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9) 유경화 <김영철류 산조가락>: <유경화Ⅱ>

유경화 국악방송 음원은 국악방송에서 녹음된 2014 새음원시리즈 『유경화 첼현금산조』에 수록되어 있는 45분 13초 분량의 <김영철류 산조가락> 음원이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장단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115장단으로 20분 33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68장단으로 11분, 세 번째 악장인 중중모리는 53장단으로 3분 58초, 네 번째 악장인 굿거리는 29장단으로 1분 45초, 다섯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212장단으로 7분 57초가 소요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 4-41]과 같다.



[표 4-41] <유경화Ⅱ>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115	20분 33초
중모리	68	11분 0초
중중모리	53	3분 58초
굿거리	29	1분 45초
자진모리	212	7분 57초
총 소요시간		45분 13초

### (1) 진양조

#### ① 동일선율

<유경화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진양조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71%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은 다음 [표 4-42]와 같다.

[표 4-42]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4	15	21	22				
유 II <sup>106)</s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김 I																			
김 II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유 II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06) <유경화Ⅱ>.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김 II																				
유 II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김 I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 II																				
유 II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김 I	39	40	41																	
김 II																				
유 II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김 I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김 II	43	44																		
유 II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표 4-4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경화II> 진양조 제1-11장단은 <김영철II> 진양조 제1-11장단, <유경화II> 진양조 제12-13장단은 <김영철II> 진양조 제14-15장단, <유경화II> 진양조 제14-15장단은 <김영철II> 진양조 제21-22장단, <유경화II> 진양조 제29-38장단은 <김영철II> 진양조 제32-41장단, <유경화II> 진양조 제39-79장단은 <김영철I> 진양조 제1-41장단, <유경화II> 진양조 제96-97장단은 <김영철II> 진양조 제43-44장단, <유경화II> 진양조 제102-115장단은 <김영철I> 진양조 제42-55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유경화II>의 상이선율은 제16-28장단, 제80-95장단, 제98-101장단까지 총 33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이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의 선율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유경화II>의 중모리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성창순III>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보례는 생략하겠다.

## (2) 중모리

### ① 동일선율

<유경화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49%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 선율은 다음 [표 4-43]과 같다.

[표 4-43]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김 II																	
유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김 I																	
김 II																	
유 II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김 II																	
유 II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김 I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김 II																	
유 II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표 4-4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경화Ⅱ> 중모리 제36-68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33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유경화Ⅱ>의 상이선율은 제1-35장단까지 총 35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이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의 선율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유경화Ⅱ>의 중모리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성창순Ⅲ>의 경우와 거

의 일치하므로 보례는 생략하겠다. 다만 <성창순Ⅲ> 중모리 제11장단은 <유경화Ⅱ> 중모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성창순Ⅲ> 중모리의 상이선율은 총 36장단으로, <유경화Ⅱ> 중모리 상이선율보다 1개 장단이 더 많다.

### (3) 중중모리

#### ① 동일선율

<유경화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44]와 같다.

[표 4-44]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유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김 I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김 II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유 II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김 I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김 II																		
유 II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표 4-4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경화Ⅱ> 중중모리 제1-34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34장단·<김영철Ⅱ> 중중모리 제1-34장단, <유경화Ⅱ> 중중모리 제35-53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35-53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곳거리

##### ① 동일선율

<유경화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곳거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곳거리 동일 선율은 다음 [표 4-45]와 같다.

[표 4-45]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곳거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Ⅱ															
유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 I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김Ⅱ															
유Ⅱ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표 4-4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경화Ⅱ> 곳거리 제1-29장단은 <김영철 I> 곳거리 제1-29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5) 자진모리

##### ① 동일선율

<유경화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88%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46]과 같다.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유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김 I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김 II	22	23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유 II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김 I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김 II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유 II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김 I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김 II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유 II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김 I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김 II	99																							
유 II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김 I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김 II																								
유 II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김 I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김 II																								
유 II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김 I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김 II																								
유 II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김 I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김 II																								
유 II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표 4-4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경화Ⅱ> 자진모리 제1-23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3-25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23장단, <유경화Ⅱ> 자진모리 제24-25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26-27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38-39장단, <유경화Ⅱ> 자진모리 제26-85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28-87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40-99장단, <유경화Ⅱ> 자진모리 제86-163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88-165장단, <유경화Ⅱ> 자진모리 제177-199장단은 <김영철Ⅰ> 자진모리 제167-189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유경화Ⅱ>의 상이선율은 제164-176장단, 제200-212장단까지 총 26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이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의 선율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유경화Ⅱ>의 자진모리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보례 4-10]과 같다.

[보례 4-10] <유경화Ⅱ>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 10) 성창순·유경화 <김영철류 철현금 짧은산조>: <성창순·유경화 I >

성창순·유경화 짧은산조 국악방송 음원은 2015 새음원시리즈 『성창순·유경화 철현금산조 병주』에 수록되어 있는 9분 40초 분량의 음원이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장단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10장단으로 2분 5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8장단으로 1분 20초, 세 번째 악장인 굿거리는 30장단으로 1분 53초, 네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100장단으로 4분 22초가 소요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 4-47]과 같다.

[표 4-47] <성창순·유경화 I >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10	2분 5초
중모리	8	1분 20초
굿거리	30	1분 53초
자진모리	100	4분 22초
총 소요시간		9분 40초



## (1) 진양조

### ① 동일선율

<성창순·유경화 I>에 나타나는 산조의 진양조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은 다음 [표 4-48]과 같다.

[표 4-48] <성창순·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9	10	11	12	13	14
김 II										
성·유 I 107)	1	2	3	4	5	6	7	8	9	10

[표 4-4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유경화 I> 진양조 제1-4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1-4장단, <성창순·유경화 I> 진양조 제5-10장단은 <김영철 I> 진양조 제9-14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2) 중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유경화 I>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49]와 같다.

---

107) <성창순·유경화 I>.

[표 4-49] <성창순·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김 II	1	2	3	4	5			
성·유 I	1	2	3	4	5	6	7	8

[표 4-4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유경화 I> 중모리 제1-5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1-5장단·<김영철 II> 중모리 제1-5장단, <성창순·유경화 I> 중모리 제6-8장단은 <김영철 I> 중모리 제6-8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3) 중중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유경화 I>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50]과 같다.

[표 4-50] <성창순·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중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성·유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 I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김 II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성·유 I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표 4-5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유경화 I> 중중모리 제1-29장단은 <김영철 I> 중중모리 제1-29장단·<김영철Ⅱ> 중중모리 제1-29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자진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유경화 I>에 나타나는 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51]과 같다.

[표 4-51] <성창순·유경화 I>과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3	4	5	6	7	8	9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김 II		1	2	3	4	5	6	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성·유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김 I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김 II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성·유 I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김 I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김 II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성·유 I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김 I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김 II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성·유 I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김 I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김 II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성·유 I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표 4-5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유경화 I> 자진모리 제1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장단, <성창순·유경화 I> 자진모리 제2-8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9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7장단, <성창순·유경화 I> 자진모리 제9-71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6-88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38-100장단, <성창순·유경화 I> 자진모리 제83장단은 <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66장단, <성창순·유경화 I> 자진모리 제84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34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67장단, <성창순·유경화 I> 자진모리 제86-93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35-142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68-175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성창순·유경화 I>의 상이선율은 제72-82장단, 제85장단, 제94-101장단까지 총 20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이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 산조와 가야금산조의 선율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성창순·유경화 I>의 자진모리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보례 4-11]과 같다.

[보례 4-11] <성창순·유경화 I>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 11) 성창순·유경화 <김영철류 철현금 진양조>: <성창순·유경화Ⅱ>

성창순·유경화 진양조 국악방송 음원은 2015 새음원시리즈 『성창순·유경화 철현금산조 병주』에 수록되어 있는 28분 1초 분량의 음원이다.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양조, 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의 순서로 되어있다. 각 장단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악장인 진양조는 84장단으로 15분 9초, 두 번째 악장인 중모리는 36장단으로 5분 56초, 세 번째 악장인 굿거리는 30장단으로 1분 50초, 네 번째 악장인 자진모리는 117장단으로 5분 6초가 소요된다. 정리하면 다음 [표 4-52]와 같다.

[표 4-52] <성창순·유경화Ⅱ>의 장단구성 및 소요시간

장단	장단 수	소요시간
진양조	84	15분 9초
중모리	36	5분 56초
굿거리	30	1분 50초
자진모리	117	5분 6초
총 소요시간		28분 1초

## (1) 진양조

### ① 동일선율

<성창순·유경화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진양조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60%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은 다음 [표 4-53]과 같다.

[표 4-53]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진양조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4	15	21	22						
성·유Ⅱ <sup>108)</s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김 I																					
김 II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성·유Ⅱ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김 I																					
김 II	46	47	48	49	50	51															
성·유Ⅱ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김 I			34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김 II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성·유Ⅱ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표 4-5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유경화Ⅱ> 진양조 제1-11장단은 <김영철Ⅱ> 진양조 제1-11장단, <성창순·유경화Ⅱ> 진양조 제12-13장단은 <김영철Ⅱ> 진양조 제14-15장단, <성창순·유경화Ⅱ> 진양조 제14-15장단은 <김영철Ⅱ> 진양조 제21-22장단, <성창순·유경화Ⅱ> 진양조 제29-48장단은 <김영철Ⅱ> 진양조 제32-51장단, <성창순·유경화Ⅱ> 진양조 제66장단은 <김영철Ⅰ> 진양조 제34장단, <성창순·유경화Ⅱ> 진양조 제71-84장단은 <김영철Ⅰ> 진양조 제42-55장단·<김영철Ⅱ> 제52-65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108) <성창순·유경화Ⅱ>.

## ② 상이선율

<성창순·유경화Ⅱ>의 상이선율은 제16-28장단, 제49-65장단, 제67-70장단까지 총 34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이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의 선율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성창순·유경화Ⅱ>의 진양조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성창순Ⅲ>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보례는 생략하겠다.

## (2) 중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유경화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중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3%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54]와 같다.

[표 4-54]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중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Ⅰ	1	
김Ⅱ	1	
성·유Ⅱ	1	2-36

[표 4-5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유경화Ⅱ> 중모리 제1장단은 <김영철Ⅰ> 중모리 제1장단·<김영철Ⅱ> 중모리 제1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성창순·유경화Ⅱ>의 상이선율은 제2-36장단까지 총 35장단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 상이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의 선율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성창순·유경화Ⅱ>의 중모리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성창순Ⅲ>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보례는 생략하겠다.

### (3) 굿거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유경화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굿거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선율의 진행이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굿거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55]와 같다.

[표 4-55]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굿거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 II															
성·유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 I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김 II															
성·유Ⅱ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표 4-5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유경화Ⅱ> 굿거리 제1-29장단은 <김영철 I> 굿거리 제1-29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자진모리

#### ① 동일선율

<성창순·유경화Ⅱ>에 나타나는 산조의 자진모리 선율은 김영철의 산조와



83%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은 다음 [표 4-56]와 같다.

[표 4-56] <성창순·유경화Ⅱ>와 김영철 산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연주자	동일선율																					
김 I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김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성·유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김 I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김 II	21	22	23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성·유Ⅱ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김 I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김 II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성·유Ⅱ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김 I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김 II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성·유Ⅱ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김 I	83	84	85	86	87															167		
김 II	95	96	97	98	99															134		
성·유Ⅱ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김 I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89											
김 II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													
성·유Ⅱ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표 4-5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창순·유경화Ⅱ> 자진모리 제1-23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3-25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23장단, <성창순·유경화Ⅱ> 자진모리 제24-85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26-87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38-99장단, <성창순·유경화Ⅱ> 자진모리 제99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67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34장단, <성창순·유경화Ⅱ> 자진모리 제101-108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68-175장단·<김영철Ⅱ> 자진모리 제135-142장단, <성창순·유경화Ⅱ> 자

진모리 제109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76장단·<김영철 II> 자진모리 제14장단, <성창순·유경화 II> 자진모리 제110-111장단은 <김영철 I> 자진모리 제177·189장단과 선율의 진행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상이선율

<성창순·유경화 II>의 상이선율은 제86-98장단, 제100장단, 제112-117장단까지 총 20장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이선율을 살펴보면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의 선율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성창순·유경화 II>의 자진모리에서 김영철 철현금산조에 나타나지 않는 선율이 추가·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보례 4-12]와 같다.

[보례 4-12] <성창순·유경화 II>의 자진모리 추가·확대된 선율

The musical score is presented in a single system with multiple staves. The first staff starts at measure 86 and continues through measures 90, 94, and 98. The second staff begins at measure 100. The third staff starts at measure 112 and continues through measure 116, where it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bar lines, all within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 3. 소결론

철현금산조의 전승은 현재 제3세대까지 이루어졌다. 각각의 전수자들이 연주하는 철현금산조는 대체로 김영철의 선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추가 및 확대된 선율을 살펴보면, 김영철의 산조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을 뿐 대동소이한 형태의 선율이다.

유경화는 성창순과 임경주에게 전수받았는데, 음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전수받은 선율에 유경화 본인이 추가한 선율이 전수자 가운데 가장 많다. 즉, 현재 가장 많은 가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향련의 경우, 휘모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김영철 이후 철현금산조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유일한 사례에 속한다. 이는 철현금산조의 휘모리 부분이 안향련의 자작임을 시사한다. 또한 철현금산조의 휘모리가 오직 안향련의 연주에서만 발견될 뿐 안향련을 제외한 여타의 연주자에게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대된 휘모리가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회적으로 끝났음을 말해준다. 기존 다른 악기들의 산조 전승 및 발전 과정에 비춰볼 때, 이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철현금산조는 본래 20여 분의 짧은 것만 있었으나, 후대에 성창순과 유경화에 의해 긴산조가 연주되었다. 이는 김영철이 남긴 두 바탕의 철현금산조 선율을 합쳐서 연주한 산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긴산조의 중모리에서 독자적인 가락이 나오는데, 이는 기존의 거문고산조 및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거문고와 가야금산조로부터 영향을 받아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 V. 결론

철현금은 1943년경 김영철이 기타를 개량하여 만든 악기이다. 김영철은 새로운 악기와 함께 철현금산조를 선보이며 산조음악의 다양화에 기여했다. 또한 김영철의 철현금산조는 후학에게 전수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김영철은 새로운 악기의 제작자이면서 연주자요, 작곡가인 동시에 교육자였다. 현재 철현금산조의 전승은 3대에 이르고 있고, 그 전승 과정에서 선율 역시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철현금은 산조 외에 다양한 장르의 악곡의 연주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철현금은 향후 국악기로서의 입지가 보다 공고해지리라 기대된다. 한때 외래악기였으나 민족악기로 거듭난 해금이나 아쟁, 향피리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외래악기를 개량하여 새롭게 탄생된 철현금 역시 우리의 정서를 담아내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요 국악기의 하나로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현금의 탄생과 동시에 출범한 철현금산조가 철현금으로 연주한 최초의 음악이라는 점에서, 그 형성 배경과 이후의 전승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악기로서의 철현금의 위치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현전 음원자료와 전수자 및 관련자들과의 대담을 통하여 관련사실을 확보한 뒤 그것들을 분석적으로 조망하여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김영철 철현금산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유사선율이 거문고산조나 가야금산조에서도 산견(散見)되고 있어 주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거문고산조나 가야금산조가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형성에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먼저 김영철 철현금산조를 음악적으로 분석한 뒤, 그것들을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 가운데 유사선율과 상호 비교하여 그것들이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형성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런 뒤에 김영철 이후 여러 전수자들에 의해 연주되어 온 산조들의 선율을

살펴 철현금산조의 전개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철 철현금산조는 현재 두 바탕의 음원이 전한다. 첫째 바탕은 아세아레코드사에서 출판한 LP 『산조-철현금·아쟁』이고, 둘째 바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출판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23 산조』이다. 두 음원을 음악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첫째 바탕 가운데 총 55장단으로 이루어진 진양조는 c청 계면조 →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b<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f청 계면조 → c청 계면조로 총 10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33장단으로 이루어진 중모리는 전 장단이 공허 c청 계면조로 확인되었다. 총 53장단으로 이루어진 중중모리는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로 총 2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29장단으로 이루어진 굿거리의 c청 계면조 → c청 우조 → c청 평조 → c청 우조로 총 3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196장단으로 이루어진 자진모리는 c청 계면조 → f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로 총 8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바탕 가운데 총 65장단으로 이루어진 진양조는 a청 우조 → d청 계면조 → d청 계면조(엇청) → d청 계면조 →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c청 우조 → c청 계면조 → g청 계면조 →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 → f청 계면조 → c청 계면조로 총 13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24장단으로 이루어진 중모리는 전 장단이 공허 c청 계면조로 확인되었다. 총 34장단으로 이루어진 중중모리는 c청 계면조 → e<sup>b</sup>청 우조 → c청 계면조로 총 2회에 걸쳐 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146장단으로 이루어진 자진모리는 전 장단이 공허 c청 계면조로 확인되었다.

두 바탕 산조에서 나타난 철현금산조의 특징적인 표현은 개방현을 이용한

시김새, 동시에 같은 음을 여러 줄에서 연주하는 표현, 여음선율, 동일한 음을 각기 다른 현에서 연주하는 표현 등이 발견되었다. 이 표현은 철현금만의 특징적인 연주기법으로 철현금산조의 독특한 음색을 부각시킨다.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선율의 장단 수를 알아보기 위해 김영철 철현금산조 두 바탕의 동이(同異)선율을 파악하였다. 먼저 진양조는 첫째 바탕과 둘째 바탕의 공통선율 총 26장단과 첫째 바탕에만 등장하는 선율 총 29장단, 둘째 바탕에만 등장하는 선율 총 39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진양조 선율은 총 94장단으로 나타났다. 중모리의 경우 첫째 바탕과 둘째 바탕의 공통선율 총 24장단과 첫째 바탕에만 등장하는 선율 총 9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중모리 선율은 총 33장단으로 나타났다. 중중모리는 첫째 바탕과 둘째 바탕의 공통선율 총 34장단과 첫째 바탕에만 등장하는 선율 총 19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중중모리 선율은 총 53장단으로 나타났다. 굿거리는 첫째 바탕에만 등장하는 선율 총 29장단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모리는 첫째 바탕과 둘째 바탕의 공통선율 총 124장단과 첫째 바탕에만 등장하는 선율 총 72장단, 둘째 바탕에만 등장하는 선율 총 22장단을 합하면,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자진모리 선율은 총 218장단으로 나타났다. 즉, 김영철에 의해 형성된 철현금산조의 장단 수는 진양조 94장단, 중모리 33장단, 중중모리 53장단, 굿거리 29장단, 자진모리 218장단이다.

둘째, 두 바탕의 김영철 철현금산조에는, 거문고산조의 영향을 받은 선율과 가야금산조의 영향을 받은 선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첫째 바탕의 진양조 선율 55장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은 총 45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80% 유사하고, 중모리 선율 33장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은 총 21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64% 유사하며 자진모리 선율 196장단과 유사한 거문고산조의 선율은 총 71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36% 유사하다. 둘째 바탕의 진양조 선율 65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은 총 42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65% 유사하고, 중모리 선율 24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

울은 총 6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25% 유사하며 중중모리 선율 34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은 총 3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9% 유사하다.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굿거리는, 거문고산조와 유사선율이 많은 첫째 바탕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문고산조보다는 가야금산조와 유사한 가락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가야금산조와 비교해 본 결과 첫째 바탕의 굿거리 선율 29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은 총 10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35% 유사하다. 둘째 바탕 자진모리 선율 146장단과 유사한 가야금산조의 선율은 총 46장단으로 전체 선율에서 32% 유사하다. 단, 기존의 선율이 철현금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됨으로써 철현금산조만의 특징이 조성되었다. 예컨대 가야금산조로부터 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율의 경우, 가야금으로만 연출 가능한 연퉁김 등의 주법이 단순화되어 여음 처리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문고산조로부터 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율 역시 가야금산조에서 유래된 부분과 같이 단순화되어 여음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문고산조 선율로부터 철현금산조 선율로의 변환 결과에서는 원래의 선율인 거문고 가락으로부터 큰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야금산조의 그것에 비하여 원래의 선율인 거문고산조의 선율과 보다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철현금산조의 전승은 현재 3세대까지 이루어졌다. 각각의 전수자들이 연주하는 철현금산조는 대체로 김영철의 선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안향련이 연주한 산조에서는 휘모리가 추가됐는데 이는 김영철 이후 철현금산조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사례에 속한다. 이는 철현금산조의 휘모리 부분이 안향련의 자작임을 시사한다. 또한 철현금산조의 휘모리가 오직 안향련의 연주에서만 발견될 뿐 안향련을 제외한 여타의 연주자에게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대된 휘모리가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회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한다. 기존 다른 악기들의 산조 전승 및 발전 과정에 비춰볼 때, 이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철현금산조는 본래 20여 분의 짧은 것만 있었으나, 후대에 성장순과 유경

화에 의해 긴산조가 연주되었다. 이는 김영철이 남긴 두 바탕의 철현금산조 선율을 합쳐서 연주한 산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긴산조의 중모리에서 독자적인 가락이 나오는데, 이는 기존의 거문고 및 가야금산조의 선율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거문고산조와 가야금산조로부터 영향을 받아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철현금으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음악은 시대의 감성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감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음색으로 연주할 수 있는 철현금과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철현금산조의 전승에 필요한 철현금의 구음연구 등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김기수, 『국악입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3.
- 김영운,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2015.
- 김우진, 『한국음악학 연구 방법론』, 서울: 민속원, 2015.
- 김해숙, 『산조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 \_\_\_\_\_, 『한국산조학회논문집: 산조와 한국음악』 제2집, 서울: 도서출판어울림, 2005.
- 김해숙·백대웅·최태현, 『전통음악개론』, 서울: 도서출판어울림, 1996.
- 김혜정, 『판소리 음악론』, 서울: 민속원, 2009.
- 문재숙, 『죽파 가야금곡집』, 서울: 세광아트, 1989.
- 박황, 『판소리 이백년사』, 서울: 사사연, 1997.
- 백대웅, 『한국전통음악분석론』, 서울: 어울림, 2003.
- 부천역사연구소 출판부, 『부천인물인명사전』, 부천: 부천역사연구소 출판부, 1993.
- 성현 등, 『악학궤범』, 1493.
- 심우성, 『줄타기』, 서울: 화산문화, 2000.
- 양병곤, 『프라트(Praat)를 이용한 음성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만수출판사, 2010.
- 양승희, 『산조의 창시자 악성 김창조』, 광주: 도서출판 키프로세스, 2004.
- 이재숙, 『가야금산조 여섯바탕』, 서울: 은하출판사, 2008.
- 장사훈·한만영 공저, 『국악개론』, 서울: 한국국악학회, 1975.
- 전경옥, 『한국전통연희사전』, 서울: 민속원, 2014.

- \_\_\_\_\_, 『한국의 전통연희』, 서울: 학고재, 2004.
- 정달영, 『가야금산조, 병창』, 서울: 삼원정보미디어, 1995.
- 정대석, 『거문고산조 세바탕』, 서울: 은하출판사, 2003.
- 정화순, 『거문고산조』,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89.
- 최태현, 『구성요소로 보는 국악곡』,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3.
- 허옥인, 『진도속요와 보존』, 진도: 진도민요보존회, 1986.

## 2. 간행물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전통음악 자료 분류법(행정간행물 등록번호 28800-86864-56-19)』,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6.
-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천문화원 향토자료집 21-부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2013 연구자료 “다시 찾은 부천인물”』, 부천: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3.

## 3. 논문

- 김미경, “김영철의 철현금 제작과 산조연주에 관한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수연, “한국 기타산조의 역사적 전개과정”, 『한국악기학』 제10호, 서울: 한국통소연구회, 2013.
- 김우진, “백낙준의 생애”, 『한국음악사학보』 제35집,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 2005.
- 박환영, “박종기 대금산조의 형성과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보형, “한국민속음악 장단의 대강박, 박, 분박에 대한 전통기보론적 고찰”, 『국악원논문집』 제4집, 서울: 국립국악원, 1992.
- \_\_\_\_\_, “리듬형의 구조와 그 구성에 의한 장단분류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3집, 한국국악학회, 1995.
- \_\_\_\_\_,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 제39집 189-235쪽, 한국국악학회, 2006.
- \_\_\_\_\_, “수궁가 고고천변 대목의 더늠과 3명창 3조”, 『한국음악반학』 제24권, 한국고음악연구회, 2014.
- 이진원, “가야금, 산조와 만나다”, 『산조와 한국음악IV』, 서울: (사)한국산조학회, 2007.
- 정대석, “신쾌동·한갑득 거문고산조의 공통선율에 나타난 표현법 연구”, 용인: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선이, “정대석류 거문고산조에 관한 연구 : 진양조를 중심으로”, 충북: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화순, “북청사자놀음의 통소와 그 음악에 관한 연구”, 『중앙음악』 제10호, 중앙대학교, 1993.
- 황준연, “전통음악의 악조”, 『國樂院論文集』 제5집, 서울: 국립국악원, 1993.

#### 4. 신문자료

- 『매일경제』 1982년 4월 24일 기사.
- 『경향신문』 1988년 5월 4일 기사.

『연합뉴스』 1993년 4월 9일 기사.  
 『한국일보』 2003년 7월 8일 기사.  
 『경향신문』 2005년 5월 25일 기사.  
 『연합뉴스』 2006년 6월 23일 기사.  
 『세계일보』 2007년 10월 19일 기사.  
 『동아일보』 2009년 5월 5일 기사.  
 『경인일보』 2010년 7월 8일 기사.  
 『연합뉴스』 2011년 8월 22일 기사.  
 『광주일보』 2013년 9월 24일 기사.  
 『국제신문』 2013년 11월 15일 기사.  
 『광주일보』 2015년 9월 2일 기사.  
 『연합뉴스』 2015년 10월 13일 기사.

## 5. 음향자료

김영동, 『바람의 소리』, 웅진뮤직, 1999.  
 김영철,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ALS-505(1LP), 1978.  
 \_\_\_\_\_,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성창순, 『2014 새음원시리즈-명인 성창순 철현금산조』, 국악방송, 2014.  
 성창순·유경화, 『2015 새음원시리즈-성창순·유경화 철현금산조 병주』, 국악방송, 2015.  
 안향련, 『반락-그 남자의 음반이야기 김호성&양정환』,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의 집 KOUS, 2015.  
 오갑순, 『남도민요의 향연』, 아세아레코드사 ALS-547(1LP), 1978.

- 유경화, 『공감-유경화의 철현금』, C&L MUSIC, 2005.
- \_\_\_\_\_, 『2014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유경화 철현금산조』, 국악방송, 2014.
- 임경주, 『가야금 명인 임경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대성음반, 1989.
- 차은경·동금악회, 『천년지기 동금악회』, 동금악회, 2007.
- 허희·강정숙, <김영철류>, 국악방송 소장, 연도미상.

## Abstract

A Study on Composition of *Cheolhyeongeum-sanjo*  
by *Kim Yeongcheol* and How It Has Passed On.

Ko Bosuk

Department of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Cheolhyeongeum-sanjo* through music records and interviews with personnel involved. With the purpose of musical analysis and learning about the changes in the process of passing on *Cheolhyeongeum-sanjo*, the results are as follows:

*Cheolhyeongeum* is an instrument that *Kim Yeongcheol* created by modifying the guitar in 1943. *Kim Yeongcheol* has contributed to diversifying *Sanjo* music as he introduced *Cheolhyeongeum-sanjo* with this new instrument. Also, *Cheolhyeongeum-sanjo* by *Kim Yeongcheol* has passed down to next generation and still continues and in the process of passing on, the numbers of melodies have been expanding. *Cheolhyeongeum* is used not only for *Sanjo* but also for different kinds of music. From this point of view, as instruments like *Haegeum* and

*Piri* that came from foreign countries became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Cheolhyeongeum* appears to be in the path of becoming one of main Korean musical instruments since it has enough features to express Korean sentiment.

*Kim Yeongcheol Cheolhyeongeum–sanjo* currently have two base records. The first one is LP 『*Sanjo–Cheolhyeongeum. Ajeng*』 released by Asea Record Label. The second one is “Data Series 23 *Sanjo* Present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following is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ose two existing records:

Firstly, in the first base, it is confirmed that *Jinyangjo* has 55 *Jangdan* in total with 10 key changes; *Jungmori* has 33 *Jangdan* with *Gyemyeonjo* in all C *Cheong*; *Jungjungmori* has 53 *Jangdan* with 2 key changes; *Gutgeori* has 29 *Jangdan* with 3 key changes; *Jajinmori* has 196 *Jangdan* with 8 key changes. In the second base, *Jinyangjo* has 65 *Jangdan* in total with 13 key changes; *Jungmori* has 24 *Jangdan* in *Gyemyeonjo* in all C *Cheong*; *Jungjungmori* has 34 *Jangdan* with 2 key changes; *Jajinmori* has 146 *Jangdan* in *Gyemyeonjo* in all C *Cheong*. The characteristic expressions of *Cheolhyeongeum–sanjo* shown in those two *Sanjos* include *Sigimse* by using open strings, playing multiple strings simultaneously, *Yoeum*(lingering tone) melody, and playing one note with different string instruments. This expression is a technique exclusively for *Cheolhyeongeum*, which highlights the unique tone of *Cheolhyeongeum–sanjo*. As a result of studying the parallel and counter melody in two bases of *Kim Yeongcheol Cheolhyeongeum–sanjo*, the number of *Jangdan* is 94 for *Jinyangjo*, 33 for *Jungmori*, 53 for *Jungjungmori*, 29 for *Gutgeori*, and 218 for *Jajinmori*.

Secondly, it is confirmed that the two bases of *Kim Yeongcheol Cheolhyeongeum-sanjo* are influenced mostly by *Geomungo-sanjo* melody and *Gayageum-sanjo* melody. However, the existing melody was rearranged accordingly to the features of *Cheolhyeongeum* such as the composition of the instrument and its playing techniques. In regards to the melody derived from *Geomungo Sanjo*, there is not much of a change from the original *Geomungo* melody, therefore, it is similar to the original melody compared to the melody derived from *Gayageum-sanjo*.

Thirdly, *Cheolhyeongeum-sanjo* has passed down to 3 generations as of now. *Cheolhyeongeum-sanjo* played by each student is not much different from *Kim Yeongcheol's* melody. The *Sanjo* played by *An Hyangryeon* includes *Hwimori*, and this is the only case that *Cheolhyeongeum-sanjo* was expanded after *Kim Yeongcheol*. However, the fact that *Hwimori* does not appear in any other *Sanjo* played by the students besides *An Hyangryeon* demonstrates that *Cheolhyeongeum-sanjo* with *Hwimori* did not get passed on. Also, *Cheolhyeongeum-sanjo* was only 20-minute short, but later *Sung Changsun* and *Yu Gyeonghwa* played a longer version of it. This can be viewed as aforementioned *Kim Yeongcheol Sanjo* that is combined with melodies similar to *Geomungo-sanjo* and *Gayageum-sanjo*. However, an independent melody appears in *Jungmori* of the longer *Sanjo*, and this is thought to be newly added due to the influence of *Geomungo* and *Gayageum-sanjo* since the melodies resemble them.

Currently, the number of performers, performing various creative activities is multiplying. Music changes through time and its sentiment



but the change is gradual. This author hopes that research on *Cheolhyeongeum* for a new tone that is not too foreign from the existing sentiment will continue. The study on oral sound of *Cheolhyeongeum* that is necessary for passing on *Cheolhyeongeum-sanjo* will be our next assignment.

---

Keywords: Cheolhyeongeum, Sanjo, Kim Yeongcheol, Cheolhyeongeum-sanjo,  
Geomungo Sanjo, Gayageum-sanjo.

Student Number: 2010-30471

## 참 고 악 보

김영철 철현금산조 첫째 바탕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ALS-505(1LP), 1978.

-진 양 조-

고보석 채보

1

2

3

4

5

6

7

8

9

4

10

11

12

5

13

14

15

16

3

6

17

18

7

19

20

21

8

22

23

24

9

25

26

10

27

28

29

30

31

11

32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usical score: The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measure 25) begins with a box containing the number '9'. It contains a half note B-flat, followed by eighth notes A-flat, G, F, E-flat, D, C, B-flat, and A-flat. The second staff (measure 26) contains a series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with various ornaments. The third staff (measure 27) begins with a box containing the number '10'. It contains a half note B-flat, followed by eighth notes A-flat, G, F, E-flat, D, C, B-flat, and A-flat. The fourth staff (measure 28) contains a series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with various ornaments. The fifth staff (measure 29) contains a series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with various ornaments, including a triplet of eighth notes. The sixth staff (measure 30) contains a series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with various ornaments. The seventh staff (measure 31) contains a series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with various ornaments. The eighth staff (measure 32) begins with a box containing the number '11'. It contains a half note B-flat, followed by eighth notes A-flat, G, F, E-flat, D, C, B-flat, and A-flat.

33

12

34

35

13

36

37

38

39

14

40





17



18



19





김영철 철현금산조 첫째 바탕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ALS-505(1LP), 1978.  
-중 모 리-

고보석 채보

1

2

3

9

10

11

4

12

13

5

14

15

6

16

17

18

19

20

7

21

22

23

24

Detailed description: This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single melodic line in G-flat major (two flats). The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numbered 17 through 24.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such as eighth, sixteenth, and thirty-second notes, as well as rests, slurs, and trills. The key signature is G-flat major, indicated by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time signature is not explicitly shown but appears to be common time (C) based on the phrasing. The notation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with the measure numbers 17 through 24 placed at the beginning of each line. A small box containing the number 7 is located between measures 20 and 21.

8

25

26

27

9

28

29

10

30

31

32

33

김영철 철현금산조 첫째 바탕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ALS-505(1LP), 1978.  
-중 중 모 리-

고보석 채보

1

2

3

4

5

6

7

8

3

9

10

4

11

12

5

13

14

6

15

16

7

18

8

20

9

22

10

24

11

12



13

33

34

14

35

36

15

37

38

16

39

40

17  
41

42

18  
43

19  
44

45

20  
46

47

21  
48



김영철 철현금산조 첫째 바탕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ALS-505(1LP), 1978.  
-굿 거 리-

고보석 채보

1

2

3

9

10

4

11

12

13

5

14

15

16

Musical score for a single melodic line in G major (one sharp). The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each containing a measure of music. The measures are numbered 17 through 24.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quarter, eighth, and sixteenth notes), rests, and articulation marks such as slurs and wavy lines. The key signature is G major, indicated by a single sharp (F#).

Measure 17: Quarter note G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B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G4, eighth note F#4, quarter note E4, eighth note D4, quarter note C4.

Measure 18: Quarter note C4, eighth note D4, quarter note E4, eighth note F#4, quarter note G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B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G4.

Measure 19: Quarter note G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B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G4, eighth note F#4, quarter note E4, eighth note D4, quarter note C4.

Measure 20: Quarter note C4, eighth note D4, quarter note E4, eighth note F#4, quarter note G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B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G4.

Measure 21: Quarter note G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B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G4, eighth note F#4, quarter note E4, eighth note D4, quarter note C4.

Measure 22: Quarter note C4, eighth note D4, quarter note E4, eighth note F#4, quarter note G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B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G4.

Measure 23: Quarter note G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B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G4, eighth note F#4, quarter note E4, eighth note D4, quarter note C4.

Measure 24: Quarter note C4, eighth note D4, quarter note E4, eighth note F#4, quarter note G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B4, eighth note A4, quarter note G4.

25

26

27

28

10

29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five staves, measures 25 through 29. The notation is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Measure 25 features a series of eighth notes with a slur, followed by a quarter note and a half note, both with wavy lines above them. Measure 26 starts with a half note, followed by a quarter note and a half note, with a slur over the latter two. Measure 27 continues with a half note, a quarter note, and a half note, with a slur over the latter two. Measure 28 begins with a half note, followed by a quarter note and a half note, with a slur over the latter two. Measure 29 starts with a half note, followed by a quarter note and a half note, with a slur over the latter two. A box containing the number '10' is positioned above the first staff of measure 29.

김영철 철현금산조 첫째 바탕

『산조-철현금·아쟁』, 아세아레코드사 ALS-505(1LP), 1978.

-자 진 모 리-

고보석 채보

1

2

5

7

9

11

13

4

15



Musical score for a single melodic line in G-flat major (three flats). The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numbered 17 through 32.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quarter, eighth, and sixteenth notes), rests, and articulation marks such as slurs, ties, and accents. Fingerings are indicated by numbers in boxes: '5' above the eighth measure (measure 20) and '6' above the eighth measure (measure 28). The key signature remains consistent throughout the passage.

33

7

35

37

39

41

8

43

45

47

9

Detailed description: This musical score is for a single melodic line in B-flat major (two flats). It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numbered 33 through 47.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such as eighth, sixteenth, and quarter notes, as well as rests. Trills are indicated by a 'tr' symbol above certain notes. Slurs are used to group phrases of notes. The key signature remains consistent throughout the passage.

49

51

53

55

57

11

59

61

63

10

11

Detailed description: This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in a single melodic line.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such as eighth, sixteenth, and thirty-second notes, often beamed together. Trills are indicated by a 'tr' symbol above certain notes. Slurs are used to group phrases of notes. Measure numbers 49, 51, 53, 55, 57, 59, 61, and 63 are placed at the beginning of their respective staves. Boxed measure numbers 10 and 11 are placed above measures 53 and 59 respectively. The music concludes with a final whole note chord in the eighth staff.

12



13



14



81

83

15

85

87

16

89

91

93

95

97

99

17

101

18

103

105

19

107

109

111

Detailed description: This musical score is for a single melodic line in G-flat major (three flats). It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numbered 97 to 111.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quarter, eighth, and sixteenth notes), rests, and slurs. Measures 99, 101, 103, 105, 107, and 109 contain wavy lines above the notes, likely indicating vibrato or a specific performance technique. Measure 103 features a double bar line and a key signature change to A-flat major (two flats). Measure 107 contains a trill. Measure 109 has a triplet of eighth notes. Measure 111 ends with a long, sweeping slur over the final notes.

20

113

115

117

119

21

121

123

22

125

127

23  
129

131

24  
133

135

137

25  
139

141

143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in G-flat major (two flats). The first staff (measures 129-130) begin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The melody features eighth and sixteenth notes, with slurs and ties. The second staff (measures 131-132) continues the melodic line. The third staff (measures 133-134) includes a measure with a 24-measure rehearsal mark. The fourth staff (measures 135-136) shows a continuation of the melody. The fifth staff (measures 137-138)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nd a key signature change to G major (one flat). The sixth staff (measures 139-140) begins with a 25-measure rehearsal mark. The seventh staff (measures 141-142) continues the melody. The eighth staff (measures 143-144) concludes the section with a final melodic phrase.



145

147

26  
149

151

153

155

27  
157

159

Detailed description: This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in a single melodic line.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such as eighth, sixteenth, and thirty-second notes, as well as rests. Trills are indicated by wavy lines above notes in measures 145, 147, 149, 151, 153, 155, 157, and 159. Measure numbers 145, 147, 149, 151, 153, 155, 157, and 159 are placed at the beginning of their respective staves. A box containing the number 26 is located above measure 149, and a box containing the number 27 is located above measure 157. The music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and repeat dots at the end of the eighth staff.

161

28

163

165

29

167

169

171

173

175

177

30

179

181

183

185

187

189

191

193

195

돌어엿음 가락

김영철 철현금산조 둘째 바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진 양 조-

고보석 채보

1

2

3

9

10

4

11

12

13

14

5

15

16

17

6

18

19

20

7

21

22

8

23

24

25

26

27

28

9

29

30

10

31

32

This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numbered 25 through 32.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such as eighth, sixteenth, and thirty-second notes, as well as rests. Slurs and ties are used to group notes across measures. Measures 27 and 28 contain triplet markings. Measure 29 is the first measure of a section labeled '9' in a box. Measure 30 is the first measure of a section labeled '10' in a box. The score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at the end of measure 32.

33

11

34

35

36

37

38

39

40

Detailed description: This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piano piece, consisting of eight staves of music.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The time signature is not explicitly shown but appears to be 4/4. The score begins at measure 33. Measure 33 features a treble clef,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and a melody starting on a whole note G4, followed by a series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A wavy line (trill) is placed over the first two notes. Measure 34 is marked with a box containing the number 11. It start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featuring a melody of eighth notes. Measure 35 continues the melody with eighth notes and a wavy line. Measure 36 features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with a melody of eighth notes and a wavy line. Measure 37 continues the melody with eighth notes and a wavy line. Measure 38 is marked with a box containing the number 38. It start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featuring a melody of eighth notes and a wavy line. Measure 39 continues the melody with eighth notes and a wavy line. Measure 40 is marked with a box containing the number 40. It start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featuring a melody of eighth notes and a wavy line.





12



13



14

57

58

59

60

17

61

18

62

63

19

64

65

김영철 철현금산조 둘째 바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중 모 리-

고보석 채보

1



2



3



4

9

10

5

11

12

6

13

14

15

16

17

7

18

19

20

21

8

22

23

24

김영철 철현금산조 둘째 바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중 중 모 리-

고보석 채보

1

2

3

4

5

6

7

8

3

9

10

4

11

12

5

13

14

6

15

16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reble and bass clef, in B-flat major (two flats).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s divided into sections by measure numbers 3, 4, 5, and 6. The music features various rhythmic patterns, including eighth and sixteenth notes, and rests. There are also wavy lines indicating tremolos or vibrato. The score is written for a piano (p) dynamic.



7

17

18

8

19

20

9

21

22

10

23

24



11



12



13



김영철 철현금산조 둘째 바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시리즈 23. 산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자 진 모 리-

고보석 채보

1

3

2

3

17 4

19

21

23 5

25

27

29

31 6

33

35

37

7

39

41

43

45

8

47

Detailed description: This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in a single melodic line.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major).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quarter, eighth, and sixteenth notes), rests, and ornaments (wavy lines above notes). Measure numbers 33, 35, 37, 39, 41, 43, 45, and 47 are placed at the beginning of their respective staves. A box containing the number '7' is positioned above the staff starting at measure 37. A box containing the number '8' is positioned above the staff starting at measure 47. The music concludes at the end of the eighth staff.

49

51

53

55

57

59

61

63

9

10

11

12

13

81

83

14

85

87

89

15

91

93

16

95

Detailed description: This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in a single melodic line.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such as eighth, quarter, and half notes, as well as rests. Trills are indicated by a 'tr' symbol above certain notes. Slurs are used to group sequences of notes. Measure numbers 81, 83, 85, 87, 89, 91, 93, and 95 are placed at the beginning of their respective staves. Rehearsal marks are enclosed in boxes: '14' is above the staff starting at measure 85, '15' is to the left of the staff starting at measure 91, and '16' is above the staff starting at measure 95.



97

99

17  
101

103

105

107

109

111

This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each containing five measures. The key signature is G-flat major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notation is as follows:  
Staff 1 (measures 97-101): Measure 97 has a half note G4, quarter note A4, and quarter note Bb4. Measure 98 has a half note C5, quarter note Bb4, and quarter note A4. Measure 99 has a half note G4, quarter note A4, and quarter note Bb4. Measure 100 has a half note C5, quarter note Bb4, and quarter note A4. Measure 101 has a half note G4, quarter note A4, and quarter note Bb4.  
Staff 2 (measures 102-106): Measure 102 has a half note G4, quarter note A4, and quarter note Bb4. Measure 103 has a half note C5, quarter note Bb4, and quarter note A4. Measure 104 has a half note G4, quarter note A4, and quarter note Bb4. Measure 105 has a half note C5, quarter note Bb4, and quarter note A4. Measure 106 has a half note G4, quarter note A4, and quarter note Bb4.  
Staff 3 (measures 107-111): Measure 107 has a half note G4, quarter note A4, and quarter note Bb4. Measure 108 has a half note C5, quarter note Bb4, and quarter note A4. Measure 109 has a half note G4, quarter note A4, and quarter note Bb4. Measure 110 has a half note C5, quarter note Bb4, and quarter note A4. Measure 111 has a half note G4, quarter note A4, and quarter note Bb4.

18  
113

115

117

19  
119

121

123

20

125

127

129

21

131

22

133

135

137

139

141

풀어맺음가락

143

145